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경제금융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황진태(부연구위원)

금융경제 변혜원(부연구위원)

최이섭(연구원)

보험시장

황진태(부연구위원)

변혜원(부연구위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국내제도

박정희(책임연구원)

해외제도

이정환(선임연구원)

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보 험 동 향

2009년 여름호

목 차

테마진단	1
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	1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및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19
한□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33
경제금융 동향	56
1. 세계경제	56
2. 국내경제	74
3. 금융경제	85
보험시장 동향	92
1. 보험산업 총괄	92
2. 생명보험	94
3. 손해보험	106
국내제도 동향	125
해외제도 동향	137
북미 동향	137
EU 동향	148
일본 동향	158
중국 동향	169
통계표	178

테 마 진 단

◆ 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

변혜원 부연구위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1. 문제제기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대응 능력이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 다각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함.

□ FY2008 손해보험산업의 당기 순익은 1조 3,111억원¹⁾으로 전년대비 21.0%(3,481억원) 감소하였으나, 타 금융권에 비해 당기 순익 감소 폭이 크지 않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당기 순익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타 금융권의 이익 급감 현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타 금융권의 전년대비 2008년 당기 순익 축소는 은행 -49.1%, 증권 -54.2%, 생명보험 -72.9%로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이 타 금융권에 비해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은 이유는 리스크의 상호 해지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형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손해보험산업의 비즈니스는 보험영업 부문과 투자영업 부문으로 구분되며, 보험시

1) 순익의 절대 규모 측면에서 1개사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예: FY2008 전체 손해보험산업 이익 중 1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에 달함) 손해보험산업 전체 지표와 개별 회사의 지표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 차원이 아니라 개별 회사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함.

장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높지 않다면 양자 간 자연 헤지 기능이 존재할 것임.

- 보험영업 부문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노출이 낮을 경우에도 금융위기 시 충격이 덜할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은 일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연금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담보 위험 및 투자 측면에서 부문 간 상호 보완 기능이 존재할 수 있음.
- 일반 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보험영업 측면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장기간 축적된 책임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측면의 이익 기여도가 높을 것임.
- 보험상품 간 듀레이션도 최단 1년 미만에서 최장 30년 이상이므로 영업 및 투자 부분에서 상호 보완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은 경기 민감도가 낮은 반면, 개인보험 중심인 자동차보험은 경기에 민감한 종목으로 알려짐.
- 따라서, 보험종목 간 적절한 수준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경우 각 부문 간 수익과 비용을 상쇄시킴으로써 이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할 것임.
-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개별 회사의 특수한 상황과 다각화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임.
- 본고에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률($ROE = \text{자기자본} / \text{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변화와 보험종목 측면에서의 다각화 수준을 파악한 후,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 측면의 다각화 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데이터는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와 보험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사용함.
- 분석 대상은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종목을 영위하는 10개 원수보험회사로 한정하며, 전업손해보험회사(온라인사, 재보험사, 보증보험사)는 제외함.
- 분석 기간은 대상 손해보험회사의 대부분이 당기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한 FY2001부터 가장 최근 연도인 FY2008까지로 함.

2.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다각화 수준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다각화 수준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사는 보험종목 간 안정적인 다각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사는 특정 종목(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 대체적으로 양호한 다각화 수준을 유지하는 회사는 수익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 회사 별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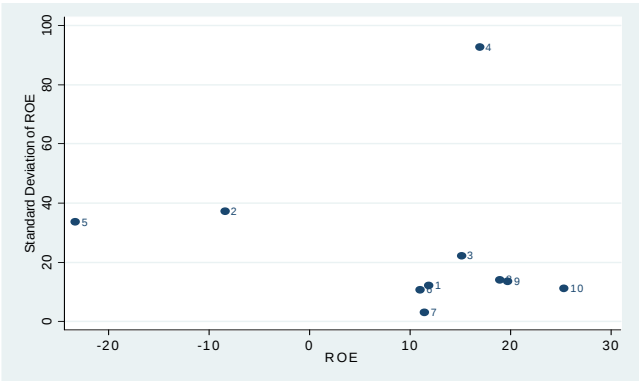
□ 10개 손해보험회사의 FY2001~FY2008 평균 ROE는 10.3% 수준으로 나타났음.

○ 회사 별 ROE 수준을 살펴보면, 2개사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3개사는 평균에 근접한 10~15%, 4개사는 평균보다 높은 15~20% 수준임.

○ ROE가 가장 높은 회사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25.4%인데 비해 가장 낮은 회사는 -94.5%²⁾로 나타나 회사 간 수익성 격차가 매우 큼.

□ 분석 대상 기간 10개사의 ROE 변동성은 35.9%로 나타나 수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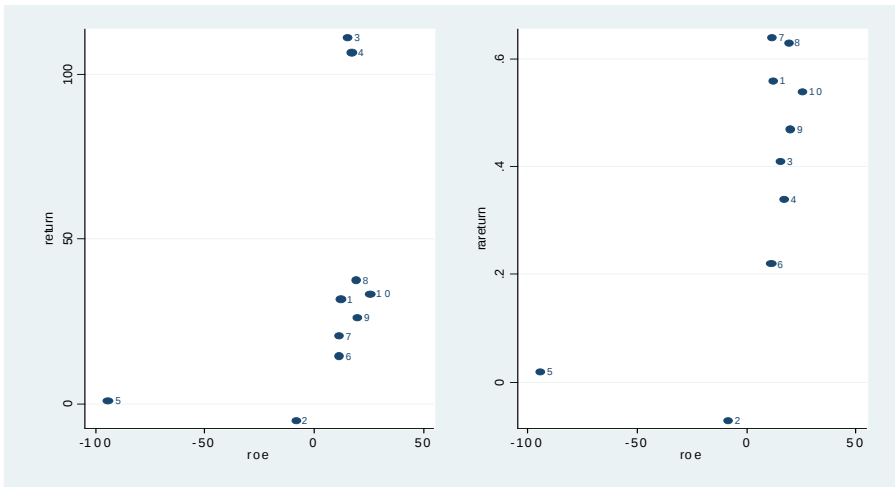
<그림 1> 회사 별 ROE와 변동성



2) 이상치(outlier)를 제외하면, 가장 수익성이 낮은 회사의 ROE는 -23.4%임.

- 이는 극단 값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가장 변동성이 높은 회사의 ROE 표준편차는 92.7%에 달함.
- 반면, 가장 낮은 회사는 ROE 표준편차가 3.1%로 나타나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ROE가 높을수록 주가 수익률과 위험 1단위 당 수익률(주가 수익률/주가 변동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손해보험회사의 회계적 수익성이 자본시장의 투자 수익률로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음.
- ROE와 주가 수익률 간 상관관계는 0.41인 반면, ROE와 위험 1단위 당 수익률 간 상관관계는 0.65로 나타나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과 ROE 간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그림 2> 회사 별 ROE와 주가 수익률(FY2001~FY2008 평균)



주 : 왼쪽 그래프의 y축은 주가 수익률, 오른쪽 그래프의 y축은 위험 1단위 당 주가 수익률(주가 수익률/주가 변동성)
 자료 :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및 블룸버그 주가 데이터

나. 손해보험회사의 다각화 수준

1) 다각화 수준 측정 방법

- 손해보험회사의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쉬만-허핀달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 이하 허핀달지수로 함)를 사용함.
 - 허핀달지수는 원래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로서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공하고 모두 합산해서 계산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더욱 많은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허핀달지수는 높아지게 됨.
- 본고에서는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DPW: direct premiums written) 비중을 적용하여 개별 회사의 허핀달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³⁾.
 - 만약 특정 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 수준이 비슷하다면 그 회사의 허핀달지수는 작아질 것임.
 - 반면, 특정 회사의 전체 원수보험료 중 일부 보험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면 허핀달지수는 커질 것임.
-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손해보험회사의 허핀달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집중화되어 있고, 0에 가까울수록 다각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과거에 비해 허핀달지수가 하락했다면 보종별 원수보험료 기준 다각화가 진전되었음을 의미하고, 허핀달지수가 상승했다면 집중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함.
-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6개(화재, 해상, 특종, 자동차, 장기손해, 개인연금)로 구분하여 허핀달지수를 산출함.

3) 영위하는 보험종목 수(number of lines)를 통해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동 방식에 의할 경우 영업활동이 부진해 실질적인 다각화 효과가 없더라도 보험종목 수가 늘어나면 다각화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다음과 같이 각 사의 전체 원수보험료 중 6개 보험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제공한 후 합계하는 방식으로 회사·연도 별 허핀달지수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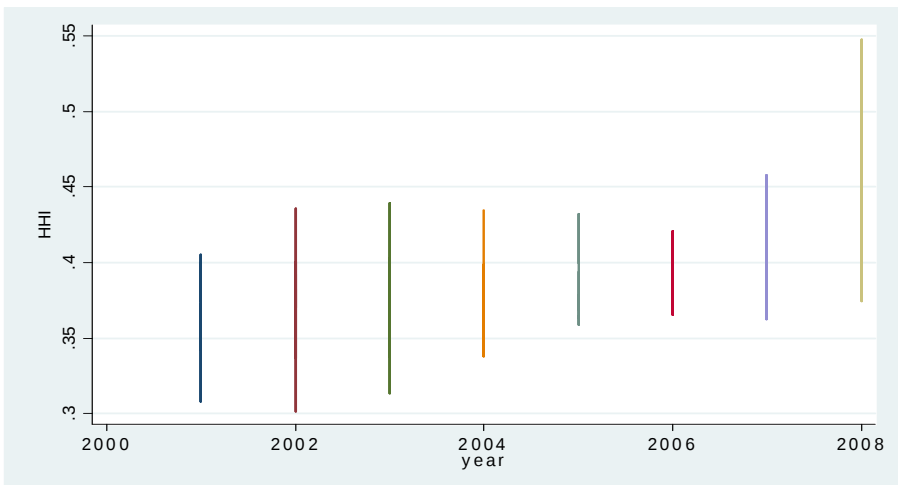
$$HHI_{it} = \sum_{j=1}^6 \left(\frac{DPW_{jit}}{DPW_{it}} \right)^2$$

- j = 종목(화재, 해상, 특종, 자동차, 장기손해, 개인연금)
 - DPW_{jit} = i 사의 t 연도 j 종목 원수보험료
 - DPW_{it} = i 사의 t 연도 전체 원수보험료
- HHI_{it} 가 높다는 것은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므로 종목 간 다각화 효과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다각화 수준 및 추이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 간 다각화 추이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10개사의 평균적인 허핀달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집중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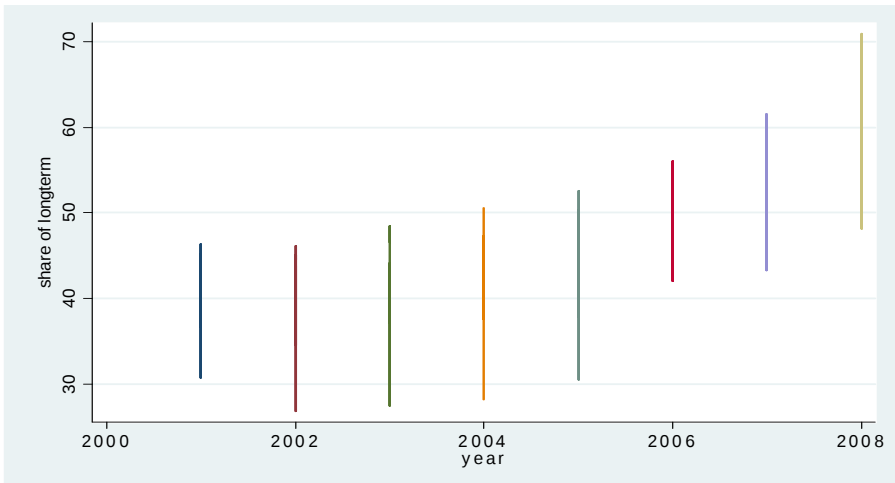
<그림 3> 연도 별 허핀달지수



주 : 연도 별 최소 값과 최대 값 간 편차를 나타냄.

- 10개 손해보험회사의 평균 허핀달지수는 FY2001 기준 0.3677이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FY2008에는 0.4340으로 높아짐.
- 다각화 수준에 대한 회사별 편차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Y2002~FY2006에는 축소되었으나, FY2007 이후 확대되었는데 FY2008은 최저와 최대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됨.
- 손해보험회사의 평균적인 허핀달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석 대상 기간 중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손해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Y2001에는 41.5%였으나, FY2008에는 58.7%로 크게 높아졌음.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FY2003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FY2006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음.
- FY2008 기준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가장 낮은 회사도 48.2%에 달하며, 가장 높은 회사는 70.9%에 달해 최대 매출 종목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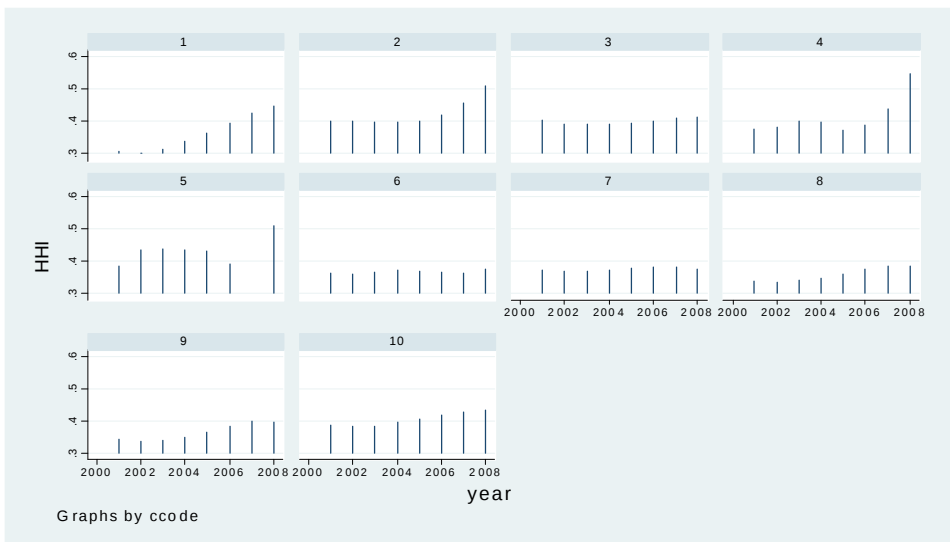
<그림 4> 연도 별 장기손해보험 비중



주 : 세로 축은 원수보험료 대비 장기손해보험 비중(%)으로서 최소 값과 최대 값 간 편차를 나타냄.

- 허핀달지수를 개별 손해보험회사 별로 살펴보면 회사 간 다각화 수준 및 추이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일부 회사(<그림 5>의 6, 7, 8, 9)는 허핀달지수가 0.4 미만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골고루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가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함.
- 나머지 회사들은 허핀달지수가 0.4 이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연도 별 추이에서 볼 때 허핀달지수가 점차 상승하고 있어 오히려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허핀달지수의 추이를 볼 때 일부 회사들은 최근 들어 다각화 전략에 대한 방향 설정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특정 종목(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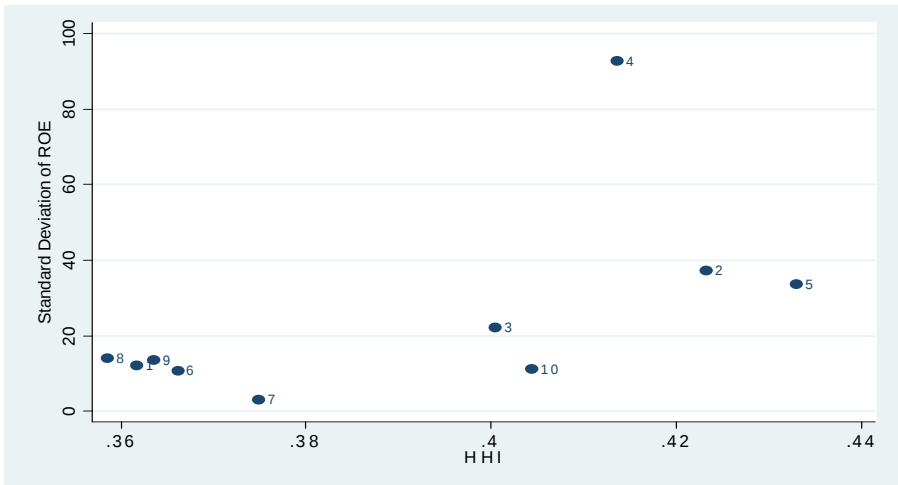
<그림 5> 회사 별 다각화 수준(보종별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주 : 5번 회사의 outlier(FY2007) 제외

- 수익성의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기대와 같이 대체적으로 보험종목 별 다각화 수준이 낮으면 변동성이 높고, 다각화 수준이 높을 경우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기간 평균 다각화 수준이 가장 낮은 회사의 ROE 표준편차는 33.8%로 매우 높은 반면, 다각화 수준이 가장 높은 회사의 ROE 표준편차는 14.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호함.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 차원에서 보험종목 간 다각화(intra-industry diversification)는 분산효과를 통해 수익의 변동성을 축소시킨다고 볼 수 있음.

<그림 6> 회사 별 다각화 수준과 ROE 변동성



- 실제 경험 실적(FY2005~FY2008)을 통해서도 보험영업 부문에서 개별 종목 간 보완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음(<표 1> 참조).
- FY2005에는 자동차보험에서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 부문에서는 이익을 실현하였음.
- FY2008에는 해상보험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자동차보험의 손실 규모가 전년대비 축소되었고, 기타 일반손해보험 부문에서는 이익이 발생함.

- 일반손해보험 내에서도 화재, 해상, 보증 및 특종 간 보완 효과가 존재함.
- 이러한 현상은 보험종목 간 사고 발생 건수 및 손해액, 요율 조정 요인 등이 시점 별로 달리 나타나고, 외부 환경 변화가 개별 종목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임⁴⁾.

<표 1> 손해보험산업의 부문 별 손익

(단위 : 억원)

	보험영업 손익				투자손익, 영업외손익, 특별손익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5	FY2006	FY2007	FY2008
화재	54	289	183	469	97	107	122	163
해상	436	424	276	-2,275	163	235	266	490
자동차	-8,168	-9,487	-5,352	-2,148	2,405	2,994	3,379	4,522
보증	5,386	3,956	4,758	1,972	2,107	4,340	2,880	1,574
특종	3,179	2,770	2,256	1,754	3,151	3,290	5,126	4,667
일반보험 계	586	-2,213	1,395	-2,321	8,688	11,474	12,555	13,891
장기손해	-3,289	-2,857	587	-2,576	7,145	8,648	8,302	6,778
개인연금	-3,197	-3,717	-4,273	-4,589	3,736	3,675	4,150	4,854
장기손해+개인연금	-6,487	-6,574	-3,686	-7,166	10,880	12,323	12,452	11,632
합계	-5,850	-9,310	-3,908	-9,641	20,557	25,460	26,417	27,564

주 : 1) 투자 손익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외 손익과 특별 손익을 포함한 값을 사용함.

2) 보험영업 손익=보험영업 수익-보험영업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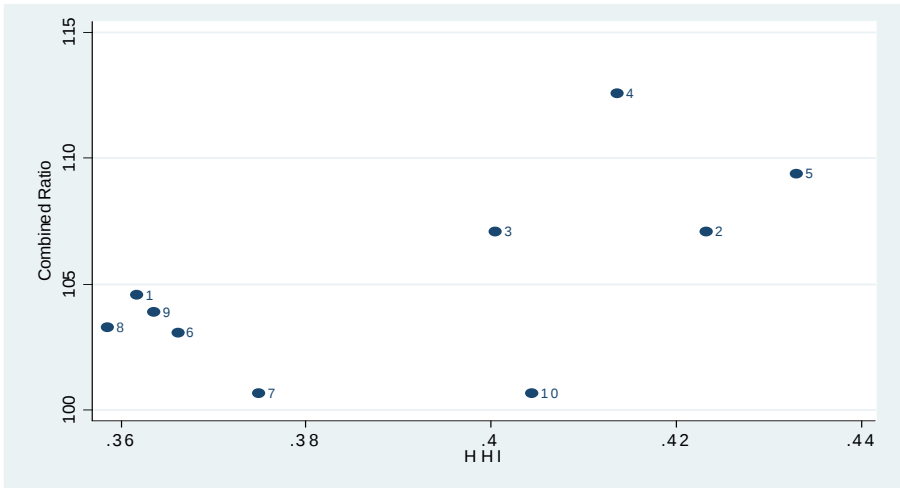
3) 전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실적임.

자료 :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회사 별 다각화 수준과 합산비율 간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각화 수준과 합산비율은 부(負)의 관계가 존재함.
- 즉, 원수보험료 기준 보험종목 간 다각화 수준이 높은 회사는 합산비율이 낮아 보험영업 부문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4) 미국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보험종목 간 규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종목 별로 ROE와 변동성이 달리 나타남.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은 전 종목 평균보다 ROE가 높고 변동성도 낮은 반면, 주택종합보험은 전 종목 평균보다 ROE도 낮고 변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Grace, M. and Klein, R., Understanding Property-Casualty Insurance Profits, 2004, <http://www.aiadc.org/AIAdotNET/docHandler.aspx?DocID=319377>).

<그림 7> 회사 별 다각화 수준과 합산비율



□ 이하에서는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 기준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각화 수준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규명하고자 함.

3. 실증분석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종목 간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각화 수준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가. 분석 모형

□ 손해보험산업 내 다각화 효과가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함.

$$Y_{it} = \alpha + \beta X_{it} + \mu_i + \epsilon_{it}$$

$$i = 1, 2, \dots, 10$$

$$t = FY2001, FY2002, \dots, FY2008$$

- 위 식에서 Y_{it} 는 t 시점의 i 사 수익성이며, X_{it} 는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임.
- 오차항은 관찰되지 않는 개별 회사의 특성(μ_i)과 통상적인 오차(ϵ_{it})의 합으로 표현됨.
- 회사 특성 및 산업 특성을 통제할 경우 수익성은 다각화 수준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음.

$$\text{수익성} = f(\text{다각화 수준} \mid \text{회사 및 산업 특성})$$

나. 변수

-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회계적 측면에서의 성과인 ROE(또는 ROA)임.
 - ROE는 손해보험회사가 투자한 자본 규모 대비 이익을 의미하므로 주주에게 적정한 이익을 제공하고 주주의 자본비용(equity cost of capital)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됨.
- 분석에서 관심이 있는 핵심적인 설명변수는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 기준 개별사의 다각화 수준이며 이는 앞서 정의한 보험종목 별 비중을 이용한 허핀달지수(HHI_{it})를 사용하여 측정함.
 - 보험종목 간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의 분산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원을 다변화시키고, 경영실적을 안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다각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익성도 높아질 것임.
 - 따라서, 허핀달지수가 낮을수록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허핀달지수는 수익성(ROE)과 부(負)의 관계를 가질 것임.

□ 다음과 같은 통제변수를 통해 회사 특성 변수와 시장 변동 요인을 제어함.

○ 규모($SIZE_{it}$)

- 만약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의 지급불능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보다 낮다면,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가격 설정 측면에서 유연성이 존재할 것임.
- 따라서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도 높아질 것임.
- 규모는 총자산의 로그 값($\log(\text{총자산})$)을 사용함.

○ 재무 여력(SOL_{it})

- 위험 회피도가 높은 계약자는 재무적으로 안전한 보험사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재무 여력이 높은 회사일수록 수익성도 높아질 것임⁵⁾.
- 재무 여력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로 측정함.

○ 합산비율($COMB_{it}$)

- 손해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측면의 전문성이 높고 효율적인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익성이 높아질 것임.
- 따라서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계인 합산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질 것임.

○ 투자수익률(INV_{it})

- 언더라이팅 외 손해보험회사의 이익 원천은 투자 부문이며, 특히 장기성 보험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 측면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투자수익률은 회사별 운용자산 이익률($2 \times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전년 말 운용자산} + \text{당년 말 운용자산} - \text{투자영업이익})$)을 사용함.

○ 상위사 더미($DBIG_i$)

-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의 시장 구조는 시장점유율 기준 1~4위사인 상위4사와 기타사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

5) Sommer(1996)에 의하면, 재무적으로 안전한 보험사가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상위4사는 기타사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보유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음.
- 또한, 그룹 계열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지도 및 보험영업 측면에서 기타사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상위4사는 기타사에 비해 수익성도 더 높을 것임.
- 상위사 여부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상위4사는 1로 두고, 기타사는 0으로 둠.

○ 연도 더미(YR_t)

- 회사 특성 변수를 통제하는 것 외에 시간 별 변동 요인(time-induced variations)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를 포함함.
- 기준 연도는 FY2001로 설정함.

□ 모형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과 각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2>, <표 3>과 같음.

<표 2> 기술 통계량

(단위 : %, 억원)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OE	72	10.8	15.7	-48.5	48.3
다각화 수준(허핀달지수)	72	0.3875	0.0386	0.3014	0.5119
규모(총자산)	72	44,957	49,132	4,463	230,922
재무 여력(자기자본/총자산)	72	0.0959	0.0383	0.0477	0.2170
합산비율	72	104.7	3.9	98.8	117.9
투자 수익률	72	6.33	2.90	1.12	18.82
상위사 더미	72	0.43	0.50	0	1

주 : 극단적인 ROE(-50% 이하 및 50% 이상) 값은 제외함.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ROE_{it}	HHI_{it}	$SIZE_{it}$	SOL_{it}	$COMB_{it}$	INV_{it}	DBG_i
ROE_{it}	1.0000						
HHI_{it}	-0.2749***	1.0000					
$SIZE_{it}$	0.2890***	-0.1738	1.0000				
SOL_{it}	0.0785	0.0618	0.4496***	1.0000			
$COMB_{it}$	0.4900***	0.2212***	-0.6391***	-0.1880	1.0000		
INV_{it}	0.2994***	0.1091	-0.3431***	0.0909	0.5446***	1.0000	
DBG_i	0.3899***	-0.2496***	0.8432***	0.3171***	-0.5474***	-0.1706	1.0000

주 : 1)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함.

2)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팽창계수(VIF) 계산 결과 3.25로써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 분석 결과

□ 단순회귀 분석(pooled OLS)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다각화 수준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보증별 원수보험료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을 경우 보험종목 간 존재하는 보완 효과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통제변수로 설정한 합산비율 및 투자수익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고, 합산비율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양호하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무 여력 변수의 계수 값은 부(負)로 나타나 위험 회피도가 높은 계약자가 재무적으로 안전한 보험사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해당 보험사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패널 분석의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⁶⁾에서도 원수보험료 측면에서의 보험종목 간 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6) Hausman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관측 불가능한 회사의 특성 효과를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FE: fixed-effect models)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확률효과모형에서도 단순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허핀달지수의 계수 값이 부(負)로 추정되어 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합산비율이 낮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회사일수록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다각화 수준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단순회귀모형 (pooled OLS)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계수	t값	계수	z값	계수	t값
상수	438.8	0.78	438.8	0.78	511.2	2.81***
HHI_{it}	-74.0	-2.11**	-74.0	-2.11**	33.3	0.59
$SIZE_{it}$	-1.39	-0.48	-1.39	-0.48	-13.5	-1.07
SOL_{it}	-0.71	-2.07**	-0.71	-2.07**	-0.37	-0.38
$COMB_{it}$	-3.84	-8.29***	-3.84	-8.29***	-3.20	-5.35***
INV_{it}	4.60	8.74***	4.60	8.74***	4.37	6.67***
$DBIG_i$	2.92	0.64	2.92	0.64	-	-
YR02	-5.33	-1.20	-5.33	-1.20	-5.65	-1.20
YR03	1.33	0.28	1.33	0.28	-0.80	-0.15
YR04	0.65	0.15	0.65	0.15	-0.39	-0.07
YR05	0.03	0.01	0.03	0.01	-1.23	-0.20
YR06	-1.15	-0.24	-1.15	-0.24	-1.88	-0.24
YR07	-1.39	-0.29	-1.39	-0.29	0.13	0.01
YR08	4.20	0.78	4.20	0.78	5.03	0.46
검정 값	15.0(0.0000)		195.01(0.0000)		10.27(0.000)	
Hausman Test			9.45(0.6638)			

주 : 1) **, ***는 각각 유의수준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은 p값임.

3) 극단적인 ROE(-50% 이하 및 50% 이상) 값은 제외함.

4) 확률효과(random effect)에 대한 Breusch-Pagan LM 검정 결과, 검정 값이 0.69로서 확률효과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단순회귀모형(pooled OLS)이 더 적합한 분석이라는 결과를 시사함.

4. 요약 및 시사점

손해보험회사가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보험종목 간 존재할 수 있는 보완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외부 경기 급락 시 경영성과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회사 별로 자 사에 적합한 최적 다각화 수준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종목 별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를 통해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다각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일부는 다각화 수준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점차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
- 집중화가 심화된 회사들은 FY2006 이후 장기손해보험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허핀달지수가 높아진 것임.
-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은 보종별 원수보험료 측면에서 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험종목 간 존재하는 보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손해보험회사는 적정 수준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ROE 기준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측정한 결과, 회사 별 편차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회사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다각화 진전 시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적절한 다각화 전략의 추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회사 별로 다각화 관련 시너지 효과를 최적화하는 최적 다각화 수준이 존재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다각화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사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다각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비 감소, 교차 판매 가능,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 개발 가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 Carson, James, Elyasiani, Elyas, and Mansur, Iqbal, "Market Risk, Interest Rate Risk, and Interdependences in Insurer Stock Returns: A System-GARCH Model",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5, No. 4, 2008, pp. 873-891.
- Elango, B., Ma Yu-Luen, and Pope, Nat, "An Investigation into the Diversific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in the U.S.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5, No. 3, 2008, pp. 567-591.
- Grace, Martin and Robert Klein, "Understanding Property-Casualty Insurance Profit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rength", *Center for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search Georgia State University Working Paper*, 2008.
(<http://www.aiadc.org/AIAdotNET/docHandler.aspx?DocID=319377>)
- Hoyt, Robert and Trieschmann, James, Risk/Return Relationships for Life-Health, Property-Liability, and Diversified Insurer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8, pp. 322-330.
- KPMG, *Insurance Reporting Round-Up Survey*, 2009.
- Liebenberg, Andre and Sommer, David, "Effects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Evidence From the Probabili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5, No. 4, 2008, pp. 893-919.
- Sommer, David, "The Impact of Firm Risk o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Pric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3, No. 3, 1996, pp. 501-514.
- Swiss Re, *Benchmarks of Success*, 12 July 2004.
- Swiss Re, "Measuring Underwriting Profitability of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Sigma*, No. 3/2006.
- Swiss Re, "Profitability of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It's Back-to-Basics Time", *Sigma*, No. 5/2001.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및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황진태 부연구위원

1. 검토 배경 및 목적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입보험료가 급감세로 전환되면서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변액보험은 특성상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한 상품이므로, 본고에서는 변액 초회보험료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후, 변액보험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변액보험은 최근까지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작년 중반 이후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규모가 크게 위축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실적악화가 야기되고 있으나, 변액보험상품의 실적부진은 타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임.
 - 그리고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기에 따른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은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변액보험은 특성상 타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화에 따라 수입보험료 실적이 민감한 상품이므로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 타 보험상품도 경기변화에 무관하진 않지만, 경기변화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의 특성상 보험소비자의 변액보험 가입여부는 타 보험상품에 비해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변액보험을 분석함에 있어 거시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액보험과 거시경제변수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 실증분석은 미흡한 실정이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회사별 변액 초회보험료와 거시경제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호관계 및 그 정도를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후, 변액보험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변액보험 관련 적립금이 거시경제변수에 있어 실물지표보다는 금융지표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시금융지표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2. 변액보험시장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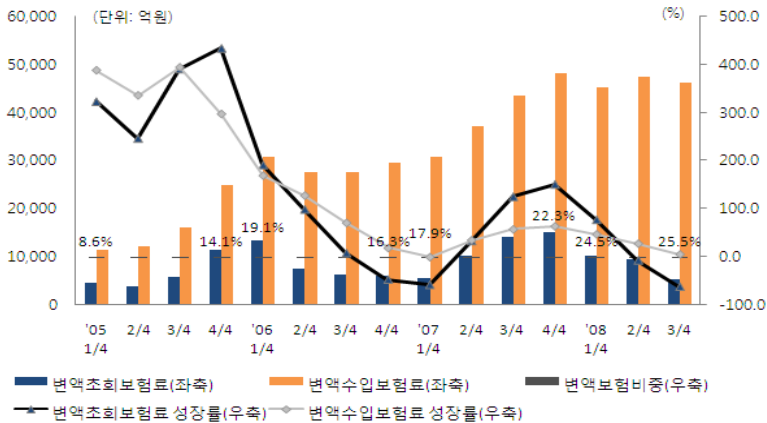
변액보험시장은 2006년, 2008년, 2009년에 크게 위축되는 경험을 하였는데, 그 위축요인으로 주식시장의 침체, 고물가, 고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요인과 감독 당국의 판매 감독강화와 불완전판매의 증가를 들 수 있음¹⁾.

가. 변액보험료의 최근 현황 및 추이

- 변액보험료는 2006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성장세의 둔화가 2006년 4/4분기, 2007년 1/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실적부진을 기록하였고, 이후 2008년 2/4분기부터 최근까지 유가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변액보험시장 위축 현상이 다시 발생함.
- 변액 초회보험료는 2006년 4/4분기, 2007년 1/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46.8%, -57.5%의 극심한 감소세를 겪었고, 2008년 2/4분기~2009년 1/4분기 동안에는 -6.7%, -61.5%, -87.2%, -84.9%로 가파르게 감소함.
- 2006년 2/4분기부터 2007년 1/4분기 동안 고유가와 더불어 미국 및 일본경제의 둔화에 따른 국내경제의 소비자대지수 악화, 감독당국의 판매 감독 강화, 불완전판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액보험시장이 위축되었고, 2008년 2/4분기 들어서는 유가 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의 폭락장세가 이어지면서 변액보험시장의 위축현상이 다시 재현됨.

1) 본고에서의 기간은 CY 기준임.

<그림 1> 변액 초회 및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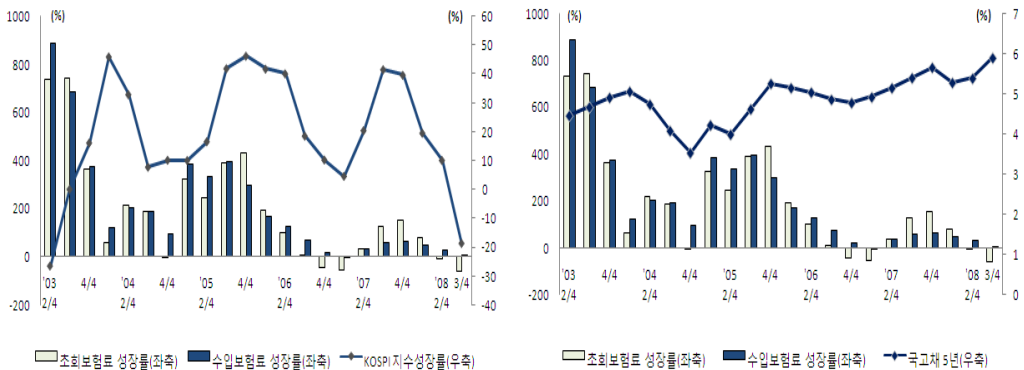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나.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요인

- 거시경제환경 측면에서 변액보험의 위축요인으로 우선 경기둔화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2> 변액보험료 및 주가지수 성장률 <그림 3> 변액보험료 성장률과 이자율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일반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 하에서는 정액보장형 생명보험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여 정액보장형 보험상품에서 변액보험상품으로의 대체효과가 존재하긴 하나, 타 금융상품으로의 이탈이 현저할 경우 변액보험시장도 위축됨.
- 정액보장형의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성을 띄는 금융상품이므로 고물가, 고금리 경제 상황에서는 차후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타 금융상품으로 이탈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됨.
- 변액 초회 및 수입보험료는 KOSPI 지수의 추세와 연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5년 물 국고채 금리와는 다소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관계는 추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임.

<표 1>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실태

(단위 : 건)

소비자 불만 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합 계
☐ 일정기간 후 원금보장약속 불이행	2	53	56	111
☐ 약관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미흡	5	38	45	88
☐ 약관미교부, 계약체결 하자 등	1	38	44	83
☐ 적은 해약환급금 지급	3	16	14	33
☐ 계약전환 및 변경시 해약손해 미설명	--	13	8	21
☐ 보험금지급 분쟁	2	11	7	20
☐ 보험설계사의 손해없는 보험료감액 약속 불이행	1	7	10	18
☐ 기타	1	2	3	6
합 계	15(--)	178(12)	187(18)	380(30)

주 : ()안은 피해구제 건수임.
 자료 : 한국소비자원, 「변액보험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 ☐ 전술한 거시경제환경 외에도 변액보험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감독당국의 판매 감독강화, 불완전판매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2006년에 변액보험 수요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의 증가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보수적인 판매전략 구사가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²⁾.

- 2006년 들어 변액 초회보험료의 급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요인으로 거시경제 환경 외에도 2005년과 2006년에 걸친 불완전판매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변액보험 관련 주요 불완전판매 유형으로는 원금보장약속 불이행, 약관설명무미흡, 약관미교부 및 계약체결 하자 등이 있음.
- 그러나 실제 피해 구제율은 2005년 및 2006년 9월 기준으로 각각 6.74%, 9.63%에 그쳐 잠재적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3. 변액보험과 주요 거시변수 간 실증분석

거시경제변수가 변액 초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별 변액 초회보험료는 주가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 분석대상 데이터³⁾와 기술통계량

- 분석대상 기간은 변액 초회 및 수입보험료 데이터가 존재하는 2001년 4/4분기부터 2008년 3/4분기까지로 28개의 분기이고 대상기업의 수는 20개 생명보험회사임.
- 보험소비자의 거시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은 주로 초회보험료에 잘 반영되므로 본고의 분석에서는 변액 초회보험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함.
- 생명보험회사별 금리연동형 초회보험료는 변액 초회보험료에 대한 금리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함.

- 2) 불완전판매 우려로 삼성생명 2006년에 잠시 변액보험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판매를 재개함.
- 3) 분석대상 데이터로서 생명보험회사별 변액 초회 및 수입보험료는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사별 금리연동형 초회보험료는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 및 각 사별 판매채널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통계), KOSPI 지수□국고채 금리(5년) 및 물가상승률을 계산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 구하였음.

- 방카슈랑스 비중 자료도 통제변수로 사용되는데, 이는 생명보험회사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판매채널로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임.
- 방카슈랑스 자료의 분석대상 기간은 전술한 생명보험회사를 기준으로 2003년 3/4 분기부터 시작하여 21개 분기임.
- 분기평균 KOSPI 지수는 일별 KOSPI 지수를 해당분기 동안의 기간일수를 기준으로 산술평균하였고, 이자율 변수로는 변액보험상품의 장기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5년물 국고채 금리를 사용함.
-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로 계산하였고, 주가지수의 변동성은 일일 주가수익률의 분기 표본분산에 해당분기 일수를 곱한 후 제곱근하여 구함.
- 변액보험과 관련하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분석은 그 시계열이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함.

<표 2>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변액 초회보험료(억원)	549	249.7307	511.9666	0	4257.58
변액 수입보험료(억원)	549	964.3951	1788.321	0	8336.33
금리연동형 초회보험료(억원)	477	422.2542	726.6711	0	5817.406
생명보험회사 자산규모(억원)	560	108525.9	218639.5	0	1171488
방카슈랑스 비중	469	0.3362217	0.3419715	0	1
분기평균 KOSPI 지수	28	1115.459	420.1401	591.0882	1947.071
국고채 금리 5년(%)	28	5.117143	0.7592241	3.53	6.83
물가상승률(%)	28	3.107836	0.8400857	2.012072	5.508072
주가지수 변동성	28	11.5419	3.583118	5.97451	17.1923

주 : (1) 분기평균 KOSPI 지수는 일별 KOSPI 지수의 분기당 산술평균임.

$$(2) \text{ q분기 물가상승률}_q = \frac{\text{소비자물가지수}_q - \text{소비자물가지수}_{q-4}}{\text{소비자물가지수}_{q-4}}$$

(3) y년 q분기 주가지수변동성 $_{y,q} = \sigma_{y,q} \sqrt{T_q}$, 여기서 $\sigma_{y,q}^2$ 는 y년 q분기의 일별 주가지수 수익률(%)의 표본분산이고 T_q 는 분기 q의 기간일수임.

- 패널분석은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계열 또는 횡단면자료만의 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패널데이터는 제공할 수 있음.
- 패널데이터는 개별특성효과와 시간특성효과를 고려할 수 있어 시계열 또는 횡단면분석에서 범할 수 있는 왜곡을 보완할 수 있음.
- 자료의 특성상 많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제공함으로써 추정치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는 장점 등이 있음.

나. 수준모형 분석결과

- 먼저 수준(level)모형으로 일반패널모형(패널모형 [1])과 시차패널모형(패널모형 [2])을 사용하는데 패널모형 [1]과 [2]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s)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을 각각 고려함(<표 3> 참조).
- 패널모형 [1]과 [2]의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전반적으로 계수 추정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정효과에 의한 편의(bias)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확률효과모형이 효율적(efficient)일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체로 패널모형 [2]에서 당기와 1계 시차변수의 계수 추정치의 합이 패널모형 [1]의 (당기) 계수 추정치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때 본고에 설명변수로 편입된 거시경제변수들은 양(+)의 자기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KOSPI 지수>

- 전반적으로 패널모형 [1]에서 KOSPI 지수는 변액 초회보험료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주식시장이 활황일수록 변액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주식시장이 활황인 경우 적립금에 대한 기대수익률의 증가로 변액보험 가입이 증가하게 되나, 반대로 주식시장이 침체될 경우 보험소비자의 변액가입 유인은 약화되어 초회보험료에 반영됨.

<표 3> 분석결과 (종속변수: 로그 변액 초회보험료)

변수명	패널모형 [1]				패널모형 [2]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1)	(2)	(3)	(4)	(5)	(6)	(7)	(8)
로그 분기평균 KOSPI 지수	5.46*** (0.33)	4.70*** (0.48)	5.13*** (0.37)	4.13*** (0.40)	2.59* (1.43)	1.39 (1.41)	2.22 (1.52)	0.82 (1.57)
1계 시차 로그 분기평균 KOSPI 지수					2.92** (1.42)	2.74* (1.40)	3.11** (1.51)	2.89* (1.56)
국고채 금리(5년)	-0.91*** (0.20)	-0.89*** (0.20)	-0.85*** (0.22)	-0.88*** (0.21)	-0.73** (0.32)	-0.61* (0.32)	-0.70** (0.34)	-0.62* (0.36)
1계 시차 국고채 금리(5년)					-0.56* (0.33)	-0.69** (0.32)	-0.57 (0.35)	-0.74** (0.36)
물가상승률	-0.28*** (0.08)	-0.33*** (0.09)	-0.32*** (0.09)	-0.37*** (0.09)	-0.23 (0.28)	-0.34 (0.28)	-0.27 (0.30)	-0.31 (0.31)
1계 시차 물가상승률					-0.26 (0.28)	-0.25 (0.28)	-0.26 (0.30)	-0.29 (0.31)
주가지수 변동성	0.00 (0.03)	0.01 (0.03)	0.00 (0.03)	0.02 (0.03)	0.01 (0.03)	0.03 (0.03)	0.01 (0.03)	0.04 (0.03)
1계 시차 주가지수 변동성					0.01 (0.04)	0.06 (0.04)	0.01 (0.04)	0.06 (0.04)
로그 금리연동형 초회보험료	0.22*** (0.08)	0.08 (0.09)	0.31*** (0.06)	-0.02 (0.08)	0.13 (0.09)	-0.07 (0.11)	0.14 (0.10)	-0.28** (0.11)
1계 시차 로그 금리연동형 초회보험료					0.12 (0.09)	0.01 (0.10)	0.16* (0.09)	-0.07 (0.11)
로그 보험회사 자산규모		0.51 (0.33)		0.83*** (0.15)		11.21*** (2.45)		16.39*** (2.47)
1계 시차 로그 보험회사 자산규모						-9.85*** (2.29)		-14.87*** (2.40)
방카슈랑스 비중		1.53*** (0.45)		1.86*** (0.44)		0.99* (0.54)		1.12* (0.58)
1계 시차 방카슈랑스 비중						1.04* (0.53)		1.39** (0.58)
2/4분기 더미변수	-0.14 (0.20)	-0.16 (0.20)	-0.13 (0.23)	-0.18 (0.21)	-0.06 (0.24)	-0.13 (0.23)	-0.06 (0.25)	-0.22 (0.26)
3/4분기 더미변수	-0.00 (0.20)	0.01 (0.20)	0.01 (0.23)	-0.02 (0.22)	0.01 (0.21)	-0.09 (0.21)	0.02 (0.22)	-0.22 (0.23)
4/4분기 더미변수	-0.12 (0.20)	-0.03 (0.20)	-0.09 (0.23)	0.01 (0.22)	-0.04 (0.22)	-0.16 (0.22)	-0.01 (0.24)	-0.24 (0.25)
상수항	-30.2*** (1.98)	-30.3*** (2.30)	-28.7*** (2.18)	-29.4*** (2.11)	-28.3*** (2.55)	-33.3*** (2.94)	-27.6*** (2.70)	-31.0*** (2.88)
관측치 수	355	348	355	348	347	334	347	334

주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 모형 (2)에서 KOSPI 지수의 추정치는 4.70인데, 이는 KOSPI 지수가 1% 상승할 때 변액 초회보험료는 4.70% 상승함을 의미함.
- 앞선 기술통계량을 기준으로 KOSPI 지수(평균 1115.46p)가 약 11p 상승(10% ↑)하면 평균적인 보험회사의 변액 초회보험료(평균 249.73억원)는 117.37억원이 증가함을 의미함.
- 패널모형 [2]에서는 해당 분기의 KOSPI 지수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 1계 시차 KOSPI 지수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줌.
- 즉, KOSPI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변액 초회보험료가 당기보다는 차기에 더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현황과 보험소비자의 변액 보험 가입에 다소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 결과 KOSPI 지수는 변액 초회보험료의 선행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고채 금리(5년)>

- 패널모형 [1]과 [2]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해당분기와 전분기에서 국고채 금리(5년)와 대체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이자율이 낮을 때 변액 초회보험료가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음(-)의 관계는 장기성 정기에금과 같은 은행상품이나 채권상품에서 변액보험상품으로의 대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즉, 저금리환경 하에서 장기성을 띄는 정기에금이나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변액보험상품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이 존재함.
- 모형 (2)에서 국고채 금리의 추정치는 -0.89인데, 이는 5년물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할 때 변액 초회보험료는 89% 감소함을 의미함.
- 기술통계량을 기준으로 5년물 국고채 금리(평균 5.12%)가 1%p 상승(5.12% → 6.12%)하면 실제 금리의 상승폭은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 때 변액 초회보험료(평균 249.73억원)는 222.26억원이 감소함.
- 이를 국고채 금리가 현행수준에서 1% 상승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인 보험회사의 변액 초회보험료는 11.11억원 만큼 감소함을 의미함.

〈물가상승률〉

- 패널모형 [1]에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해당 분기에서 물가상승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⁴⁾.
 - 이는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변액 초회보험료가 감소함을 의미하는데,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 보험상품 내에서 변액보험으로의 대체효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증결과 금융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어 변액보험에의 가입유인도 약화되는 것으로 사료됨.
 - 모형 (2)에서 물가상승률의 추정치는 -0.33인데, 이는 물가상승률이 1%p 상승할 때 변액 초회보험료는 33% 감소함을 의미함.
 - 전술한 국고채 금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평균 3.11%)이 1%p 상승(3.11%→4.11%)하면 그 상승폭은 약 32%에 해당하는데, 이 때 변액 초회보험료(평균 249.73억원)는 82.41억원이 감소함을 의미함.
 - 다시 물가상승률이 현행수준에서 1% 상승하는 것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인 보험회사의 변액 초회보험료는 2.58억원 감소함.

다. 차분모형 분석결과

- 시계열 자료의 불안정성(non-stationarity)에 따른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위하여 차분(difference)모형⁵⁾을 사용함(<표 4> 참조).
 -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차분패널모형 [1]과 [2]의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전반적으로 계수 추정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확률효과모형이 효율적(efficient)인 것으로 판단됨.
 - 앞선 수준모형의 결과처럼 차분패널모형 [1]에서 차분 로그 변액 초회보험료(전 분기대비 변액 초회보험료 성장률)는 전분기대비 KOSPI 지수 성장률과 유의한

-
- 4) 패널모형 [2]에서 변액 초회보험료가 물가상승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대체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5)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한 경우 수준모형을 통한 추정치는 표준오차에 있어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결과 t-검정에서도 편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차분을 통한 차분모형은 추정과 검증에 있어 강건성을 가질 수 있음.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차분 국고채 금리와 차분 물가상승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줌.

- 차분패널모형 [2]는 계절성을 제거한 잔차들을 종속변수로 한 것으로 차분패널 모형 [1]과 부호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4> 분석결과 (종속변수: 차분 로그 변액 초회보험료)

변수명	차분패널모형 [1]				차분패널모형 [2]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1)	(2)	(3)	(4)	(5)	(6)	(7)	(8)
차분 로그 분기평균 KOSPI 지수	2.58*** (0.84)	2.56*** (0.87)	2.48*** (0.83)	2.38*** (0.85)	1.99*** (0.73)	2.03*** (0.77)	1.95*** (0.73)	1.87** (0.74)
차분 국고채 금리(5년)	-0.43*** (0.16)	-0.33** (0.17)	-0.40** (0.16)	-0.30* (0.17)	-0.39** (0.15)	-0.30* (0.16)	-0.37** (0.15)	-0.27* (0.16)
차분 물가상승률	-0.35** (0.14)	-0.34** (0.15)	-0.33** (0.14)	-0.31** (0.14)	-0.44*** (0.13)	-0.42*** (0.13)	-0.41*** (0.12)	-0.38*** (0.13)
차분 주가지수 변동성	-0.01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2)
차분 로그 금리연동형 초회보험료	0.01 (0.06)	0.00 (0.07)	0.02 (0.06)	-0.00 (0.07)	0.02 (0.06)	0.00 (0.07)	0.03 (0.06)	-0.00 (0.07)
차분 로그 보험회사 자산규모		-0.41 (1.66)		0.26 (1.13)		-0.52 (1.65)		0.21 (1.13)
차분 방카슈랑스 비중		0.23 (0.37)		0.25 (0.37)		0.32 (0.37)		0.34 (0.36)
2/4분기 더미변수	-0.26 (0.17)	-0.25 (0.17)	-0.24 (0.17)	-0.23 (0.17)				
3/4분기 더미변수	-0.21 (0.16)	-0.19 (0.17)	-0.19 (0.16)	-0.19 (0.17)				
4/4분기 더미변수	-0.25 (0.16)	-0.26 (0.17)	-0.24 (0.16)	-0.26 (0.16)				
상수항	0.35*** (0.11)	0.35** (0.14)	0.34*** (0.10)	0.30** (0.12)	0.20*** (0.06)	0.20* (0.11)	0.20*** (0.06)	0.16* (0.09)
관측치 수	332	319	332	319	332	319	332	319

주 : ()안은 표준오차이고,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4. 요약 및 시사점

거시경제변수가 변액 초회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경기회복의 조짐과 함께 정책 당국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된다면 변액보험시장의 회복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봄. 보험회사의 경영에 대한 시사점으로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이 자산운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의 판매측면에서도 요구됨.

-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보험회사별 변액 초회보험료는 KOSPI 지수와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이자율과 물가상승률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변액 초회보험료가 거시경제지표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KOSPI 지수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산운용 수익률 증대로 인하여 적립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금리변화로 인한 장기성 정기예금과 같은 은행상품이나 채권상품에서 변액보험상품으로의 대체성이 높을수록, 낮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어 적립금의 가치하락이 낮을수록 보험소비자의 변액보험 가입유인은 높아짐.
- 변액 초회보험료가 거시경제변수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과 더불어 주식시장 재황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정책당국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된다면 변액보험시장의 회복가능성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별 KOSPI 지수를 이용한 Hodrick-Prescott 필터 추세를 볼 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향후 주식시장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향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므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일별 KOSPI 지수와 HP 필터



주 : 일별 데이터이므로 Hodrick-Prescott 필터의 $\lambda = 200000$ 으로 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변액보험은 거시경제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보험상품이므로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모니터링에 대한 초점을 단지 자산운용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상품의 판매측면에도 맞출 필요가 있음.
-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변액보험상품의 판매 및 관련 자산운용기법에 있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변액보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제고하여야 함.
- 한편,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증가가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고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고,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행해지기를 희망함.

<참 고 문 헌>

- 금융보험팀,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2006. 11.
- 김진억, 「변액보험 성장 둔화 이후 생명보험시장 특징」, 『보험동향』, 겨울호, 보험연구원, 2006.
- 김해식□서성민, 「생명보험회사의 손익구조 평가 및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08. 12.
- 맹수석, 「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보험연구원, 2003. 9.
- 송윤아, 「인출보증유선부 변액연금 활성화 필요성」, 『보험동향』, 봄호, 보험연구원, 2009.
- 예금보험공사, 「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2006. 4.
- 이경희, 「미국 생보사의 변액연금 최저보증 해정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09. 2.
- 생명보험본부, 「외국의 변액보험 운용현황 및 국내도입시 고려사항」, 『생명보험상품수리』, 제15호, 보험개발원, 1999. 8.
- 정신동,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 한국금융학회, 2008.
- 최영목□최원, 「변액보험 시장점유율 변화와 판매측면의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09. 1.
- Mudavanhu, B. and Zhuo, J. "Valuing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s in Variable Annuities and the Option to Lapse", *Working Paper*, 2002.
- SOA, "Results of the Survey on Variable Annuity Hedging Programs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2007.
- _____, "Trends in Variable Annuity Risk Management", 2008.

◆ 한·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이상우 선임연구원

1. 검토 배경

효율적 규제 및 감독을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수탁자 관련 제재제도를 비교 및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수탁자 관련 제재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함

- 퇴직연금제도에서 수탁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신의 재량에 의해 운영□관리하게 되므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함.
- 근로자에게 모든 운용책임이 주어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퇴직연금자산 운용 관련자의 도덕적 의무 및 책임여부가 수급권 보장 여부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자산운용 규제완화 추세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권 남용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에서 수탁자 책임의 명확화가 요구됨.
-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수탁자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익자의 운용 선택폭이 확대되는 반면,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리스크는 그 만큼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인 금융제도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요구되므로, 수급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명확하고 적절한 제재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수탁자와 관련된 법률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를 상호 비교한 후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차원에서 개선과제를 검토함.

-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퇴직연금 제재제도의 법률적 요건으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탁자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법률 위반 시 주무부처가 취할 수 있는 제재제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비교대상 법률은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확정각출형연금법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계약형¹⁾ 중심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의의가 큼.
-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퇴직연금법에서 정한 수탁자 책임과 위무, 금지행위를 살펴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시 어떠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지 법률의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법률상 제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수탁자 책임과 제재제도의 유형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수탁자를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 및 형벌적 제재 등을 취할 수 있음.

가. 수탁자의 범위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법률에서 명시한 퇴직연금의 거래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제재조치의 대상이 됨.
- 퇴직연금제도에서 위탁자는 근로자이며, 모든 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과 운영자는 수탁자에 해당됨.

1) 금융기관에 완전 위탁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금전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됨.

- 집행기관이나 운영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관리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수탁자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재량권을 갖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위원회 대표, 사용자, 금융회사 등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임.
-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수탁자의 범위를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로 제한하는 등 좁은 의미로 해석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산운용을 의뢰한 사용자,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등을 수탁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반면, 수탁자 개념이 태동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에 고용되어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를 수탁자에 포함시키는 등 수탁자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

<표 1> 수탁자 범위 및 책임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수탁자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 [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 외부전문가(펀드매니저, 연금컨설팅), 사용자 등]		제한적 규정 사용자,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연금컨설팅 등	제한적 규정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책임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 등 4대 의무			

나. 수탁자 책임

-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가 행사하는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신탁계약에서 유래한 개념임.
-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는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충실의무), 의무를 신중하게 수행할 것(주의의무), 연금제도 규정을 준수할 것, 분산투자할 것, 합리적인 경비를 집행할 것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을 짐.
- 수탁자 책임과 금지행위는 수탁자의 자율적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부작용을 방지

하는 차원에서 법률에서 명확히 명시되며, 위법 행위시 주무부처가 행정적 또는 형벌적 제재조치를 부여하는 등 일반적인 계약관계보다 엄격히 운영 및 관리됨.

- 퇴직연금제도에서 수탁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내포하므로 가입자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에게는 연금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중요한 책무와 도덕성을 필요로 함.
-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계약형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연금자산의 운영 및 관리가 금융회사에 완전 위탁되므로 연금자산을 기금이 관리하는 기금형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됨.
- 우리나라는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의무 규정을 두어 법률위반 시 벌칙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본은 영□미식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확정급여기업연금법 및 확정각출형연금법은 연금제도 내부자 이외에 운용기관의 수탁자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음²⁾.
- 미국의 ERISA법은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를 수탁자 책임으로 규정하였으며, 판례법 전통이 강한 영국은 1995년 연금법 개정시 수탁자 책임을 규정에 명시하였음.

다. 제재제도의 유형

- 근퇴법은 사용자 및 사업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부 및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행정적 제재와 형벌적 제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행정적 제재

- 행정적 제재제도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에 따라 법률상 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의미함.

2) 土浪 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p.80 참조

- 행정적 제재조치는 영업상의 제재, 개인의 신분상 제재, 금전상 제재로 구분되고 제재대상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분됨.
- 근퇴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사업자가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근퇴법 §8).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받은 때, 등록내용 또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기간 중 그 영업을 한 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또는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 수급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요구,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형벌과 금전적 제재

- 형벌상의 제재는 주부무처 등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과 같은 형사조치와 사법당국이 기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 및 결정하여 처분할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양벌형 있음.
 - 양벌형은 범죄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벌을 말함.
- 금전적 제재는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부과하는 벌금과 구별되며,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형과 법률의 이행 확보를 위한 질서법의 성격을 갖는 과태료 등이 있음.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주무부처가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함.

- 과태료는 금전적 벌칙의 일종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지 않는다 해도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칙임.

3. 한국과 일본의 수탁자 책임 및 제재제도

우리나라는 근퇴법상 사용자의 법률 위반시 형벌적 제재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사업자의 형벌적 제재는 부재하며, 일본은 DC법상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벌적 제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임.

가. 한국의 수탁자 책임과 제재제도

- 근퇴법상의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은 기본적인 책무와 금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정부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근퇴법상의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구 분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관련근거
사용자	☐ 퇴직금 기한내 지급 의무(§) ☐ 근로자 교육 실시 의무		§9 등 (사용자 책무)
	금지 의무	☐ 사업안 차등 금지(§) ☐ 근로자 동의 위반 금지(§) ☐ 근로자 불이익행위 금지(§) ☐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다른 목적으로 계약체결 금지 ☐ 퇴직연금제도 운영저해 금지	
퇴직연금 사업자	☐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0)		§0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금지 의무	☐ 자산관리계약체결 거부 금지 ☐ 가입자손실보전 금지 ☐ 특별이익제공 금지 ☐ 가입자정보제공 금지 ☐ 특정한 운용방법 제시 금지	
정 부	세제 등 지원방안강구 의무		§1 (정부의 책무)

- 제재제도는 사용자에게 대한 형벌적 제재제도는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한 법률 위반 시 형벌적 제재제도는 부재함.
- 사용자의 법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적 제재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법률 위반시 제재가 부재함.
- 사용자 책무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가입자 교육의무(필요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실시위탁가능)와 퇴직금 기한내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표 3>, <표 4> 참조).
- 또한, 사용자는 연금 사업안을 차등하는 행위, 근로자 동의 위반, 근로자의 불이익 행위 금지 위반,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벌칙 규정이 부재함.

<표 3>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1): 징역 또는 벌금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퇴직금 기한내 지급 위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기한(14일 이내)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사업안의 차등 금지 위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법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 동의 위반	사용자가 제도 선택□변경시 노동조합원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3)	5백만원 이하의 벌금(§3)
	근로자 불이익 행위 금지 위반	사용자가 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입장에서 불이익하게 변경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4)	

<표 4>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II):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교육 실시 위반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9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
	다른 목적으로 계약 체결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9②)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5)
문서준수의무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사용자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9②)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퇴직연금취급실적 제출 의무, 이익제공 사전약속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표 5> 참조).

○ 특히,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범위 이외에 취득정보사용금지 의무, 특정운용방법제시금지 의무가 존재함.

- 업무범위 이외에 취득정보사용금지 의무는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특정운용방법제시금지 의무는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임.

□ 또한, 계약체결 거부행위, 계약체결 강요행위,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운용지시 정보유출 행위, 손실부담 행위, 특별이익 제공약속, 개인정보, 유출행위 위반,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위반, 취급 현황 미제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정부의 책무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5>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계약 체결 거부	사업자가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0②)	
	계약 체결 강요 행위	사업자가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0)	
주의의무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사업자가 사용자□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0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 행위	사업자가 사용자□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0②)	
	운용지시 정보 유출 행위	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0③)	
	손실 부담 행위	운용관리기관이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0③)	
	특별이익 제공약속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0③)	
	개인정보 유출 행위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0③)	
분산투자 의무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 위반	운용관리기관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0③)	
법령준수 의무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위반	사업자가 법, 명령 또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0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5)
	취급 현황 미제출	사업자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노동부장관□금융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9②)	

나. 일본의 수탁자 책임과 제재제도

- ☐ 일본 확정각출형연금법에서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하고 폭넓은 형벌적 제재조치가 존재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것이 특징임.
- ☐ 퇴직연금 수탁자 책무로는 사업주의 책무, 운영관리기관의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6> 확정각출형연금법상의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구 분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관련근거
사용자	☐ 사업주의 부금 납부(§1) ☐ 근로자 교육실시 의무(§2) ☐ 운영관리기관에 통지의무(§6)		§2 등 (사업주 책무)
	금지의무	☐ 근로자 동의 위반 금지(§) ☐ 보고정수 및 임점검사 위반(§1) ☐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1) ☐ 개선 명령 이행 위반(§2①) ☐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49①) 등	
퇴직연금 사업자	☐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9①)		§9 (퇴직연금사업자의 행위준칙)
	금지의무	☐ 중요사항 미고지 ☐ 부실고지금지(§100④) ☐ 가입자 손실보전 금지(§100①) ☐ 특별이익제공 금지(§100②) ☐ 미등록 부정등록 행위 금지(§8①) ☐ 명의대여 금지(§5) ☐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102) ☐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6)등	
정 부	세제 등 지원방안강구 의무(§6)		§7 등 (지도 및 조언)

- 사용자 책무에는 투자교육 제공, 근로자 동의, 업무 위탁 등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주체인 사용자는 퇴직연금 시행에 앞서 노사간의 합의를 얻은 규약을 마련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업무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적립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기관과 계약하며 기여금은 사용자가 각출, 가입자 등이 그 운용의 지시를 함.
- 사용자는 가입자 등이 적절한 자산운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투자교육을 실시하는 책무를 지고 있음(<표 7> 참조).
 - 사용자에 대한 행위규제에는 보고장수 및 임점검사 위반,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개선 명령 및 이행 위반, 규약변경 통지 위반, 기록관리에 정보 미통지, 기한내 신고 위반 등이 있음.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50만엔 이하의 벌금,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1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운영관리업무를 퇴직연금 기록관련 업무(가입자에 관한 기록, 운용지시의 정리와 자산관리기관에의 통지, 급부의 재정) 및 운용관련업무를 선정과 가입자에게의 제시,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임.
 - 사용자는 운영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운영관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교육에 대해서도 운영관리기관으로의 위탁이 가능함.
- 운영관리기관에 대한 행위규제에는 미등록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명의대여 금지, 손실부담의 금지위반 특별이익 제공 행위, 추가적 이익제공 금지위반, 중요사항 미고지□ 부실고지,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 행위 등이 있음(<표 8>, <표 9> 참조).

<표 7>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 징역, 벌금,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법령준수 의무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기업)	기업이 주무장관에게 퇴직연금 실시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임점검사 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20)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한 때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1)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23)
	개선 명령 이행 위반	주무장관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상황에 대해 보고를 청구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할 경우(사업주가 법령, 규약이나 주무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주의 연금 운영이 현저히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할 시(§21)	
	규약 변경 통지 위반	IRA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주무장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81)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사업주가 퇴직연금 관련 보고서를 기한내 작성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0)	
	기록관리에 정보 미통지	사업주가 퇴직연금 규약의 승인을 받을 때 기록관리기관에게 기한내 법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61)	10만엔 이하의 과태료 (§24)
	기한내 신고 위반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의 승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IRA가입자 소정의 사항을 연합회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7)	
문서준수 의무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업무를 하는 사업주가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작성이나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장부서류를 작성할 경우(§9)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23)

<표 8>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1): 징역 또는 벌금형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중요사항 미고지, 부실고지	운영관리기관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 약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의로 사실을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을 고지하는 행위 등 (§00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19)
	손실부담의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계약을 체결시 상대방에게 가 입자 등의 손실의 전부□일부를 부담할 것 을 약속할 경우(§00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18)
주의의무	특별이익 제공 행위	운영관리계약시 상대방에게 가입자□거래 상대방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경우(§00②)	
	추가적 이익제공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업무상 발생한 가입자 등의 손실의 전부□일부를 보상하거나 가입자등 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해 가입자□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3자를 시켜서 제공하는 행위(§00③)	
법령준수 의무	미등록 영업행위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8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운영관리업을 부정한 수단으로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은 경우(§8①)	
	명의대여 금지	운영관리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영관리업을 하게 할 경우(§5)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 행위	주무장관으로부터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 명령에 반하여 운영관리업 을 영위할 경우(§04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19)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9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20)

<표 9>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II): 징역, 벌금,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법령준수 의무	변경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등록신청서 변경 사항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2①)	50만엔 이하의 벌금(§21)
	운영개선 명령위반	주무장관은 운영관리기관의 업무에 있어 가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의 운영개선을 할 수 있는데, 운영관리기관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04)	
	기한내 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합병, 파산 등으로 등록 효력을 상실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6①)	10만엔 이하의 과태료(§24)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주무장관에게 그 업무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임점검사 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0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20)
문서준수 의무	영업소 표식 비치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의 표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4①)	50만엔 이하의 벌금(§21)
	의무자 이외의 자가 표식 게시	운영관리기관 이외의 자가 운영관리기관에 관한 표식 또는 유사 표식을 게시할 경우(§4②)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운영관리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가입자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기재가 있는 서류를 비치하거나 가입자 등에게 열람시킬 경우(§6)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기관이 그 업무의 장부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장부서류를 작성할 경우(§0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20)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02)	

- 또한,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 보고정수 및 임점검사 위반(운용관리기관), 변경 신고 위반, 영업소 표식 비치 위반 행위 등이 있음.
- 운영관리기관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20만엔 이하의 벌금, 10만엔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함.
- 확정각출형연금법은 자산관리기관에 충실의무를 부여하여 법령 및 자산관리계약을 준수하고 기업형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4~~).

4. 한국과 일본의 수탁자 책임 제재제도의 비교

한국은 수탁자의 법률 위반시 형벌 및 금전적 제재의 양적인 수준이 일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낮은 수준의 금전적 제재와 제재제도의 다양성 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가. 양적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률 의무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적 또는 금전적 제재가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법률 의무자에 대해 총 26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으나 한국은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8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한정됨.
-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병과형: 일본은 12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병과형의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에 한국은 4개의 병과형에 불과함.
 - 벌금형: 일본은 6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규정이 존재하나 한국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음.
 - 과태료: 한국은 14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나 일본은 8개의 과태료 규정이 있음.

- 양벌형: 일본은 18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형 규정이 존재하나 한국은 4개의 양벌형 규정이 있음.

<표 10>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양적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2개 행위	4개 행위	- 8개
벌금형	6개 행위	-	- 6개
과태료	8개 행위	14개 행위	+ 6개
양벌형*	18개 행위	4개 행위	- 14개

주 : *는 행위자 처벌 이외에 개인□법인에게도 벌금 부과

□ 사용자의 제재제도 측면에서 한국은 사용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은 사용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4개의 징역 또는 벌금의 병과형과 1개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일본은 1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병과형을 부여하고 7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표 11>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개 행위	4개 행위	+ 3개
벌금형	-	-	-
과태료	7개 행위	1개 행위	- 6개
양벌형	1개 행위	4개 행위	+ 3개

- 퇴직연금사업자 측면에서 일본은 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연금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11개의 징역 또는 벌금의 병과형, 6개의 벌금형, 1개의 과태료 제재규정이 있으나, 한국은 연금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표 12>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1개 행위	-	- 11개
벌금형	6개 행위	-	- 6개
과태료	1개 행위	13개 행위	+ 12개
양벌형	18개 행위	-	- 18개

나. 질적 평가

-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손실 부담 행위, 특별이익 제공약속,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취급 현황 미제출 등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 퇴직연금제도의 법률상 제재제도는 법률 위반시 형벌적 제재와 금전적 제재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제재방식에 공통점이 있음.
- 또한, 법원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병과형을 두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 2단계의 과태료 제재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연금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방식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만이 가능한 점에 차이가 있음.

<표 13>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 질적 비교

가입자의 보호규정	일본			한국		
	징역	벌금	과태료	징역	벌금	과태료
사업자의 손실부담 행위	●	●	-	-	-	●
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약속	●	●	-	-	-	●
사업자의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	●	-	-	-	●
사업자의 취급현황 미제출	●	●	-	-	-	●

- 일본은 법률 의무자인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이 있는 것이 큰 차이임.
- 특히, 일본은 사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 병과형의 벌칙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자에 대한 병과형 벌칙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일본은 선택적 병과형, 벌금형, 과태료 등 3가지 방식의 벌칙규정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병과형 및 과태료의 2가지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벌칙의 다양성이 부족함.
- 징역형의 경우 일본은 최고 3년형에서 최저 6월형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법률위반의 경중에 따라 3단계(3년, 1년, 6월)로 처벌을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3년형에서 최저 1년형으로 2단계로 구분함.
- 벌금형의 경우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금액기준으로 법률위반의 경중에 따라 각각 3단계로 처벌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 최고금액이 일본(300만엔) 보다 적은 상대적으로 적어(2천만원으로) 의무위반으로 인한 벌금보다 편익이 높을 수 있어 법률 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미흡할 수 있음.
- 일본은 독립된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된 벌금형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과 법률 의무자가 있으나 의무위반이나 의무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일본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운영에 필요한 고의적인 정보누락 및 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음.
- 또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권리를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이외에 과태료 등의 금전적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음.

5. 개선 과제

향후 수탁자 책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기준에서 탈피하여 차등화 및 다양화된 형태로 제재제도의 개선 및 전환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타 법률 또는 타 국가의 제재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탈법 또는 위법행위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을 실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입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그 이유는 계약형 지배구조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의 도덕적 의무 및 책임여부가 수급권 보장여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의 제재제도 수준이 일본 등 주요 국가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과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제재제도의 차등화 필요

-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제재규정만이 존재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탁자(사용자,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어야 할 사회보장 성격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고의 또는 거짓 작성, 허위보고, 중요사항의 고의누락, 특별이익 제공약속 등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의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는 것이 요구됨.
- 과태료 중심의 확실적인 제재제도에서 탈피해 다양한 제재수단의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법률의 과태료 중심의 제재조치에서 탈피하여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국가의 법규범 집행이 실효성을 거두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비용 편익측면에서 수탁자가 과태료 등의 금전적 처분보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편익이 클 경우 제재의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경제적 규모를 감안하여 금전적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행시 법적으로 강제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기간 경과시 가산금 부과하는 등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타 금융관련 법률과의 형평성과 균형 있는 제재조치의 개선 필요
 - 보험업법 등은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의 등록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범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별이익 제공 등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규정을 두어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동일한 불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법률과의 종합적 비교 검토를 통한 균형 있는 제재제도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선진형 제재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주요국 사례의 종합적 검토 필요
 - 퇴직연금제도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고 양적인 비교를 통해 제재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법질서 환경 및 법규체제에 가장 적합한 방향

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의 제재제도 사례비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표 14>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조치: 한국 기준

구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한국			일본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 유무	제재 유무
사용자	사용자의 퇴직금 기한내 지급위반	●	●	-	●	-
	사용자의 사업안의 차등 금지위반	●	●	-	●	-
	사용자의 근로자 동의위반	●	●	-	●	-
	사용자의 의견 청취 등 위반	●	●	-	●	-
	사용자의 교육실시위반	-	-	●	●	-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계약체결	-	-	●	●	-
퇴직 연금 사업자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거부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운용지시 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위반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내용 준수위반	-	-	●	●	-

주 :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한국의 벌칙 조항을 기준으로 일본을 비교

<표 15>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조치: 일본 기준

구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일본			한국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 유무	제재 유무
사용자	사용자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	-	●	-	-
	사용자 장부 미보존 및 허위작성	-	-	●	-	-
	사용자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	-	●	-	-
	사용자 개선명령 이행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 통지위반	-	-	●	-	-
	사용자 기록관리기관에 정보 미통지	-	-	●	-	-
퇴직 연금 사업자	연금사업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	-	●	-
	운용관리업의 명의 대여금지	●	●	-	-	-
	연금사업자 추가이익보장금지	●	●	-	-	-
	연금사업자 중요사실 미고지의 부실고지	●	●	-	-	-
	연금사업자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행위	●	●	-	-	-
	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보고징수 및 검사위반	●	●	-	●	-
	연금사업자 변경 신고위반	-	●	-	●	-
	연금사업자 영업소 표식 비치위반	-	●	-	-	-
	연금사업자 의무자 이외의 자가 표식 게시	-	●	-	-	-
	연금사업자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운영개선 명령위반	-	●	-	●	-
기타	가입자의 통지위반	-	-	●	-	-
	IRA가입자 기록관리기관에 미신고	-	-	●	-	-
	사용자□기관□가입자 기한내 미신고	-	-	●	-	-

주 :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일본의 벌칙 조항을 기준으로 한국을 비교

〈참 고 문 헌〉

-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 김성수,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와 권리구제 행정법연구 제20호 행정법학회, 2008
- 방하남, 김재현, 류건식, 『퇴직연금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방안』, 노동부, 2007.
- 류건식□신문식, 「퇴직연금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과 운용」, 『월간손해보험』 2005년 5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5. 7
- 류건식□이봉주, 『퇴직연금론』, 박영사, 2006.
-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04, 7.
-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보험연구원, 2009, 6.
-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동원, 2004.
- 高崎康雄, 「歐美生保における企業年金法上の受託者責任」, 『保險學雜誌』 第575号、日本保險學會, 2001.12.
- 土浪 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險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 9.
- _____, 『企業年金のガバナンスと受託者責任』, 日生基礎研究所, 2004. 11.
- _____, 『企業年金法における受託者責任規制の在り方』, 日生基礎研究所, 2001. 2.
- 中島富三, 確定釀出年金, 國政情報センター 2002. 8.
- 山口 修, 『確定釀出年金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2. 5.
- DCL, 『日本確定釀出年金關聯法令條文集』, きんざい、2007, 6.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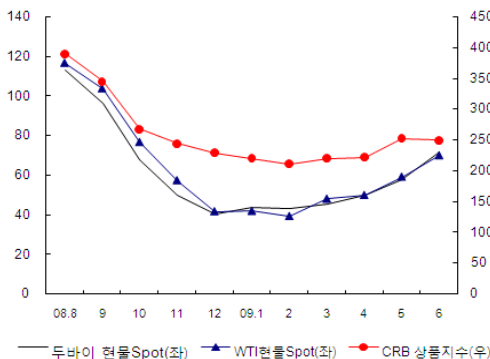
세계경제는 경기진작 정책에 힘입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선행지수, 경기체감지수 등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고용사정 악화, 대외거래의 위축 확대, 내수부진 지속 등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세계물가는 하락 내지 안정세에 있지만, 최근 국제 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세계경제는 경기진작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경기 관련 지표들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무역의 악화가 가속되는 등 여전히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경제는 수출의 부진과 실업률의 증가로 어려운 상황이나, 경기선행지표와 소비자대지표의 개선, 내수 및 생산 관련 지표의 감소세 둔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하반기 경기침체 둔화 내지 회복조짐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 유로경제는 경기안정 정책에 힘입어 경기체감지수 개선, 소비관련 지표의 감소세 둔화 등 부분적인 경기침체의 완화 조짐도 보이고 있으나, 투자부진 가속, 실업률의 지속적 상승과 더불어 소비자 및 산업신뢰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경제는 고용시장 악화, 내수 부진, 수출 감소의 대폭적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의 감소세가 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침체국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중국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영향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에 의한 수출 회복의 불투명성,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부담감 등으로 조기에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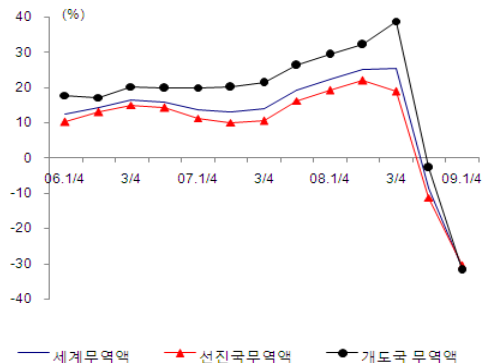
- 세계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 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지난해 말 배럴당 42달러이던 국제 유가(WTI)는 6월말 현재 70달러로 상승하였고, 국제 원자재가격인 CRB지수¹⁾도 지난해 말에 비해 약 9% 상승함.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최근 상승추세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확보에 따른 투자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여 세계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세계경제의 침체로 각국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세계무역 또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연평균 2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던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4/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09년 1/4분기에는 30%이상 감소함.
-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선진국시장을 목표로 수출하는 개도국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1>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자료 : bloomberg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 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가. 미국경제

2009년 1/4분기 미국경제는 투자, 수출의 감소세가 전분기보다 확대되었지만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수출 부진과 실업률 상승은 여전하지만, 내수 및 생산 부문은 1/4분기 이후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경기선행지표도 상승함에 따라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소 높아지는 상황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2009년 1/4분기 미국경제는 민간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의 가속, 수출 감소의 확대,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대비 -5.5%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1.4% 증가함으로써 실질 GDP 하락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함.
 - 경기침체의 장기화, 과잉설비 조정, 금융기관의 대출 엄격화 등 투자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38.8%와 37.3%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시현함.
 -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30.6% 대폭 감소하였으나, 수입 감소가 수출 감소를 상회하는 36.4%에 달함에 따라 순수출은 실질 GDP의 하락폭을 다소 상쇄시키는 역할을 함.
 - 이전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오던 정부지출이 적자재정의 우려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출감소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실질 GDP의 하락에 일조함.
- FOMC²⁾는 하반기에 경제성장이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2009년 전체로는 -2.0~-1.3%의 감소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미국경제는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보일 것이나, 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2010년에는 신용 경색과 은행시스템 정상화의 지연 등으로 2.0~3.0%의 성장에 머무르다 2011년에 가서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3.5~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FOMC,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09.4.28~29(발표 2009.5.25)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2.0	1.1	0.9	2.8	-0.5	-6.3	-5.5
민간소비	2.8	0.2	0.9	1.2	-3.8	-4.3	1.4
설비투자	4.9	1.6	2.4	2.5	-1.7	-21.7	-37.3
주택투자	-17.9	-20.8	-25.1	-13.3	-16.0	-22.8	-38.8
수출	8.4	6.2	5.1	12.3	3.0	-23.6	-30.6
수입	2.2	-3.5	-0.8	-7.3	-3.5	-17.5	-36.4
정부지출	2.1	2.9	1.9	3.9	5.8	1.3	-3.1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9.6.25(확정치)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2008	2008					2009					
	연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업률	5.8	6.1	6.1	6.5	6.8	7.2	7.6	8.1	8.5	8.9	9.4	9.5
비농업취업자증감 ¹⁾	-3,078	-127	-403	-320	-597	-681	-655	-651	-768	-504	-322	-467
소비자물가 ²⁾	3.8	5.4	4.9	3.7	1.1	0.1	0.0	0.2	-0.4	-0.7	-1.3	-
(근원 소비자물가)	2.3	2.5	2.5	2.2	2.0	1.8	1.7	1.8	1.8	1.9	1.8	-
생산자물가 ²⁾	6.4	9.7	8.8	5.2	0.4	-0.9	-0.9	-1.3	-3.5	-3.7	-5.0	-
(근원 생산자물가)	3.4	3.6	4.0	4.4	4.1	4.3	4.2	4.0	3.8	3.4	3.0	-
소매판매	-0.4	-0.7	-1.6	-2.9	-2.4	-3.1	1.8	-0.1	-1.1	-0.4	0.5	-
주택착공호수	-33.3	-10.0	-3.5	-6.4	-14.6	-14.8	-14.5	22.2	-8.5	-12.8	17.2	-
소비자신뢰지수 ³⁾	58.0	58.5	61.4	38.8	44.7	38.6	37.4	25.3	26.9	40.8	54.8	49.3
미시간大체감지수 ⁴⁾	63.8	63.0	70.3	57.6	55.3	60.1	61.2	56.3	57.3	65.1	68.7	69.0
경기선행지수 ⁵⁾	101.0	100.3	100.3	99.4	98.9	98.8	98.6	98.5	98.2	97.9	99.0	100.2
산업생산지수 ⁶⁾	108.8	109.2	104.8	106.2	104.8	102.4	100.2	99.4	97.6	96.9	95.8	-
산업생산가동률	77.6	77.6	74.5	75.4	74.4	72.7	71.2	70.7	69.4	69.0	68.3	-
채고/판매비율	1.31	1.29	1.32	1.36	1.43	1.46	1.46	1.44	1.44	1.43	-	-
ISM제조업지수	45.5	49.9	43.5	38.9	36.6	32.9	35.6	35.8	36.3	40.1	42.8	44.8

주 : 1) 증가분 천명, 2) 전년동기대비, 3) 1985=100, 4) 1966 Q1=100, 5) 2004=100, 6) 2002=100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미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6월 현재 9.5%까지 높아지면서 고용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9월 6.1%에서 2009년 1월에 7.6%, 5월에는 9.4%로 매월 평균 0.4~0.5%p씩 상승해오던 실업률이 6월에는 비농업부문 실업자의 감소세 둔화로 0.1%p 상승에 그침.
- FOMC는 미국의 생산능력이 잠재성장 이하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므로 하반기 실업률의 상승 추세가 둔화되더라도 고용시장의 악화는 계속되어 하반기 실업률은 10.0%를 상회하고, 2009년 전체로는 9.2~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3월부터 하락률을 기록하였고, 5월에는 1950년 4월 이후 최저수준인 -1.3%까지 하락하는 모습임.
- 5월의 기록적인 소비자물가 하락률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27.3% 대폭 하락한 것에 기인하며, 근원 소비자물가는 2008년 12월 이후 큰 변동 없이 1.8% 수준을 유지함.
- FOMC가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를 0.6~0.9%로 삼고 경제를 운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0.4%의 상반기 평균 소비자물가를 감안하면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양 등에 의해 1.0~1.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내수부문>

- 소매판매, 주택착공 등 일부 내수 관련 지표들이 최근 들어 감소세 둔화 내지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어 다소나마 내수부문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소매판매는 1월에 1.8% 반등 이후 소폭 하락하다가, 5월 들어 다시 0.5% 반등하는 등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주택착공호수는 2월에 22.2%의 대폭 증가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에 다시 17.2% 반등하였고, 기존주택시장 거래도 4~5월에 각각 2.4%씩 성장하였으며, 기존주택 매매가격도 하향추세에서 소폭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등 주택경기 경색이 서서히 완화되어가는 모습임.

- 그러나 고용시장 악화, 대출 제한, 과거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된 주택가격은 소비와 주택부문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경기체감지수들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임.
- 6월의 소비자신뢰지수는 49.3을 기록하여 2008년 10월의 38.8을 상회하였고, 미시간대체감지수는 69.0을 기록하여, 2008년 10월의 57.6을 상회하였으며, 6월의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도 100.2를 기록하여 2008년 10월의 99.4를 상회함.

<생산부문>

-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가동률은 2008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부문의 불황이 깊어진 상황이나, 최근 들어 이들의 하락폭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임.
-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5월 현재 95.8 수준으로 아직도 2008년 9월의 104.8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4~5월의 하락폭이 2008년 하반기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산업생산가동률 역시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임.
- 또한, 재고/판매비율도 2월부터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생산수준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ISM 제조업지수³⁾는 산업생산 및 제조업 관련 각종 지표의 하락폭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6월에는 2008년 9월의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하반기 생산부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줌.
- ISM제조업지수는 2008년 12월 32.9를 저점으로 2009년 1월에는 35.6, 3월에는 36.3으로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 현재 44.8을 기록함으로써 2008년 9월의 43.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3)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가 미국 내 20개 업종 400개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로 주문, 생산, 고용, 출하, 재고, 가격, 수출, 수입 등을 대상으로 함.

나. 유로경제

2009년 1/4분기 유로경제는 수출, 투자, 민간소비 등 경제전반이 위축되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모습임.

1/4분기 이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 안정,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의 하락세 둔화 및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개선 등 경기침체 둔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2009년 1/4분기 유로경제는 수출의 현저한 감소, 투자부진 지속, 민간소비 감소 등 경제전반의 위축으로 실질 GDP 증가율이 전기대비 2.5% 하락하여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임.
- 유로지역 내외의 경제침체로 작년 4/4분기 -7.3%였던 수출증가율은 1/4분기 -8.8%로 감소세가 확대되어 실질 GDP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투자와 민간소비도 1/4분기에 각각 -4.1%과 -0.5%로 부진을 면치 못함.
- 유로지역 주요 국가⁴⁾의 GDP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 1/4분기에는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영국의 GDP 감소세가 가속됨.
- 독일은 민간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의 감소폭 확대로 실질 GDP 감소세가 전분기 2.2%에서 3.8%로 확대되어 경기침체의 가속화 양상을 나타냄.
- 영국도 수출, 투자, 민간소비 등 경제전반의 위축이 확대되면서 실질 GDP 감소세가 1.8%에서 2.4%로 확대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짐.
- 프랑스는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 확대를 민간소비가 부분적으로 상쇄시켜 실질 GDP가 1.4% 감소에서 1.2% 감소로 축소되어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IMF⁵⁾는 유로경제가 하반기 후반부터 완만하게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4.8%, 2010년에도 -0.3%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4) 국가별 유로경제의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독일 26.8%, 영국 20.3%, 프랑스 19.7%임.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09.7.8

- 국가별로는 프랑스(2009년 -3.0%, 2010년 0.4%), 영국(2009년 -4.2%, 2010년 0.2%)이 2010년에 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독일(2009년 -6.2%, 2010년 -0.6%), 이탈리아(2009년 -5.1%, 2010년 -0.1%), 스페인(2009년 -4.0%, 2010년 -0.8%)은 201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EA16 실질 GDP	2.7	0.7	0.7	-0.3	-0.4	-1.8	-2.5
민간소비	1.6	0.4	0.1	-0.3	0.0	-0.4	-0.5
고정자본형성	4.8	0.0	1.1	-1.3	-1.1	-4.1	-4.1
정부지출	2.2	1.9	0.4	0.9	0.5	0.4	0.2
수출	5.9	1.0	1.6	-0.3	-0.6	-7.3	-8.8
수입	5.3	1.0	1.1	-1.0	0.9	-5.2	-7.6
독일 실질 GDP	2.5	1.3	1.5	-0.5	-0.5	-2.2	-3.8
민간소비	-0.4	-0.1	-0.1	-0.5	0.2	-0.3	0.5
고정자본형성	4.3	4.4	3.4	-1.4	0.2	-2.7	-7.9
영국 실질 GDP	3.0	0.7	0.3	-0.1	-0.7	-1.8	-2.4
민간소비	3.0	1.4	0.7	-0.2	-0.3	-1.1	-1.3
고정자본형성	6.8	-3.1	-3.4	-2.3	-2.8	-1.2	-7.5
프랑스 실질 GDP	2.3	0.3	0.4	-0.4	-0.2	-1.4	-1.2
민간소비	2.4	0.9	-0.2	0.1	0.1	0.1	0.2
고정자본형성	4.9	0.4	0.9	-1.5	-1.1	-2.5	-2.4

주 : Euro Area는 2009.1부터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15개 회원국에서 16개 회원국으로 변경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09.7.8

<고용과 물가>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매월 0.2~0.3%p씩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속에 5월에 이미 9.5%에 도달하였고, 하반기에도 추세변동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 고용시장의 악화는 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09년부터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일로의 국면에 직면한 상황이며, 다만 독일의 실업률 증가추세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사항임.

- OECD⁶⁾는 유로지역의 2009년 실업률을 10.0%(상반기 9.2%, 하반기 10.8%)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에 12%를 기록한 후 2011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8	2008					2009					
	연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EA16												
ESI ¹⁾	91.2	89.9	88.9	81.6	76.8	68.9	67.2	65.3	64.6	67.3	70.2	73.3
실업률 ²⁾	7.6	7.6	7.7	7.8	8.0	8.2	8.6	8.8	9.0	9.3	9.5	-
소비자물가 ³⁾	3.3	3.8	3.6	3.2	2.1	1.6	1.1	1.2	0.6	0.6	0.0	-0.1
소매판매지수 ⁴⁾	102.7	102.6	102.7	101.9	101.9	101.7	101.3	100.7	100.6	100.7	100.3	-
소비자신뢰지수 ⁵⁾	-18.0	-19.2	-19.4	-23.5	-25.1	-29.7	-30.5	-32.9	-34.2	-30.5	-28.1	-25.1
제조업기대지수 ⁵⁾	-1.9	-3.0	-4.0	-13.2	-21.9	-30.3	-31.0	-31.7	-31.6	-25.2	-20.5	-16.1
산업생산지수 ⁶⁾	106.2	106.6	104.3	101.9	99.0	96.0	93.3	90.9	89.6	87.9	-	-
산업신뢰지수 ⁵⁾	-9.4	-9.0	-12.0	-18.2	-24.8	-33.0	-33.4	-36.1	-37.8	-35.0	-33.2	-31.9
독일												
ESI ¹⁾	96.0	94.8	93.6	88.9	82.5	77.3	74.3	72.9	72.2	73.3	74.4	77.6
실업률 ²⁾	7.3	7.1	7.1	7.1	7.1	7.2	7.3	7.4	7.5	7.7	7.7	-
소비자물가 ³⁾	2.6	3.1	2.9	2.4	1.4	1.1	0.9	1.0	0.4	0.8	-	-
소매판매지수 ⁴⁾	96.4	96.4	96.8	96.1	95.8	96.5	95.4	95.2	95.4	95.9	96.3	-
산업생산지수 ⁵⁾	111.5	114.1	111.6	109.3	104.9	100.8	94.5	91.3	91.6	89.9	-	-
영국												
ESI ¹⁾	84.7	84.3	80.4	75.4	67.8	67.5	60.1	56.6	56.2	61.3	66.1	68.8
실업률 ²⁾	5.6	5.8	6.0	6.1	6.3	6.5	6.8	7.1	7.2	-	-	-
소비자물가 ³⁾	3.6	4.7	5.2	4.5	4.1	3.1	3.0	3.2	2.9	2.3	-	-
소매판매지수 ⁴⁾	109.9	110.2	110.0	109.9	110.1	110.4	111.7	109.3	110.6	110.6	109.8	-
산업생산지수 ⁵⁾	93.8	97.7	97.3	95.5	93.0	91.4	88.8	88.2	88.0	88.2	-	-
프랑스												
ESI ¹⁾	95.4	94.3	93.5	85.4	84.0	75.2	74.8	74.1	73.4	74.6	77.5	80.7
실업률 ²⁾	7.8	7.8	7.9	8.0	8.2	8.3	8.6	8.8	9.0	9.1	9.3	-
소비자물가 ³⁾	3.2	3.5	3.4	3.0	1.9	1.2	0.8	1.0	0.4	0.1	-0.3	-
소매판매지수 ⁴⁾	107.9	108.0	108.6	106.9	107.6	106.2	106.6	104.1	104.4	105.9	-	-
산업생산지수 ⁵⁾	99.9	101.5	99.8	96.1	93.4	92.0	88.1	87.3	85.8	84.6	-	-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 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2009.7.6,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09.7.3

6)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9.6.19

- 금융위기 이후 상승률 둔화를 지속해오던 소비자물가는 금년 6월 경기침체와 더불어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0.1% 하락하여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함.
- 2009년 상반기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하락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하락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소비자물가의 하락세 반전과 독일의 하락세 둔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 OECD는 2009년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를 0.5%(상반기 0.7%, 하반기 0.3%), 2010년에는 0.7%를 전망하였으나, 이미 2009년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0.5%를 기록함으로써 2009년 소비자물가는 0.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내수부문>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1/4분기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소비자신뢰지수도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 소비부진의 개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등의 소매판매는 2월을 저점으로 3~5월에 연속 상승하여 2008년 10월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하반기 소매판매에 대한 호조세가 기대됨.
-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와 제조업기대지수는 3월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임.

<생산부문>

- 산업생산도 1/4분기 이후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산업신뢰지수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임.
- 산업생산지수는 2008년 4월에 111.4를 기록한 후 2009년 4월에 87.9까지 하락함으로써 유로지역의 생산 수준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감소폭 둔화 내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로지역의 산업신뢰지수는 3월을 저점으로 4~6월에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하반기 산업생산의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음.

다. 일본경제

2009년 1/4분기 일본경제는 수출, 투자, 민간소비 등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실질 GDP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양상임.

1/4분기 이후에는 소비부문에서 다소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설비투자과 수출도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어서 생산부문의 개선은 불투명한 상황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일본경제는 2009년 1/4분기 중 수출의 대폭적 감소, 투자 및 민간소비의 부진 지속 등으로 실질 GDP의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0.2%p 낮아진 -3.8%로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1/4분기 수출은 주요 경제권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6.0% 대폭 감소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반면에 수입 감소는 15.0%에 그침.
-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설비투자가 8.9% 감소하여 4분기 연속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택투자는 5.5% 감소세로 전환되어 실질 GDP의 감소에 일조함.
- 민간소비도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난 분기 -0.8%에서 -1.1%로 확대되었으나, 정부지출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지원이 증가하면서 지난분기 수준을 유지함.
- OECD⁷⁾는 일본정부의 하반기 추가 재정정책 실시로 인해 생산부문이 호조세를 보이고, 수출은 2009년 말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며, 투자와 소비는 2010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OECD는 일본경제가 3/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09년에는 GDP 증가율이 -6.8%를 기록하고, 2010년에는 0.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7)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9.6.19

<표 5>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 GDP	2.3	-0.7	0.4	-0.6	-0.7	-3.6	-3.8
민간소비	0.7	0.6	1.4	-1.0	0.1	-0.8	-1.1
설비투자	5.7	-4.0	1.3	-2.9	-4.2	-6.4	-8.9
주택투자	-9.7	-7.6	5.0	-2.0	3.1	5.3	-5.5
정부최종소비지출	1.9	0.8	-0.4	-0.9	-0.1	1.6	0.0
수출	8.4	1.8	2.4	-0.8	1.0	-14.7	-26.0
수입	1.5	0.9	2.4	-4.2	1.5	3.1	-15.0

자료 : 내각부, 2009.6.11 (1/4분기 2차 속보치)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2008	2008					2009				
	연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매자물가 ¹⁾	1.4	2.1	2.1	1.7	1.0	0.4	0.0	-0.1	-0.3	-0.1	-1.1
실업률	4.0	4.1	4.0	3.8	4.0	4.3	4.1	4.4	4.8	5.0	5.2
소매판매액 ¹⁾	0.3	0.7	-0.3	-0.7	-0.9	-2.7	-2.4	-5.7	-3.8	-2.8	-2.8
소비자태도지수	32.7	32.1	33.6	30.1	29.2	27.6	28.4	28.7	31.9	35.0	38.1
주택착공호수 ²⁾	109	110	111	104	99	100	96	87	89	78	-
민간기계수주액	-6.0	-13.0	-4.2	-15.5	-27.7	-26.8	-39.5	-30.1	-22.2	-32.8	-
수출 ¹⁾	-3.5	0.2	1.5	-7.9	-26.8	-35.0	-45.7	-49.4	-45.5	-39.1	-40.9
수입 ¹⁾	8.0	17.1	28.8	7.4	-14.4	-21.5	-31.9	-43.0	-36.6	-35.8	-42.4
광공업생산지수	103.8	103.5	103.6	100.1	93.1	85.3	76.7	69.5	70.6	74.8	79.2
광공업가동율	99.3	99.2	99.3	95.3	87.6	78.5	68.7	60.5	61.0	67.2	-

주 : 1) 전년동기대비, 2) 만호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일본의 실업률도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부문의 위축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2009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월 현재 5.2%를 기록함.

- 일본의 노동시장은 최근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고용안정성 저하, 고용 흡수력이 높은 건설업□자영업의 부진 등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기회복 이후에도 실업률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OECD는 일본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하반기에는 5.6%, 2010년에는 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위축으로 2009년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5월에는 공공요금의 인하가 겹치면서 전년동기대비 -1.1%로 하락세가 가속됨.
- 수요위축에 따른 마이너스 GDP갭⁸⁾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률 둔화 내지 감소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며, 수요부진의 지속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증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5월의 소비자물가 하락은 에너지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크게 인하된 것에 기인함.
- OECD는 수요부진과 에너지가격 하락이 중첩되어 하반기에도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09년 하반기 -2.2%, 2009년 -1.4%, 2010년 -1.4%를 전망함.

〈내수부문〉

- 소비부분은 소매판매의 감소세 둔화, 소비기대의 개선 등으로 다소 경기침체의 둔화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나, 투자부분의 주택□설비 투자관련 지표들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내수부문의 개선은 불투명한 상황임.
- 소매판매액은 1/4분기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하락폭이 커진 후 4~5월에는 연속으로 -2.8%를 기록하면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소비자태도지수는 4~5월에 상승폭이 커지면서 체감경기에 대한 호전을 기대하는 모습임.

8) GDP갭은 '실질GDP-잠재GDP'로 정의되며, 2008년 4/4분기의 GDP갭은 -4.4%, 2009년 1/4분기의 GDP갭은 -8.2%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주택착공호수는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액도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아 투자부문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생산부문〉

-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이 3월부터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생산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출입의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부문의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은 2009년 2월에 각각 69.5, 60.5를 저점으로 하고, 이후 계속 상승하여 생산은 5월에 79.2, 가동률은 4월에 67.2까지 상승함.
- 그러나 수출은 4월에 하락세가 둔화되어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하반기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5월 들어 다시 소폭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 수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라. 중국경제

2009년 1/4분기 중국경제는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실질 GDP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투자 및 소비가 견조하게 지탱됨으로써 큰 폭의 둔화는 억제된 모습임.

최근 내수부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순수 민간투자의 위축, 저조한 수출,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2009년 1/4분기 중국의 실질 GDP는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 등의 작용으로 6.1% 증가세를 시현함.
 -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19.7% 감소하였으나, 이를 크게 상회하는 30.8%의 대폭적인 수입 감소로 실질 GDP 증가의 둔화폭이 상당부분 상쇄됨.
 -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여 실질 GDP의 하락을 억제하였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은 투자는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억제시킨 버팀목이 됨.
- 그러나 최근 내수부문의 회복은 경기부양에 크게 의존한 것이어서 추가 경기부양 여부가 중국경제의 두 자릿수 성장 달성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경기확대 정책에 힘입어 내수부문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 시장상황에 근거한 순수 민간투자의 부진, 경기부양의 지속성 약화 등은 중국경제의 고성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World Bank⁹⁾는 중국의 2009년 실질 GDP 성장률을 7.2%로 예상하는 가운데, 2010년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World Bank는 2009년 성장전망치 7.2%에서 중국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은 투자가 6.0%p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실질 민간투자의 위축과 향후 대폭적인 추가 확대정책의 어려움 때문에 2010년의 중국경제 회복세는 선진국을 상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함.

9)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09.6.26

○ IMF¹⁰⁾는 중국이 2009년에 7.5%, 2010년에 8.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표 7>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f
실질 GDP(공급측면)	10.4	11.6	13.0	9.0	7.2
실질 GDP(지출측면) ¹⁾	10.4	11.7	12.5	8.5	-
민간소비	7.3	8.4	10.1	8.2	8.4
총자본형성	9.0	10.7	10.3	9.5	12.6
고정자본형성	11.0	13.0	11.4	8.8	12.0
수출	24.3	23.3	19.9	8.4	-10.1
수입	11.4	14.3	13.9	3.9	-4.7
소비자물가지수	1.8	1.5	4.8	5.9	0.5

주 : 1) 중국통계연감 2008 <표 2-20>에 근거하여 World Bank가 작성
 자료 :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June 2009

<표 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2008			2009	2009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질 GDP	9.0	10.1	9.0	6.8	6.1	-	-	-	-	-
고정자산투자 ¹⁾	26.1	26.8	27.6	26.1	28.6	-	26.5	28.6	30.5	32.9
소매판매	21.6	22.2	23.2	20.6	14.9	18.5	11.6	14.7	14.8	15.2
수출	17.2	22.4	23.0	4.3	-19.7	-17.5	-25.7	-17.1	-22.6	-26.4
수입	18.5	32.6	25.7	-8.8	-30.8	-43.1	-24.1	-25.1	-23.0	-25.2
산업생산	12.9	15.9	13.0	6.4	5.1	-	11.0	8.3	7.3	8.9
구매자관리지수	50.2	54.8	49.3	42.5	48.9	45.3	49.0	52.4	53.5	53.1
소비자물가	5.9	7.8	5.3	2.5	-0.6	1.0	-1.6	-1.2	-1.5	-1.4
생산자물가	6.9	8.4	9.7	2.5	-4.6	-3.3	-4.5	-6.0	-6.6	-7.2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09.7.8

<물가>

-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도대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2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4~5월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급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원자재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중국 및 해외 유희 생산시설의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를 상회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OECD는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2009년에 -1.0%, 2010년에 -0.9%로 전망하는 한편, 재정□금융정책의 확대에 의한 단기간 내 소비자물가 급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와 고정투자자산 증가율은 2009년 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5.2%와 32.9%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의 내수부문이 회복되는 모습임.
- 소매판매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였고¹¹⁾, 고정자산투자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투자확대에 힘입어 광업, 철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다만 수출은 선진국의 수요부진에 따라 4월에 -22.6%, 5월에 -26.4%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생산 유희설비 수준을 증가시키고 있고, 또한 고용시장을 악화시킴으로써 내수부문의 회복에 걸림돌이로 작용하고 있음.

<생산부문>

-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의 6.4%에서 2009년 5월에 8.9%까지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생산부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모습임.
-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¹²⁾)는 중국 정부의 성공적인 경기진작책 속에서 3월부

11) 중국정부의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이 5월부터 주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됨.

1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터 3개월 연속하여 기준치인 50을 상회함으로써 제조업부문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월의 PMI는 생산 및 신규주문 지수가 각각 56.2와 56.9를 기록하여 기준치를 상회하였고, 수출주문지수도 50.1을 기록해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어섬.
- 그러나 이러한 산업생산의 증가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크게 의존한 결과로 향후 생산증가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 4월의 산업생산이 에너지부문과 수출의 부진에 영향을 받아 7.3%로 다소 하락하자 5월에는 정부의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인하 정책, 신용확대 정책을 실시하여 다시 8.9%로 상승함.
- 최근의 생산활동은 민간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써, 하반기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불투명할 경우 생산부문의 지속적 회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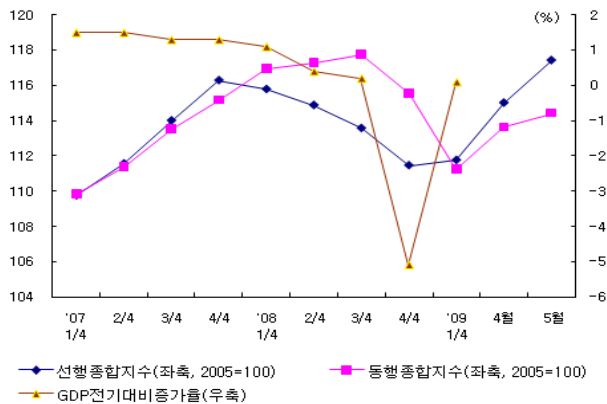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2009년 1/4분기 중 실질 GDP는 수출 감소 가속과 내수 부진 심화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대비는 증가세를 시현함. 4~5월 중에는 경기선행 및 동행지수와 소비관련 지표,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부분적으로 경기 침체의 완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1/4분기 중 실질 GDP 증가율은 수출 감소세 가속, 설비투자 부진 심화, 소비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2%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대비는 0.1%의 증가세를 시현하여 경기침체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경기침체,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여건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4.4%가 감소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대비는 의료 및 보건, 통신에 대한 소비지출의 증가에 따라 0.4%의 증가세를 시현함.

<그림 3> GDP와 경기지수 추이



주 : 경기지수 분기증가율은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임(200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정부의 SOC 투자관련 경기부양책 실시로 토목건설이 전년동기대비 24.9% 대폭 증가함에 따라 건설투자는 1.6% 증가하여 상승세로 전환됨.
- 설비투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유인 부족으로 기계류와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3.5%가 감소하였고, 계절조정 전기대비도 11.2%의 감소세를 기록하여 실질 GDP 감소를 주도함.
-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재화수출 감소가 14.1%로 가속되었으나, 내수부진에 따른 재화수입 감소가 17.4%로 더욱 심화되어 순수출이 실질 GDP의 감소 완화 요인으로 작용함.

<표 9>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¹³⁾

(전년동기대비, %)

	CY2007	CY2008					C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5.1	5.5 (1.1)	4.3 (0.4)	3.1 (0.2)	-3.4 (-5.1)	2.2	-4.2 (0.1)
- 민간소비	5.1	4.0	2.3	1.4	-3.7	0.9	-4.4
- 건설투자	1.4	-1.9	-0.3	0.2	-5.6	-2.1	1.6
- 설비투자	9.3	1.5	1.1	4.3	-14.0	-2.0	-23.5
- 재화수출 ²⁾	11.9	11.1	10.9	8.5	-11.6	4.1	-14.1
- 재화수입 ²⁾	10.9	11.8	10.0	10.6	-11.6	4.6	-17.4
국내수요 ³⁾	4.9	2.8 (0.3)	2.0 (0.2)	2.0 (0.2)	-3.8 (-4.3)	0.6	-3.8 (0.7)

주 : 1)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국내수요=민간소비+정부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무형고정투자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향후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2009년 1/4분기 이후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국내경기의 침체 둔화와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 1/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로 감소세를 이어 오던 경기선행지수가 4월에는 0.1%의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5월에는 2.6%로 증가세가 가속됨.

13)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표 10>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7	CY2008					C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P	5월 ^P
소비재판매	5.1	4.4	2.9	1.4	-4.2	1.0	-4.9	-3.9	1.7
- 내구재	9.6	9.5	8.7	0.0	-9.9	1.9	-13.6	-12.0	4.8
승용차	6.2	9.6	7.1	-4.9	-19.5	-2.0	-21.3	-17.6	20.6
- 준내구재	3.9	3.8	-2.1	0.6	-9.9	-2.4	-0.9	0.7	0.4
- 비내구재	5.2	1.9	0.3	1.2	-0.4	0.7	-1.4	-1.0	0.4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09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4.9%의 감소세를 시현한 소비재판매액지수는 4월에는 감소세가 둔화되고, 5월에는 내구재 소비의 호조 등으로 1.7%의 증가세로 전환되어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4분기 동안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승용차와 가구 및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13.6% 감소하여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4월 중 감소세 둔화에 이어 5월에 들어서는 승용차 판매의 대폭적인 증가에 힘입어 4.8%의 증가세를 시현함.

- 특히, 내구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판매의 증가율은 1/4분기 중 -21.3%로 극심한 부진을 보였으나, 4월에는 -17.6%로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5월에는 20.6%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기록함.

○ 의복 및 신발 등 준내구재 판매는 1/4분기 중 -0.9%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0.7%, 0.4%의 증가세로 전환됨.

○ 차량연료 등의 비내구재 판매도 1/4분기에는 1.4% 감소하였으나, 4월에는 -1.0%로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5월에는 0.4%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11>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7	CY2008					C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P	5월 ^P
설비투자	9.3	1.5	1.1	4.3	-14.0	-2.0	-23.5	--	--
- 기계류	8.3	-2.2	-1.6	5.6	-17.2	-4.0	-27.6	-29.4	-18.7
- 운수장비	13.2	5.2	4.4	6.2	-11.3	0.6	2.9	-4.4	15.9
- 기계수주	21.1	25.2	8.4	-7.6	-39.5	-5.5	-36.0	-25.8	-16.1
건설투자	1.4	-1.9	-0.3	0.2	-5.6	-2.1	1.6	--	--
- 국내건설수주	23.6	-3.7	-6.1	-22.7	-6.5	-9.0	-16.5	-8.0	-18.5
건축	18.5	5.3	-6.3	-37.2	-25.5	-17.4	-41.6	-71.0	-38.0
토목	40.3	-23.3	-5.2	16.2	50.7	13.9	58.3	331.4	26.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국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설비투자 관련 지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작년 4/4분기부터 감소세가 가속되면서 금년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9.4%까지 하락하였고, 5월 중에는 -18.7%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는 1/4분기에 2.9%가 증가하였으나, 4월에는 4.4%의 감소세로, 5월에는 다시 15.9%의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의 발주량 급감으로 1/4분기에는 36.0%, 4월에는 25.8%가 각각 감소하였고, 5월에도 16.1%의 높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건설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토목건설이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로 급등하고 있는 반면, 건축건설은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으로 대폭적인 감소세를 지속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토목건설은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로 1/4분기 중 58.3%가 증가하였고, 4월에는 331.4%까지 급증하였으며, 5월에도 26.0%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됨.

- 반면, 건축건설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1/4분기 중 41.6%가 감소하였고, 4월에는 71.0%까지 급감하였으며, 5월에도 38.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건설수주는 1/4분기에 -16.5%로 감소세가 확대된 이후 4월에는 -8.0%로 둔화되었지만, 5월에는 다시 -18.5%로 감소세가 확대되어 향후 건설경기는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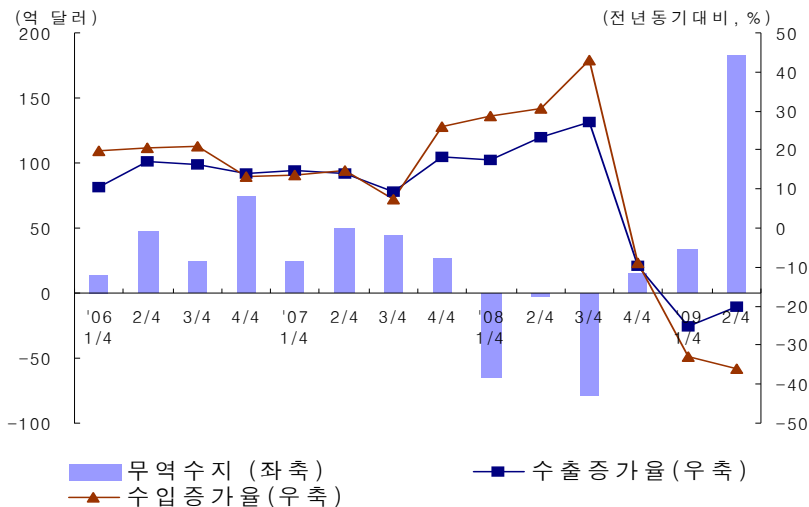
〈대외거래〉

- 국내외 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1/4분기부터 수출은 20%이상, 수입은 30% 이상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의 감소세가 수출의 감소세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통관기준)의 흑자가 확대되고 있음¹⁴⁾.
- 세계경제의 침체로 작년 4/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로 2009년 1/4분기 25.0%, 2/4분기 20.5%가 감소하여 상반기 평균 22.3%의 감소세를 시현함.
 - 상반기를 기준할 때 품목별로는 선박(33.6%), 액정디바이스(5.5%)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48.3%), 자동차(-43.9%), 컴퓨터(-42.0%), 일반기계(-36.6%), 반도체(-32.4%) 등 주력 수출품 대부분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지역별로는 대양주(61.1%)를 제외한 미국(-24.0%), 일본(-29.8%), ASEAN(-27.1%), EU(-16.9%), 중동(-18.6%), 중국(-17.2%), 아프리카(-14.9%), 중남미(-8.7%)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였고, 개도국 보다는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
- 수입 또한 국내경제의 급속한 냉각으로 인해 1/4분기 32.9%, 2/4분기 36.2%로 감소세가 가속되는 추세이며, 상반기 평균으로는 34.6%가 감소함.
 - 이러한 수입 감소에는 원유(-53.9%), 비철금속제품(-51.2%), 철강제품(-43.5%) 등 원자재(-40.0%)의 감소가 크게 작용하였고, 자본재(-27.2%), 소비재(-26.8%)도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원유의 수입 감소에는 단가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별로는 중동(-48.0%), 중국(-35.7%), 미국(-35.5%), EU(-31.0%), 일본(-30.6%), ASEAN(-27.1%), 중남미(-20.1%) 등의 순으로 전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14) 2/4분기 중 대외거래는 전체 수출입 및 무역수지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잠정치이며, 품목별 및 국가별은 6월 20일까지 실적만을 반영한 것임.

- 이렇게 수입 감소세가 수출 감소세를 계속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1/4분기에 33.9억 달러에서 2/4분기에는 182.5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6월중에는 74.3억 달러의 흑자로 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함.

<그림 4>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산업생산도 2009년 1/4분기 중에는 감소하였으나, 4·5월로 접어들면서 광공업생산의 감소세 둔화,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 전환 등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4분기 중 15.5%의 감소세를 보인 광공업생산은 ICT생산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면서 4월에 -8.2%, 5월에 -9.0%로 감소세가 둔화됨.
- 1/4분기에 0.4%의 미미한 감소에 그친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업, 도소매업의 감소세 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의 생산 호조로 4월에 1.8%, 5월에 0.2%의 증가세로 전환됨.

<표 12>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7	CY2008					C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P	5월 ^P
광공업	6.9	10.9	8.9	5.6	-11.3	3.0	-15.5	-8.2	-9.0
- 제조업	7.1	11.1	9.3	5.6	-12.1	3.0	-16.4	-8.9	-9.5
- 중화학	8.3	13.2	11.6	6.8	-12.8	4.1	-17.0	-8.9	-9.1
- 경공업	2.0	1.7	-1.2	0.0	-8.8	-2.2	-13.5	-9.0	-11.6
- ICT	13.6	33.4	30.4	10.2	-24.2	9.4	-19.6	-6.5	-3.3
서비스업	6.8	6.7	4.8	3.2	-0.4	3.4	-0.4	1.8	0.2
- 도매 및 소매업	5.8	4.0	3.1	3.6	-4.6	1.4	-4.0	-4.1	-3.7
- 운수업	6.6	8.1	8.2	4.3	-3.2	4.3	-10.8	-11.2	-8.7
- 숙박 및 음식점업	2.2	3.6	0.6	1.7	-3.0	0.7	-2.4	0.2	-1.7
- 부동산 및 임대업	3.1	5.7	2.7	-8.4	-7.5	-2.1	-3.1	-2.3	-1.6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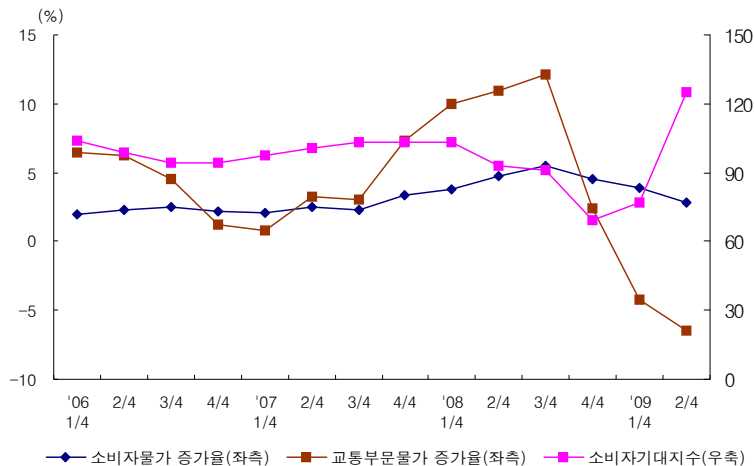
<물가 및 고용>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교통 및 통신 물가의 하락세 지속으로 2009년 2/4분기에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고용사정은 실물경제의 침체로 2009년 1/4분기에는 크게 악화되었으나, 4~5월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임.

-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교통 및 통신 관련 물가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2009년 2/4분기에도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0.4%),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5.6%), 의복 및 신발(4.9%) 등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6.5%), 통신(-0.1%) 부문의 하락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2.8% 증가에 그쳐 전분기대비 1.1%p 하락함.

- 경기침체의 여파로 크게 하락하던 소비자대지수가 2009년 1/4분기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의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하는 추세임.
- 2008년 4/4분기에 평균 69.1까지 하락한 소비자대지수는 2009년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강구와 더불어 주가, 환율 등 금융관련 지표들이 다소 개선되면서 2009년 1/4분기에 77.0, 2/4분기에는 125.2까지 상승함.

<그림 5>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¹⁵⁾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고용동향」

- 최근의 고용사정은 실물경기 침체로 기업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1/4분기 중 총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6%가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0.8%p 하락하였고, 4월과 5월에도 각각 0.8%와 0.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추세임.

15)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다음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CSI를 소비자대지수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표 13>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7	CY2008					C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1.2	0.9	0.7	0.6	0.2	0.6	-0.6	-0.8	-0.9
- 청년취업자	-1.6	-2.5	-2.1	-2.7	-4.0	-2.8	-5.1	-2.8	-2.7
고용률	59.8	58.5	60.4	59.9	59.4	59.5	57.4	58.8	59.3
실업률	3.2	3.4	3.1	3.1	3.1	3.2	3.8	3.8	3.8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3.3	-4.4	-2.9	-2.0	0.5	-2.1	1.0	0.0	-2.6
광공업	-1.0	-0.3	-0.7	-1.1	-2.5	-1.1	-4.1	-3.9	-3.5
- 제조업	-1.0	-0.4	-0.8	-1.3	-2.6	-1.3	-4.1	-3.9	-3.5
SOC 및 기타서비스업	2.2	1.6	1.4	1.3	0.8	1.3	0.0	-0.2	-0.2
- 건설업	0.9	-1.2	-2.4	-2.2	-2.2	-2.0	-2.5	-6.7	-6.6
- 도소매음식숙박	-0.7	-0.6	-0.7	-0.8	-1.1	-0.8	-2.0	-2.2	-2.8
- 전기,운수,통신,금융	2.5	2.7	1.8	-0.7	-1.9	0.5	-2.6	-2.4	-2.1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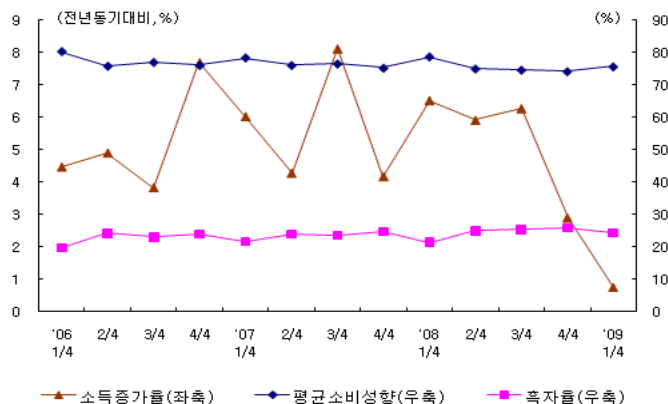
- 이러한 취업여건 악화로 인하여 2008년 4/4분기까지 3.1%를 유지하였던 실업률이 2009년 1/4분기에 3.8%로 급상승한 이후 4~5월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청년실업률은 2009년 1/4분기에 8.6%로 전분기대비 1.6%p 상승한 가운데, 3월에 8.8%를 정점으로 4~5월에는 8.0%, 7.6%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2008년 4/4분기까지 60%대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던 고용률은 2009년 1/4분기 들어 57.4%까지 하락하였으나, 2월 중 57.0%로 하락한 이후 5월까지 59.3%로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임.
-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귀농의 증가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2009년 1/4분기에도 1.0% 증가하였으나, 5월에 들어서서는 2.6% 감소함.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2009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1%를 기록하였으나, 3월 -4.6%를 저점으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
- SOC 및 서비스업에서는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

용 등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는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1/4분기에 취업자수가 정체된 이후 4·5월에는 0.2%의 미미한 감소에 그침.

□ 가게 소득과 지출도 경기침체 및 이에 의한 취업기회 감소 등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임.

- 2009년 1/4분기 중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7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2.1%p 하락하였고,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3.0%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1.5%p 하락함.
-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1/4분기 213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4.6%p 하락하였고, 실질소비지출도 6.8%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어두운 경기전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 소비지출은 가정용품□가사서비스(1.1%), 보건(5.0%), 교육(3.9%) 항목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5%), 의류□신발(-4.1%), 교통(-15.7%), 통신(-3.7%), 오락□문화(-5.8%) 등에서는 감소함.

<그림 6> 도시기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 1/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2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2.2%p 하락한 반면,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인 흑자액은 14.6%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7.6%p 상승함.
- 이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대비 3.0%p(78.6% → 75.6%) 감소함.

3. 금융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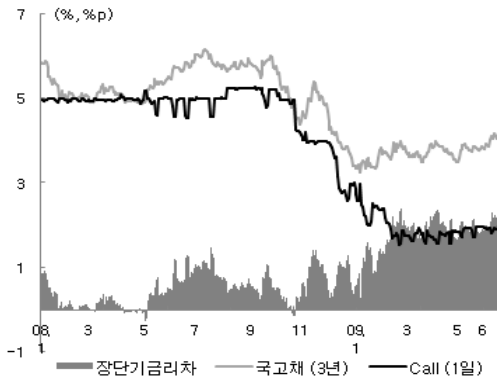
<금리>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이후 2.0%로 유지되면서 콜금리도 1.9%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고, 국고채(3년)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회사채금리는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이후 2.0%로 유지되면서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콜금리도 1.9%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콜금리는 지난 4월초 1.72%에서 6월 30일 기준 1.96%로, CD(90일)금리는 같은 기간 2.43%에서 2.41%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3월 말 3.94%였던 국고채(3년)금리는 2/4분기 동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6월 들어 4%대로 상승함.
- 4월 중 국고채금리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 증가와 증권금융의 국채매입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여 4월 28일 기준 3.5%까지 하락함.
- 그러나 4월말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 온 광공업생산의 연속 증가세(3월 및 4월 산업활동 동향),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5월 중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확인, 미국 4월 소매판매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이러한 하락세는 5월 말 이후 미국 국채금리 급등, 북한 핵실험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등으로 인해 상승하다가 6월 중순 들어 국내외 주식시장 약세 등에 의해 소폭 하락해 6월 30일 기준 국고채금리는 4.16%로 나타남.
- 1/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는 상대적 고금리에 의한 매수세와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개선되면서 2/4분기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6월 초부터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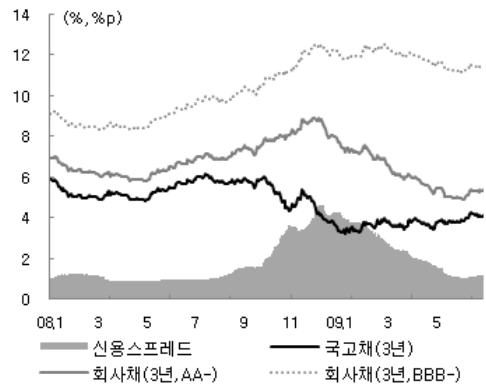
-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비우량등급인 BBB-등급 회사채 발행도 점차 증가했으며, BBB-등급 회사채금리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그러나 AA-등급 회사채금리는 3월 6.14%에서 6월 30일 기준 5.39%로, BBB-등급 회사채금리는 3월 12.12%에서 6월 30일 기준 11.47%로 하락하여 신용등급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감소하지 않는 추세임.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의 완화 등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국고채(3년)금리와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간의 차이는 2009년 1월 말 3.70%p에서 6월초 1.03%p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소폭 상승하였음(6월 30일 기준 1.23%p).

<그림 7>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8> 신용 스프레드 추이



주 :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3년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간의 차이를 말함.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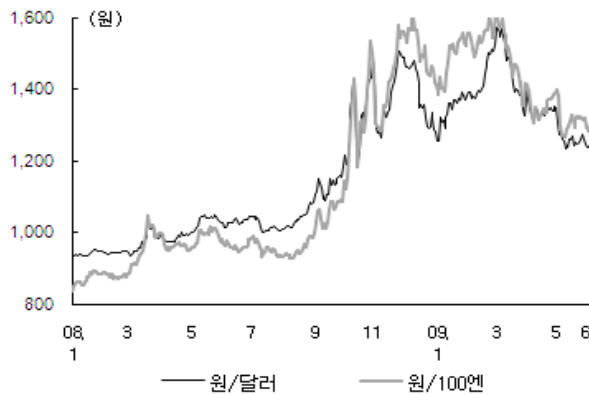
<환율>

원/달러 환율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의해 잠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국내주가 상승, 무역수지 흑자,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힘입어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보유성향을 반영한 엔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5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상승세를 이어 오던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3월 초 1,574원까지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 글로벌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 3월 무역수지 흑자 확대 영향으로 하락하다가 미국 기업실적 우려에 따른 반등을 보임.
 -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으로 다시 하락한 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경기위축 속도에 대한 평가, GM대우 선물환 연장, 4월 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증가 소식 등에 의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하락세를 보임.
 - 5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수출 감소로 인한 정부 개입의 가능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북한 핵실험 등과 같은 상승 압박과 외국인 매수세, 달러화 약세, 주가 상승, 무역수지 흑자 등과 같은 하락 요인에 의해 등락을 계속하다가 소폭 상승하여 6월 3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85원임(3월 초 대비 289원 하락).
- 원/엔 환율은 4월 초 100엔당 1,413원을 시작으로 하여 엔화 강세에 따라 상승하다가 4월 말 엔화 약세와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인해 원/엔 환율도 함께 급락하였고, 5월 중순 이후 엔화 강세의 영향을 받아 재차 상승세로 전환됨.
 - 3월 중 무역수지 흑자 발표로 원/엔 환율은 4월 초 하락세를 보였으나 안전자산 보유 성향이 강화되어 엔화가 강세를 띠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하여 원/엔 환율도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4월 말부터 엔화 약세로 급락한 원/엔 환율은 4월 무역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00엔당 1,268원(5월 12일 기준)까지 하락하는 등 낮은 수준에서 머물다가 5월 중순 이후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됨.
- 한편 약세를 보이던 신흥국 통화(칠레, 브라질 등의 중남미 통화,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아시아 통화 등)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추세임.
-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위험회피 성향 축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작용하여 신흥국 통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 기인함.

<그림 9>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가지수〉

국내외 주가지수는 각국의 재정정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2009년 3월 초반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4분기에는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작년에 이어 2009년 초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3월 초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세계 주요 선진국 주가지수는 2/4분기 동안 대체로 상승세를 보임.
- 지난 3월 초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인 6,547을 기록한 후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미국정부의 GM과 Chrysler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인해 3월 말 7,522로 급락함.
- 그러나 이후 G20 정상회담(4월 2일)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 의해 상승하다,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5월 산업생산 지표, 고용지표 부진 등에 의해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하면서 소폭 하락한 상태임.
-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외환 유동성에 대한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2/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4월 말 잠시 하락했으나(4월 28일 기준 1,300), 4월 초 30억 달러 규모의 외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성공, 국내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및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로 상승세를 보임.
- 5월 중순 미국 경제지표 악화(4월 소매판매 부진) 등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매물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도 증가하면서 잠시 하락했다가 금융위원회의 구조조정기금 투입 계획 발표(5월 18일)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확대에 따라 1,436까지 상승함(5월 20일).
- 한편 5월 말 북한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대시켜 종합주가지수가 1,362까지 하락하였으나(5월 27일), 이후 회복세를 보여 6월 30일 기준 종합주가지수는 1,390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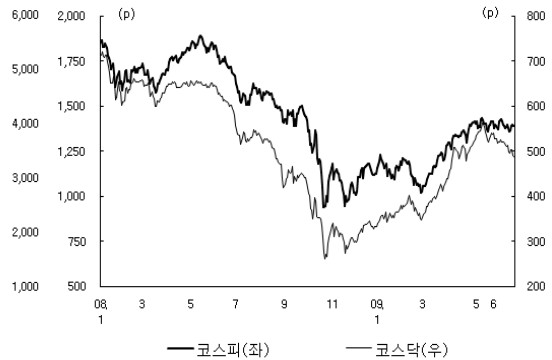
○ 이는 1,019까지 하락했던 3월 초와 비교하여 371p 상승한 것임.

<그림 10>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11>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자금흐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에 대비한 유동성 자금 확보 경향으로 인해, 보험회사와 은행권의 2009년 1/4분기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권사, 투신사, 중금사의 순수신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4분기 중 자금흐름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과 위험에 대비한 유동성 자금 확보 등으로 인해 자금이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보험회사와 은행의 경우 전분기와 비교하여 순수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장기금융상품보다는 MMF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증권사, 투신사, 중금사의 순수신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신계약 감소, 해약률 증가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순수신 규모가 전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장단기 금융상품 간 금리 차이가 감소되어 전기대비 은행의 순수신 규모가 감소되었으며, 신탁계정의 경우 자금유출 규모가 자금유입 규모를 초과하여 4조 6,477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됨.
-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1월과 2월 증권사의 수신은 감소하였으나, 3월 들어 주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증가세로 전환됨.
 - 이는 MMF에 집중되어 있던 단기성 자금들이 증권사로 유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투신권의 순수신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여유자금인 MMF로 유입되면서 1월과 2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투신권의 법인 MMF 수탁고 감축 노력 등으로 인해 MMF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되었으나 1/4분기 전체로는 큰 증가세를 보임.
- 종금사의 경우, 1/4분기 CMA 예탁금은 순자금 유출을 보였으나, 1월의 발행어음 증가에 의해 전체적으로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가함.

<표 14>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7	CY2008				CY2009	
	4/4	1/4	2/4	3/4	4/4(A)	1/4(B)	(B)-(A)
보 험	108,974	85,391	106,256	91,830	87,478	72,569	-14,909
- 생 보	84,269	64,517	79,050	66,710	62,368	52,047	-10,321
- 손 보	24,705	20,874	27,206	25,120	25,110	20,522	-4,588
은 행	204,778	214,006	235,332	148,217	197,137	141,250	-55,887
- 일 반	187,062	142,969	291,219	145,463	218,569	187,727	-30,842
- 신탁	17,716	71,037	-55,887	2,754	-21,432	-46,477	-25,045
증 권	-13,605	6,184	47,423	1,782	2,938	81,168	78,230
투 신	269,007	377,948	239,132	-167,059	185,113	261,799	76,686
총 금	14,457	34,881	43,348	-55,532	4,640	34,826	30,186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8 보험산업은 실물경기 및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손해보험 역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수입(원수) 보험료 규모는 약 111조원을 기록하는데 그침.

-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지난 3년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FY2008 들어서는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전년대비 1.8% 성장한 111조 568억원 규모에 그침.
- 생명보험은 신규 수요 감소와 가계소득 악화에 따른 해약 증가로 수입보험료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한 73조 5,614억원 규모임.
- 손해보험은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보험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성 보험 및 일반보험의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대비 10.3% 성장하여 37조 4,954억원에 이룸.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15,675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9.7	7.7	13.0	5.0	2.0	-8.9	-4.5	-2.0
손해보험	92,201	86,658	339,818	89,550	91,408	99,113	94,883	374,954
	18.3	13.6	14.9	12.9	11.9	7.5	9.5	10.3
합 계	307,876	271,342	1,090,774	272,390	271,393	295,578	271,206	1,110,568
	19.2	9.5	13.6	7.5	5.2	-4.0	-0.1	1.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8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부문에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된 반면, 생명보험 부문에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8.3% 성장한 약 402조원을 기록함.

- FY2008 보험산업 총자산은 400조원(생명보험 약 328조원, 손해보험 약 7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장률은 수입(원수)보험료 성장 둔화와 투자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3% 증가에 그침.
- 생명보험에서는 특별계정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요 급감, 해약 증대, 투자부문 부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총자산(328조 3,321억원) 성장률이 7.5% 수준으로 낮아짐.
- 손해보험의 경우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성 보험과 일반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됨으로써 총자산(73조 9,895억원) 규모가 12.1% 증가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973,394	3,053,998	3,053,998	3,093,354	3,138,783	3,205,462	3,283,321	3,283,321
	2.0	2.7	11.8	1.3	1.5	2.1	2.4	7.5
손해보험	638,392	660,151	660,151	680,358	690,602	714,866	739,895	739,895
	4.1	3.4	15.9	3.1	1.5	3.5	3.5	12.1
합계	3,611,786	3,714,149	3,714,149	3,773,712	3,829,385	3,920,328	4,023,216	4,023,216
	2.4	2.8	12.5	1.6	1.5	2.4	2.6	8.3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8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7조 6,3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고, FY2008 전체로는 73조 5,614억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함.
- 개인보험의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수입보험료에서 비중이 높은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3/4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세를 시현함.
- 이에 따라 개인보험의 FY2008 4/4분기 수입보험료 규모가 3.3% 감소하였고, FY2008 수입보험료도 전년대비 0.2% 감소하여 67조 7,526억원을 나타냄.
- 단체보험의 경우 신규 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38.8% 감소로 전분기에 이어 급격한 감소세를 시현한데다 퇴직연금이 -5.6%로 전분기와는 달리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24.6% 감소함.
- FY2008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 8,087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9.2% 감소함에 따라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28.9%p 하락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215,675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9.7	7.7	13.0	5.0	2.0	-8.9	-4.5	-2.0
총 자 산	2,973,394	3,053,998	3,053,998	3,093,354	3,138,783	3,205,462	3,283,321	3,283,321
	2.0	2.7	11.8	1.3	1.5	2.1	2.4	7.5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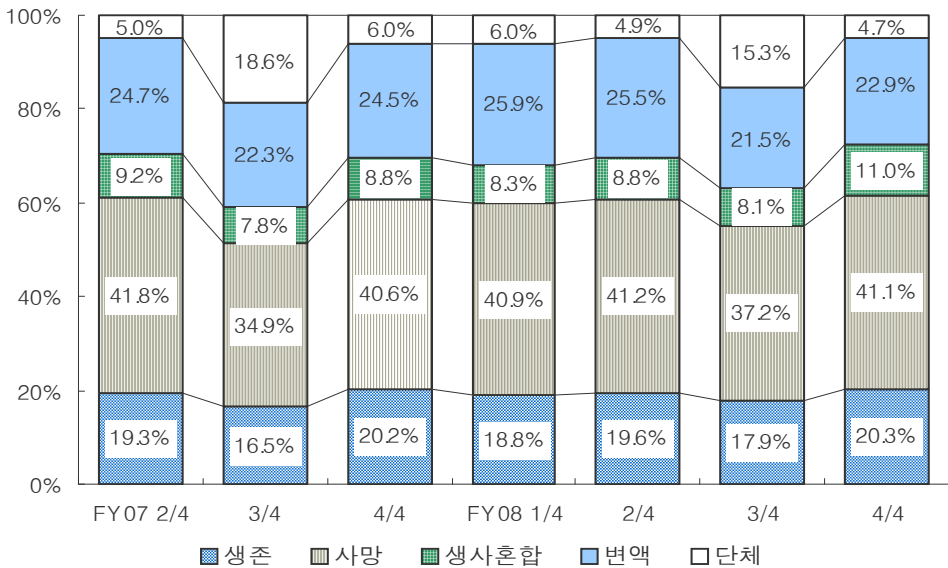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8 4/4분기 들어 특별계정자산은 3/4분기와 달리 전분기대비 5.9% 증가하였고, 계절적 요인 및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 등으로 일반계정자산도 1.7% 증가함.
- FY2008 총자산 규모는 328조 3,321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성장하였으나, 성장률은 전년에 비 4.3%p 하락함.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8 4/4분기 동안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명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에서 변액보험 및 단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4/4분기 중에도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했으며,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1.6%p 하락한 22.9%를 기록함.
-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4/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3.8%, 3.5% 감소하였으나, 변액보험과 단체보험의 심각한 부진으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비중은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0.1%p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은 4/4분기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0.2% 급증하여 비중도 2.2%p 높아짐.
-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비중도 6.0%에서 4.7%로 1.3%p 축소됨.
- FY2008 4/4분기 들어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신계약이 감소하고 해약이 증가하여 생존□사망□변액보험의 성장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16조 8,024억원을 기록함.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경기불황으로 인해 약화됨에 따라 일반연금의 감소세(전년동기대비 -5.5%)가 두드러졌음.
 - 개인연금의 증가세(전년동기대비 4.7%)가 전분기에 비해 다소 호전되었으나,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및 질병보험의 지속적인 부진(각각 전년동기대비 6.3%, 5.4% 감소)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였고, 이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0.8%p 심화된 수준임.
 - 4/4분기 중 사망보험 초회보험료의 감소세는 다소 완화된 반면, 해약률의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감소세는 심화됨.
- 생사혼합보험은 낮은 시장금리로 인해 저축성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FY2007 2/4분기 이후로 지속된 감소세에서 벗어나 FY2008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0.2%로 급성장함.
 -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금리연동형 상품판매에 적극성을 보인 것이 수입보험료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5,507	37,275	141,403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성장률	9.6	2.8	8.6	-0.5	3.8	-1.1	-3.8	-0.5
	구성비	16.5	20.2	18.8	18.8	19.6	17.9	20.3	19.1
사망	보험료	75,176	75,026	297,700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성장률	4.2	2.8	4.2	1.4	0.6	-2.7	-3.5	-1.1
	구성비	34.9	40.6	39.6	40.9	41.2	37.2	41.1	40.0
생사 혼합	보험료	16,754	16,193	66,043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성장률	-1.3	-8.1	-2.8	-9.3	-3.1	-5.3	20.2	0.5
	구성비	7.8	8.8	8.8	8.3	8.8	8.1	11.0	9.0
변액 보험	보험료	48,117	45,184	173,912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성장률	63.6	47.1	50.9	27.8	5.7	-12.3	-10.8	1.2
	구성비	22.3	24.5	23.2	25.9	25.5	21.5	22.9	23.9
개인 계	보험료	175,555	173,678	679,058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성장률	16.3	10.2	13.4	5.9	2.2	-5.2	-3.3	-0.2
	구성비	81.4	94.0	90.4	94.0	95.1	84.7	95.3	92.1
단체	보험료	40,120	11,006	71,898	10,945	8,744	30,099	8,299	58,087
	성장률	36.9	-21.2	9.7	-8.2	-1.2	-25.0	-24.6	-19.2
	구성비	18.6	6.0	9.6	6.0	4.9	15.3	4.7	7.9
합계	보험료	215,675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성장률	19.7	7.7	13.0	5.0	2.0	-8.9	-4.5	-2.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분기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세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전년동기에 비해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변액보험 중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2%, 11.1% 감소함.
- 이러한 변액보험의 부진은 개인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감소세를 주도함.
- 특별계정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 전분기와는 달리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일반계정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서 감소세가 심화됨에 따라 FY2008 4/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한 8,299억원을 기록함.
- 기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일반계정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4/4분기에도 11.8% 감소하면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4/4분기 중 5.6% 감소하였고, 초회보험료도 33.5% 감소함.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8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가 전분기보다 감소한 가운데,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전분기보다 증가함.
- 4/4분기 들어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임직원과 설계사에 의한 모집활동 비중이 높은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이 53.3%로 전분기에 비해 3.8%p 하락함.
- 방카슈랑스 채널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사와 중소형사는 변액보험 판매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 판매를 늘림으로써 4/4분기에 각각 21.3%, 25.4%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이는 각각 전분기대비 1.6%p, 2.2%p 증가한 수준임.
- FY2008 기준으로는 상위3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중소형사는 증가함.
- 허핀달지수는 FY2008 4/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0.0052p 떨어진 0.1216을 기록하여 경쟁 정도가 심화됨.

- FY2008 기준으로도 허핀달지수가 0.00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음.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57.7	54.3	56.7 (2.9)	54.3	53.9	57.1	53.3	54.7(-5.5)
국내중소형사	21.2	22.0	20.8(33.1)	23.4	23.5	23.2	25.4	23.8(12.5)
외 국 사	21.1	23.7	22.5(26.7)	22.3	22.7	19.7	21.3	21.5(-6.8)
허핀달지수	0.1372	0.1268	0.1338	0.1257	0.1242	0.1365	0.1216	0.1271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9년 3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SH&C는 국내 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8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FY2007의 1/4 수준인 5,703억원으로 대폭 축소됨.

- 보험영업수지는 보험료 수입의 감소와 함께, 해약 관련 환급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0% 이상 감소한 1조 5,949억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수지도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과 헤지 목적으로 보유한 통화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1.0% 감소한 11조 1,193억원을 기록함.
- 영업외수지의 경우 변액보험 자산 증대로 인해 수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403,182	542,343	132,642	269,260	403,000	541,472
	투자영업	109,810	153,452	42,759	91,747	143,107	193,584
	영업외	16,583	23,099	20,150	14,385	24,500	33,276
	소계	529,575	718,894	195,551	375,392	570,606	768,332
총 비 용	보험영업	367,748	501,328	114,908	247,562	390,971	525,522
	투자영업	17,750	28,558	10,584	31,576	57,118	82,391
	영업외	4,492	6,691	14,864	2,835	5,334	7,439
	소계	389,990	536,577	140,356	281,973	453,423	615,352
수 지 차	보험영업	35,434	41,015	17,734	21,698	12,029	15,949
	투자영업	92,060	124,894	32,175	60,171	85,989	111,193
	영업외	12,091	16,408	5,285	11,550	19,166	25,838
	소계	139,585	182,318	55,194	93,419	117,184	152,980
책임준비금 전입		116,423	153,417	47,126	83,510	107,029	144,221
법 인 세		6,068	7,846	2,287	2,436	2,545	3,056
당기순이익		17,093	21,054	5,782	7,473	7,610	5,703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8 4/4분기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해약환급금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4%p 증가한 70.5%에 이름.

○ 개인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보험금 지급률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입보험료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해약률마저 상승하고 있는 사망보험의 지급률 증가가 두드러짐.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신규 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을 중심으로 해약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급률이 악화됨.

□ FY2008 해약률은 전년대비 2.1%p 상승한 12.4%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해약률은 전 종목에 걸쳐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해약을 상승은 가계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계형 해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 지급률	60.9	65.1	59.5	56.8	62.9	68.3	70.5	64.6
개 인 계	66.7	58.8	57.4	51.1	57.6	67.7	58.9	58.8
- 생 존	84.3	75.5	73.8	66.3	88.5	106.9	78.9	85.2
- 사 망	43.8	44.6	41.6	41.9	47.6	53.3	57.0	49.9
- 생사혼합	212.5	164.3	155.9	122.7	115.7	121.6	78.9	107.9
- 변 액	38.8	30.9	33.9	31.4	30.3	39.7	34.8	33.9
단 체	35.5	163.2	81.6	145.8	166.5	71.4	305.1	133.1
사 업 비 율	17.2	20.3	18.5	19.2	20.1	17.2	15.8	18.1
신 계 약 률	18.1	25.5	25.5	5.9	11.5	17.5	23.9	23.9
해 약 률	8.0	10.3	10.3	3.0	6.1	9.4	12.4	12.4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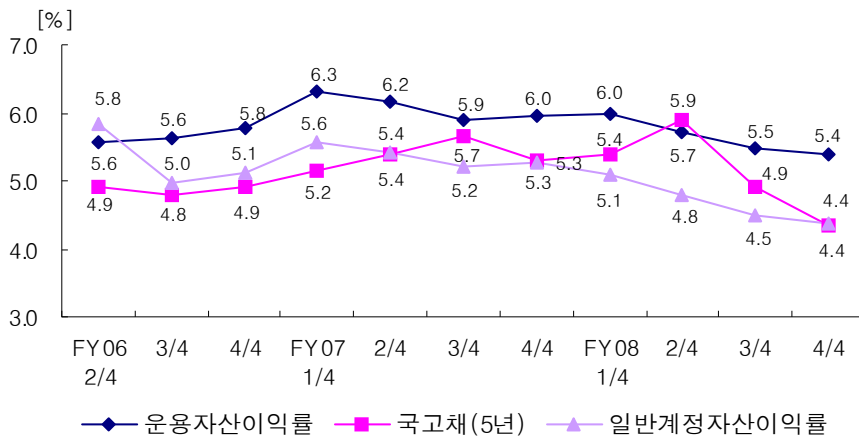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8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유가증권 이익률 하락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5.4%를 기록함.
- 유가증권 중 비중은 작지만 시장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매매증권은 주식과 해외유가증권 등에서 손실을 기록하면서 -3.5%의 이익률을 나타냄.
- 유가증권 중 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금리 하락으로 평가익은 상승한 반면, 해외유가증권 손실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익률은 전년대비 0.8%p 하락한 4.2%를 나타냄.
- 대출채권 이익률은 전년과 같은 8.6%를 유지하였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전년대비 2.2%p 증가한 4.9%를 기록함.
-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의 경우 헤지 목적으로 보유한 외환파생상품의 손실 인식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하락 폭(0.9%p)을 보이며 4.4% 수준으로 낮아짐.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2	3.8	3.0	4.7	3.5	4.0	4.6	3.8	4.4	3.8
유 가 증 권	59.7	5.3	59.3	5.4	58.6	5.0	57.8	4.5	58.9	4.3
○ 단기매매증권	1.5	6.7	1.4	0.5	1.2	-2.4	1.4	-6.2	1.4	-3.5
- 주 식	0.2	20.8	0.2	-8.2	0.1	-34.5	0.0	-37.7	0.0	-26.2
- 채권 등	0.7	4.7	0.6	-0.9	0.6	-3.0	0.5	-9.5	0.4	-7.3
- 수익증권	0.6	6.5	0.7	4.2	0.5	6.2	0.8	1.7	1.0	2.3
○ 매도가능증권	46.8	5.0	46.4	5.3	45.7	4.8	45.0	4.5	45.8	4.2
- 주 식	5.2	4.5	5.2	2.5	4.6	1.7	3.9	0.8	4.2	1.9
- 채권 등	38.1	4.7	37.8	5.0	37.8	4.6	37.8	4.7	38.4	4.3
- 수익증권	3.5	9.4	3.4	12.8	3.3	12.5	3.2	8.4	3.3	6.7
○ 만기보유증권	10.5	5.4	10.5	5.5	10.7	5.9	10.5	5.8	10.8	5.5
- 채권 등	10.5	5.4	10.5	5.5	10.7	5.9	10.5	5.8	10.8	5.5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20.3	1.0	16.5	1.0	11.7	0.9	6.4	0.9	8.4
대 출 채 권	22.6	8.6	23.3	8.2	23.6	8.3	23.6	8.4	22.9	8.6
부 동 산	4.0	2.7	4.1	3.0	4.1	3.2	3.9	4.3	4.3	4.9
운 용 자 산 계	89.6	6.0	89.7	6.0	89.7	5.7	89.9	5.5	90.5	5.4
비 운 용 자 산	10.4	-0.3	10.3	-2.6	10.3	-3.1	10.1	-3.6	9.5	-4.4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산운용율)	100.0	5.3	100.0	5.1	100.0	4.8	100.0	4.5	100.0	4.4
	(82.9)		(82.5)		(82.5)		(83.0)		(82.5)	
특 별 계 정 자 산	17.1	5.9	17.5	-0.4	17.5	-5.1	17.0	-5.4	17.5	-1.6
총 자 산	100.0	5.4	100.0	4.1	100.0	3.0	100.0	2.8	100.0	3.3
총 자산규모	3,053,998		3,093,354		3,138,783		3,205,462		3,283,321	

주 :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8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설계사의 비중 감소와 방카슈랑스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6%p 상승한 46.5%를 기록하였으며, 설계사 비중은 2.7%p 감소한 32.5%, 대리점 비중은 1.6%p 증가한 9.1%를 시현함.
- 전년동기에 전체 초회보험료의 4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던 변액보험의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모두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나 방카슈랑스의 경우 대체 저축성 상품인 생사혼합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점유율면에서 설계사를 추월함.
- 설계사와 대리점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생사혼합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났으나 방카슈랑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 직 원	19.9	12.4	14.4	13.2	18.9	29.5	11.8	17.8
설 계 사	42.2	36.2	42.0	35.5	36.3	39.9	32.5	36.0
대 리 점	11.3	7.5	9.4	8.6	7.9	9.7	9.1	8.8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26.7	43.9	34.2	42.5	36.7	20.7	46.5	37.3
기 타	0.0	0.0	0.0	0.1	0.1	0.1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783	25,744	107,478	20,072	17,429	14,364	15,510	67,375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8 4/4분기 모집조직은 전분기에 비해 임직원 수만 소폭 증가하였고 설계사와 대리점 수는 모두 감소함.
- 교차모집제도 도입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던 설계사 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4,700여 명 감소한 17만 1,34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속설계사 수는 14만 5,834명, 교차모집 설계사 수는 2만 5,513명으로 집계됨.
- 교차모집 설계사 중 대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4.1%로 대부분의 교차모집 설계사가 대형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계사 수 감소는 주로 중소형사에 의해 초래됨.
- 특정 대형사의 개인대리점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던 대리점 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575개가 줄어든 1만 3,120개를 기록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7			FY2008			
	2/4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7,070	27,105	29,111	27,807	28,147	28,137	28,300
설 계 사	136,772	139,510	144,324	148,763	173,434	176,090	171,347
대 리 점	10,400	10,667	11,124	11,411	12,584	13,695	13,120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8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5% 성장한 9조 4,88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FY2008 전체로는 전년대비 10.3% 성장한 37조 4,954억원을 시현함.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Y2008 4/4분기 장기성 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기 수요가 미리 반영된 데 기인함.
- 즉, 2009년 4월부터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상품 개정(요율 인상, 가입금액 축소)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3월 실적이 급증한 것임¹⁾.
- 따라서, FY2008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실적은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FY2008 4/4분기 장기성 보험은 상해 및 질병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성장과 연금 시장의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6.8% 성장한 5조 5,456억원을 시현하였으며, FY2008 전체로는 21조 1,812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5.2% 성장함.
- FY2008 4/4분기 자동차보험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하락, 신차□수입차 판매량 감소, 작년에 단행된 요율 인하 효과, 저가 온라인 시장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조 6,554억원을 기록해 -3.2%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FY2008 전체로는 전년대비 1.2% 소폭 성장함.
- FY2007 3/4분기 이후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FY2008 3/4분기와 4/4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됨.
- FY2008 4/4분기 일반손해보험은 건설 및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료 감소, 수□출입 둔화에 따른 항만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율 급등에 따른 해상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성장한 1조 2,87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1) 보도와 달리 실제 상품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FY2008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해상보험 및 보증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2.2% 상승한 5조 3,771억원을 기록함.
- FY2008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 퇴직보험의 성장 및 투자 수익에 힘입어 전년대비 12.1% 성장한 73조 9,895억원을 기록함.
- 최근의 경제□금융 환경변화가 자산증대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자본시장에 대한 노출 정도가 낮아 외부 환경요인이 자산규모 변화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음.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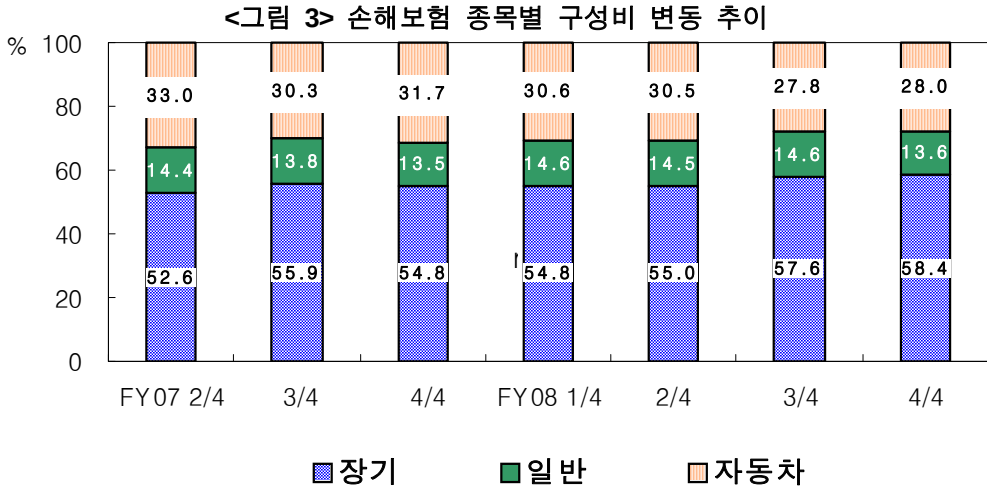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92,201	86,658	339,818	89,550	91,408	99,113	94,883	374,954
	18.3	13.6	14.9	12.9	11.9	7.5	9.5	10.3
- 장기성	51,582	47,492	183,822	49,038	50,260	57,058	55,456	211,812
	25.4	17.7	20.4	17.4	17.0	10.6	16.8	15.2
- 자동차	27,900	27,444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14.1	9.3	12.0	6.0	3.5	-1.2	-3.2	1.2
- 일반손해	12,719	11,723	47,904	13,114	13,301	14,482	12,874	53,771
	2.8	8.1	2.6	12.3	12.9	13.9	9.8	12.2
총 자 산	638,392	660,151	660,151	680,358	690,602	714,866	739,895	739,895
	4.1	3.4	15.9	3.1	1.5	3.5	3.5	12.1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I,Ⅱ를 모두 포함하며,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3) 장기성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구성비>

- FY2008 4/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성 보험의 비중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장기성 보험의 비중은 FY2005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FY2008 4/4분기에는 전체 원수보험료의 58.4%를 차지함.

- 장기성 보험의 고성장세로 인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각각 28.0%, 13.6%로 축소됨.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성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 보험-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08 4/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4% 성장한 4조 9,958억원을 기록함.

○ 이는 2009년 4월 이후 대기 수요가 3월에 미리 반영된 데 기인한 것임.

□ 개인연금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각각 29.1%, 27.1%에 달함.

□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은 FY2008 4/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금융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FY2008 전체 실적은 전년대비 2.5% 감소함.

○ FY2008 퇴직연금 실적은 전년대비 55.7% 증가하여 3,32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퇴직보험 실적은 전년대비 17.6% 감소한 6,807억원으로 축소됨.

<표 12> 장기성 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장기손해	보험료	41,650	43,308	163,436	44,857	46,357	47,656	49,958	188,829
	성장률	19.6	16.8	19.5	16.1	16.3	14.4	15.4	15.5
	구성비	45.2	50.0	48.1	50.1	50.7	48.1	52.7	50.4
개인연금	보험료	2,629	2,713	9,995	2,907	3,104	3,394	3,449	12,853
	성장률	24.0	27.0	25.3	28.3	30.0	29.1	27.1	28.6
	구성비	2.9	3.1	2.9	3.2	3.4	3.4	3.6	3.4
퇴직보험	보험료	6,047	935	8,258	518	410	4,770	1,110	6,807
	성장률	48.6	-8.1	26.2	-32.4	-19.7	-21.1	18.7	-17.6
	구성비	6.6	1.1	2.4	0.6	0.4	4.8	1.2	1.8
퇴직연금	보험료	1,256	536	2,133	756	389	1,238	939	3,322
	성장률	758.8	308.1	61.0	-32.4	-19.7	-1.5	75.1	55.7
	구성비	1.4	0.6	0.6	0.8	0.4	1.2	1.0	0.9
장기성보험계	보험료	51,582	47,492	183,822	49,038	50,260	57,058	55,456	211,811
	성장률	25.4	17.7	20.4	17.4	17.0	10.6	16.8	15.2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08 4/4분기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상해 및 질병, 통합형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6.4%, 35.6% 성장한 1조 3,563억원, 9,785억원이며, 통합형보험의 경우에도 10.8% 성장한 9,219억원에 이름.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 수 보험료	상 해	10,180	10,726	39,614	11,324	11,928	12,618	13,563	49,433
	운전자	5,381	5,393	21,347	5,354	5,279	5,197	5,075	20,904
	재 물	4,335	4,466	17,625	4,486	4,531	4,519	4,539	18,113
	질 병	7,009	7,215	27,406	7,511	7,966	8,762	9,785	34,023
	저축성	6,776	7,169	27,268	7,299	7,491	7,369	7,480	29,639
	통합형	7,838	8,319	30,175	8,838	9,174	9,172	9,219	36,403
	소 계	41,519	43,288	163,435	44,812	46,369	47,637	49,661	188,515
초 회 보험료	상 해	398	512	1,728	452	492	597	824	2,365
	운전자	144	133	572	112	100	104	108	424
	재 물	166	161	624	172	136	149	166	622
	질 병	193	215	767	222	326	495	719	1,762
	저축성	442	842	2,552	643	648	462	652	2,405
	통합형	255	306	1,107	265	216	151	219	851
	소 계	1,598	2,169	7,350	1,866	1,918	1,958	2,688	8,429
계 속 보험료	상 해	9,782	10,214	37,886	10,872	11,436	12,021	12,739	47,068
	운전자	5,237	5,260	20,775	5,242	5,179	5,093	4,967	20,480
	재 물	4,169	4,305	17,001	4,314	4,395	4,370	4,373	17,491
	질 병	6,816	7,000	26,639	7,289	7,640	8,267	9,066	32,261
	저축성	6,334	6,327	24,716	6,656	6,843	6,907	6,828	27,234
	통합형	7,583	8,013	29,068	8,573	8,958	9,021	9,000	35,552
	소 계	39,921	41,119	156,085	42,946	44,451	45,679	46,973	180,086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장기손해보험의 자산연계형 실적은 제외함.

2) 원수보험료=초회보험료+계속보험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8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실적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해 및 질병 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통합형보험은 감소하는 추세임.

- 상해 및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0.9%(512억원 → 824억원), 234.4%(215억원 → 719억원) 성장함.
- 반면, 통합형보험은 28.4% 감소한 219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함.
- 이 외 운전자와 저축성보험은 신규 판매가 축소되어 초회보험료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8%, 22.6% 감소함.
- 종목별 계속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상해, 질병 및 통합형보험의 보유계약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약률>

- FY2008 4/4분기 누적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은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40.7%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시현함.

<표 14>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신계약률	상 해	38.8	50.3	50.3	8.6	18.1	28.4	42.9	42.9
	운전자	21.1	28.0	28.0	5.6	10.9	16.7	22.9	22.9
	재 물	23.0	32.8	32.8	7.9	14.7	22.1	30.1	30.1
	질 병	43.1	59.5	59.5	11.7	29.4	49.6	82.6	82.6
	저축성	24.8	39.5	39.5	7.8	13.6	17.8	23.0	23.0
	통합형	60.9	86.3	86.3	12.1	22.9	29.8	40.7	40.7
	계	33.6	46.3	46.3	8.8	18.1	27.5	40.7	40.7
해약률	상 해	13.7	17.0	17.0	4.4	8.8	12.9	17.2	17.2
	운전자	11.3	14.6	14.6	4.4	8.6	13.1	17.6	17.6
	재 물	10.3	12.9	12.9	4.1	8.0	11.9	15.1	15.1
	질 병	12.7	15.7	15.7	4.1	8.1	11.5	14.8	14.8
	저축성	12.9	15.9	15.9	4.6	9.4	15.0	19.7	19.7
	통합형	8.8	10.6	10.6	2.8	5.4	8.0	10.1	10.1
	계	12.5	15.5	15.5	4.3	8.6	12.9	16.9	16.9

주 : 1)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높은 신계약률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수요 증대에 힘입어 질병보험의 신계약률이 82.6%에 달하는데 기인함.
- FY2008 4/4분기 누적 장기손해보험 해약률은 질병보험 및 통합형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서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직전 분기인 3/4분기까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해약률이 4/4분기에 이르러 경기침체 영향이 본격적으로 보험시장에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함.
- 특히, 외부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한 저축성보험의 해약률이 크게 상승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됨.

2) 자동차보험

- FY2008 4/4분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1.6% 감소한 8,565억원과 1조 7,073억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용과 업무용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7.0%, 10.0% 하락하였으며,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던 영업용 역시 4/4분기 들어 1.1% 감소함.
-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 무보험차상해(무보험)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물사고 발생률 증가 및 차량의 고급화□대형화 경향 등의 영향으로 물적담보인 대물배상(대물)만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함.
- FY2008 자동차보험의 경우, 1/4분기에 6.0% 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져 4/4분기에는 3.2%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및 신차□수입차 판매량 감소, 작년 하반기 단행된 요율인하 효과 지속, 온라인 자동차보험 활성화로 인한 저가 경쟁 심화 등이 자동차시장 침체의 주요 요인들임.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종합 보험	대인Ⅰ	9,502	9,212	36,867	9,077	9,190	9,090	8,565	35,923
	대인Ⅱ	3,242	3,140	12,591	3,089	3,123	3,088	2,916	12,215
	대물	6,324	6,159	24,434	6,473	6,712	6,845	6,679	26,710
	자차	6,648	6,798	25,784	6,599	6,381	6,566	6,289	25,836
	자손	1,006	969	3,849	650	1,202	731	921	3,804
	무보험	282	281	1,126	268	282	280	268	1,098
	소계	17,502	17,346	67,784	17,380	17,700	17,511	17,073	69,664
외화표시		33	22	100	33	29	43	21	127
운전자		1	0	2	0	1	1	0	2
이륜자동차		84	88	350	127	129	106	98	460
기타		778	775	2,991	780	797	823	796	3,196
총계		27,900	27,444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이륜자동차 원수보험료는 4/4분기에 11.4%, FY2008 전체로는 3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정책과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대상 범위 확대 시행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유도책이 이륜자동차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FY2008 4/4분기 대인배상 I 은 발생손해액이 크게 감소하며 61.3%의 양호한 손해율을 보인 반면,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전체 손해율(69.7%)을 크게 웃도는 74.3%를 기록함.

○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FY2008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인적담보인 대인배상 I □ II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4%p, 15.0%p 개선된 반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와 같은 물적담보 손해율은 증가함.

- FY2008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 및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정부의 강력한 보험사기 단속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69.7% 수준으로 개선됨.
- 손해액 및 원수보험료 부문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손해율 하락이 전체 손해율 개선을 주도함.
- 양호한 손해율을 기록한 주요 요인으로는 작년 상반기 고유가와 하반기 경기침체 여파로 자동차 운행 및 사고 발생률 감소, 예년에 비해 적었던 태풍·집중호우 등의 풍수해, 정부의 보험사기 단속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연간 손해율이 100%를 상회했던 이륜자동차의 손해율은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손해율 관리 노력과 사고발생 감소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94.6%까지 개선됨.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74.3	66.7	72.3	65.2	65.5	74.7	61.3	66.6
대인 II	78.2	85.9	78.1	91.4	74.4	57.7	70.9	73.5
대물	81.5	74.0	79.1	71.8	74.9	78.4	76.1	75.4
자차	69.2	68.0	68.6	62.4	66.4	72.1	74.5	68.9
자손	53.8	56.1	58.7	49.3	58.3	56.8	82.2	60.6
무보험	41.2	38.7	46.2	22.8	39.8	43.0	37.9	35.8
소계	73.9	72.3	73.2	69.7	70.1	70.5	74.3	71.1
외화표시	85.0	75.9	74.2	59.7	72.6	58.5	58.2	62.3
운전자	134.9	36.7	58.3	-85.0	223.2	31.2	-42.0	29.3
이륜자동차	143.4	85.3	120.5	107.2	108.2	95.2	71.2	94.6
기타	69.1	65.0	68.9	60.5	73.4	72.3	67.8	68.6
총계	74.2	70.3	73.0	68.1	68.8	72.1	69.7	69.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08 4/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710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7.8% 감소한 2,835억원을 기록함.
- 이는 화재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일반물건의 보험료 인하,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 건설 경기 침체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임.
- 해상보험의 FY2008 4/4분기 원수보험료는 환율 급등에 따른 선박 및 적하 보험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한 1,86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30.5% 증가한 8,507억원을 기록함.
- 지난해 9월 이후 교역량(수출액+수입액)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9년 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적하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0.9% 성장한 2,836억원에 이름.
- 선박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선박류의 수출 호조, 건조보험 실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8.4% 성장한 4,161억원을 기록함.
- 그 외 항공, 운송보험에서도 전년대비 각각 14.8%, 1.8% 성장함.
- FY2008 4/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건설투자 침체로 인한 이행보증보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시장 및 보증사의 해외진출 등 영업다각화 추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2,966억원을 기록함.
- FY2008 보증보험은 전년대비 16.0% 증가한 1조 1,529억원을 시현하였고, 부문별로는 보증 부문과 신용 부문이 각각 전년대비 11.4%, 3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신용 부문의 비중이 3.2%p 확대된 24.1%를 차지함.
- FY2008 4/4분기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6,75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6.9% 증가한 2조 9,119억원을 시현함.
- 상해보험은 일반상해보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FY2008 4/4분기에도 원수보험료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함.

- 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달러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의 원화 환산 보험료가 환율 인상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임.
-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 상해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함.

<표 1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878	775	3,075	701	632	792	710	2,835
	성장률	-2.6	2.3	-1.8	-5.7	-6.9	-9.8	-8.4	-7.8
	구성비	1.0	0.9	0.9	0.8	0.7	0.8	0.7	0.8
해 상	보험료	1,486	1,514	6,518	2,166	1,912	2,564	1,864	8,507
	성장률	13.9	15.2	3.1	24.9	7.2	72.6	23.1	30.5
	구성비	1.6	1.7	1.9	2.4	2.1	2.6	2.0	2.3
보 증	보험료	2,602	2,573	9,940	2,814	2,928	2,821	2,966	11,529
	성장률	-15.3	-5.3	-13.0	16.1	25.1	8.4	15.3	16.0
	구성비	2.8	3.0	2.9	3.1	3.2	2.8	3.1	3.1
특 중	보험료	7,455	6,478	27,245	7,209	7,488	7,668	6,754	29,119
	성장률	9.4	10.3	9.0	9.5	11.3	2.8	4.3	6.9
	구성비	8.1	7.5	8.0	8.1	8.2	7.7	7.1	7.8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98	383	1,126	224	341	637	580	1,781
	성장률	7.1	108.7	36.8	16.9	34.2	113.9	51.3	58.1
	구성비	0.3	0.4	0.3	0.2	0.4	0.6	0.6	0.5
소 계	보험료	12,719	11,723	47,904	13,114	13,301	14,482	12,874	53,771
	성장률	2.8	8.1	2.6	12.3	12.9	13.9	9.8	12.2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중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8 4/4분기 상위 4개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2% 성장한 6조 2,815억 원을, 기타사의 원수보험료는 13.3% 성장한 2조 3,494억원을 시현해 기타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전업사와 외국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5.3%, 22.1% 증가한 2,976억원, 3,349억원을 기록함.
- FY2008 4/4분기 온라인사의 원수보험료 실적은 자동차보험 침체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3,424억원을 기록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FY2008 1/4분기 17.7% → 2/4분기 10.8% → 3/4분기 2.5% → 4/4분기 -0.3%).
- FY2008 손해보험회사의 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4개사의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기타사, 전업사 및 외국사의 비중은 증가함.
 - 상위 4개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1.6%p 감소한 68.5%를 기록한 반면, 기타사는 0.9%p 증가한 24.6%를 차지함.
 - 전업사 및 외국사의 비중은 각각 3.2%, 3.7%에 달함.
- FY2008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에 대한 허핀달지수는 0.1426을 나타냄.
 - 이는 전년대비 0.0061p 감소한 수치로 손해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점유비	상위4개사	69.8	69.4	70.1(13.0)	69.1	68.7	68.6	67.8	68.5(8.2)
	기 타 사	23.9	24.3	23.7(22.3)	24.0	24.4	24.8	25.4	24.6(14.9)
	전 업 사	3.1	3.0	3.0(-13.0)	3.2	3.2	3.0	3.2	3.2(16.0)
	외 국 사	3.2	3.2	3.1(25.6)	3.7	3.7	3.6	3.6	3.7(3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8	4.0	3.7(43.5)	3.6	3.6	3.6	3.7	3.6(7.1)
허 핀 달 지 수		0.1474	0.1444	0.1487	0.1453	0.1441	0.1430	0.1384	0.1426

- 주 : 1) 온라인사는 더케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교보AXA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사, 외국사는 교보AXA손해보험,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IG, ACE, 페더럴,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동경해상일동 8개사임.
-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 3) 원수보험료는 분기별 실적이며, 특별계정Ⅱ가 제외된 실적임.
- 4) 괄호는 연간 원수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당기순이익〉

□ FY2008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영업 부문에서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1.2% 감소한 1조 3,156억원을 실현함.

○ 보험영업 부문에서는 손실 규모가 전년 2,129억원에서 8,434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규모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조 6,294억원을 기록함.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229,715	312,320	84,828	173,110	263,657	356,732
	투자영업	27,232	36,296	10,526	20,104	31,151	41,692
	기타	10,463	12,939	2,142	4,394	11,934	14,693
	소계	267,410	361,555	97,496	197,607	306,743	413,117
총 비 용	보험영업	230,111	314,449	83,687	172,648	266,425	365,166
	투자영업	5,556	9,598	2,684	6,692	11,789	15,398
	기타비용	11,656	14,217	2,211	4,507	12,078	14,739
	소계	247,323	338,264	88,582	183,848	290,292	395,302
수 지 차	보험영업	-395	-2,129	1,141	461	-2,768	-8,434
	투자영업	21,676	26,698	7,842	13,412	19,362	26,294
	기타	-1193	-1,278	-69	-114	-144	-46
	소계	20,088	23,291	8,914	13,759	16,451	17,814
법 인 세		5,611	6,597	2,434	3,623	4,327	4,659
당기순이익		14,477	16,694	6,480	10,137	12,123	13,156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8 4/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7%p, 2.8%p 상승한 77.9%와 27.6%를 나타냄.
- 이는 해상보험 및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하며, FY2008 2/4분기 이후 손해율과 사업비율 모두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RG보험²⁾ 부분의 지급준비금 증가로 해상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FY2007 4/4분기 54.7% → FY2008 4/4분기 301.8%), 보증보험의 손해율도 전년동기대비 19.0%p 상승한 43.6%를 기록함.
- FY2008 4/4분기 손해보험사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5.5%p 상승한 105.5%를 기록하였으며, FY2008 1/4분기 이후 합산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율	화재보험	38.1	44.9	44.2	43.0	31.6	47.7	37.9	39.7
	해상보험	66.3	54.7	57.7	52.9	71.7	82.5	301.8	127.1
	자동차보험	74.2	70.3	73.0	68.1	68.8	72.1	69.7	69.7
	보증보험	5.4	24.6	19.5	23.7	47.5	78.5	43.6	48.9
	특종보험	61.4	65.7	60.4	57.8	62.5	69.0	68.3	64.7
	해외원보험	33.1	43.5	34.6	38.1	40.2	48.8	50.5	45.8
	장기손보	81.0	79.0	80.7	80.0	80.6	79.0	78.0	79.3
	개인연금	117.0	135.9	121.7	115.7	115.7	115.7	123.9	117.9
	전 체	75.9	75.2	75.7	73.7	75.4	77.3	77.9	76.1
사업비율		23.1	24.8	23.5	23.5	23.5	25.0	27.6	24.9
합산비율		99.0	100.0	99.2	97.2	98.9	102.2	105.5	101.0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며, 분기 실적 기준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조선업체가 선주에게 선박을 수주한 후 선박 건조 중 파산했을 경우, 선주의 선급금을 보상해주는 보험(Refund Guarantee)

- FY2008 손해보험 손해율과 사업비율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76.1%, 24.9%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1.8%p 상승한 101.0%를 기록함.
- 전체 손해율은 보험료 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데 비해 해상, 보증, 특종보험의 악화로 전년대비 0.4%p 상승함.
- 해상보험의 경우 FY2008 손해율이 127.1%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69.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FY2008 4/4분기 손해율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함.
- FY2008 보증보험 손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회사의 대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9.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8 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1.4%p 상승한 24.9%를 기록함.

라. 자산운용

□ FY2008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대비 1.1%p 감소한 4.6%로 낮아졌으며, FY2008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6.1	5.2	6.3	6.1	6.6	7.3	7.0	7.1	5.9	7.1
유 가 증 권	53.8	6.0	53.3	5.4	51.8	4.4	51.1	4.1	52.1	3.8
○ 단기매매증권	5.0	6.3	4.5	1.7	2.9	-3.5	3.0	-1.7	3.5	1.5
- 주 식	0.3	31.0	0.4	-14.3	0.2	-62.3	0.1	-59.8	0.1	-34.1
- 채 권 등	1.2	5.4	0.8	3.4	0.6	2.7	0.7	5.0	0.6	5.5
- 수익증권	3.5	5.0	3.3	2.8	2.2	0.1	2.3	0.3	2.8	2.7
○ 매도가능증권	45.5	6.0	45.5	5.2	45.0	4.7	44.1	4.4	44.3	3.9
- 주 식	6.0	14.7	5.9	6.4	5.5	4.1	4.4	4.0	4.7	4.1
- 채 권 등	31.5	5.1	31.2	5.2	31.2	5.3	31.4	5.4	30.5	5.2
- 수익증권	8.0	3.2	8.3	4.5	8.3	3.2	8.2	1.0	9.0	-0.8
○ 만기보유증권	2.3	5.3	2.2	4.1	2.6	5.1	2.8	4.4	3.1	3.9
- 채 권 등	2.0	5.1	2.0	4.5	2.4	4.5	2.6	4.8	2.9	5.1
- 수익증권	0.3	6.7	0.2	1.0	0.2	10.3	0.2	0.7	0.3	-6.0
○ 투자주식	1.0	5.0	1.1	30.9	1.2	17.7	1.2	10.5	1.3	7.4
대 출 채 권	18.1	6.7	18.3	6.8	18.9	6.8	19.1	7.0	18.5	7.0
부 동 산	6.2	0.8	6.0	8.8	6.1	4.1	5.9	2.9	6.7	1.9
운 용 자 산 계	84.2	5.7	84.0	6.0	83.3	5.1	83.1	4.9	83.2	4.6
비 운 용 자 산	15.8	-0.3	16.0	-0.1	16.7	-0.1	16.9	-0.1	16.8	-0.1
일반계정 자산계	100.0	4.6	100.0	4.9	100.0	4.2	100.0	4.0	100.0	3.7
일 반 계 정 자 산	96.2	4.6	96.3	4.9	96.4	4.2	96.4	4.0	96.2	3.7
특 별 계 정 자 산	3.8	-	3.7	-	3.6	-	3.6	-	3.8	-
총 자 산	100.0	4.4	100.0	4.7	100.0	4.0	100.0	3.8	100.0	3.6
총 자 산 규 모	660,151		680,358		690,602		714,866		739,895	

주 :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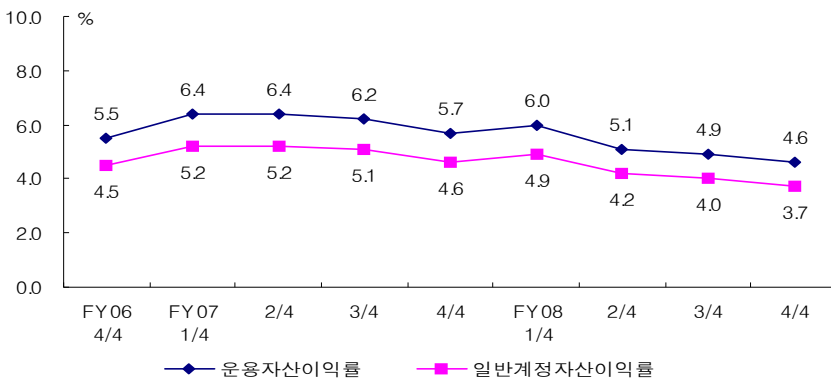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일반계정의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에 유리한 채권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반계정 매도가능증권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로 나타났으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는 채권 비중도 2.9%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채권의 비중이 총자산 대비 34.0%를 차지함.
-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유가증권의 이익률은 FY2008 들어 3.8%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전년대비 2.2%p 하락한 수치임.
-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이익률이 각각 3.9%, 1.5% 수준으로 급락한 데 기인한 것임.
- 반면,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약관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힘입어 FY2008 4/4분기까지는 이익률 급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 비운용자산까지 감안한 손해보험회사의 일반계정 자산이익률은 FY2008 3.7%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FY2008 1/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비운용자산 부문(파생상품 자산 포함)에서 자산운용 손실을 인식함에 따라 일반계정 자산의 이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4>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손익=수익-비용)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손해보험회사의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FY2008 4/4분기에 들어 회사직급과 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 설계사의 비중은 소폭 감소함.
-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리점 47.5%, 보험설계사 34.1%, 회사직급 11.8%, 방카슈랑스 5.5% 순임.
- 원수보험료 규모는 대리점이 4조 4,048억원, 보험설계사 채널이 3조 1,680억원을 기록하면서 두 개의 채널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8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를 통해 모집한 원수보험료 규모도 5,085억원에 달함.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회사직급	10,261	9,916	39,230	11,098	11,269	12,118	10,961	45,446
	12.1	11.6	11.9	12.6	12.4	13.0	11.8	12.5
보험설계사	28,254	29,219	113,090	30,067	30,976	31,672	31,680	124,395
	33.6	34.3	34.3	34.1	34.1	34.0	34.1	34.1
대 리 점	40,411	40,246	154,833	41,416	42,178	43,258	44,048	170,900
	47.6	47.2	47.0	46.9	46.5	46.4	47.5	46.8
중개사	815	654	2,759	644	761	813	716	2,935
	1.0	0.8	0.8	0.7	0.8	0.9	0.8	0.8
방카슈랑스	4,406	4,597	17,724	4,723	5,181	5,005	5,085	19,993
	5.2	5.4	5.4	5.4	5.7	5.4	5.5	5.5
공동인수	482	555	1,790	328	348	344	281	1,301
	0.6	0.7	0.5	0.4	0.4	0.4	0.3	0.4

주 :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를 포함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08 4/4분기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15만 5,809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5월 교차모집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 중 전속설계사 수는 전년대비 15.1% 증가한 8만 2,201명이며, 이중 남성설계사의 비중이 3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FY2008 4/4분기 대리점 수는 최근 독립대리점(GA)의 판매활성화로 인해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4만 5,998개를 기록함.
 - 개인대리점의 경우 전분기대비 0.7% 증가한 3만 5,678개를 기록한 반면, 법인대리점은 9.4% 늘어난 1만 323개로 나타나 법인대리점 수가 크게 증가함.
 -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이 GA채널을 통해 의료실손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동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임.
- FY2008 4/4분기 임직원 수는 2만 8,250명으로 전분기대비 0.6% 감소함.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7		FY2008			
	3/4	4/4	1/4	2/4	3/4	4/4
임직원	26,957	27,394	27,278	27,876	28,425	28,250
보험설계사	71,742	71,423	73,698	116,758	145,214	155,809
						82,201 ¹⁾ 73,608 ²⁾
대리점	42,423	42,311	42,443	43,647	44,859	45,998

주 : FY2008 2/4분기 이후 보험설계사 수는 교차모집설계사 수를 포함하며, 4/4분기 1)은 전속설계사 수, 2) 교차모집설계사 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국내제도 동향

1. 저축성 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 추진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

-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보험 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저축성 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 후취방식(Back-end Loading)’의 도입을 추진함.

가. 현황 및 문제점

타 금융권의
경우 수수료
부과방식을
다양화

- 현재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과 비교 경쟁 상품인 타 금융권 상품은 판매수수료를 선취·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는 반면, 저축성 보험은 선취방식(Front-end Loading)만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후취방식에 비해 가입초기 투입원금이 적어지고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낮은 초기 환급률 등으로 상품 경쟁력이 저하됨.

<표 1> 판매수수료 선·후취방식 비교

구분	선취방식 (Front-end Loading)	후취방식 (Back-end Loading)
투자원금	납입금액 - 판매수수료(모집비용)	납입금액
모집비용 재원	선취한 판매수수료	후취한 판매수수료 또는 해지수수료
특징	초기 투입금액이 적어짐 초기 수익률 저하 가능성 판매수수료를 초기에 집중 부가	초기 투입금액이 많아짐 초기 수익률 향상 가능성 유지 및 해지 시 수수료 부가

나. 도입 방안

- 변액연금, 적립형 변액유니버설 및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선취 외 후취방식을 도입하고, 후취방식은 판매수수료를 보험계약 유지 중(유지수수료) 및 해지 시(해지수수료)에 부가토록 할 예정임.

<표 2>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 방안

구분	내용
도입대상	저축성 보험상품
상품설계	판매수수료(신계약비)를 유지수수료(판매보수 성격)와 해지수수료(환매수수료 성격)로 후취 부가
부가기준	원칙적으로 현행과 같이 '보험료 대비' 부가 ※ 다만, 신뢰성 있는 통계(유지율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립금 대비' 판매수수료 부가 허용

다. 기대 효과

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설계방식
다양화 기대

-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상품 변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후취방식 상품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선취방식 상품과 동시에 판매하여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예정임.
-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계약 초기 투자원금이 높아져 초기수익률 향상이 기대됨.
-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해져 저축성 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생명보험팀 보도자료(2009.4.9)를 참고하여 작성함.

2.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 맞추어
녹색보험을
적극 개발

- 금융당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추어 녹색보험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녹색보험(Green Insurance)은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함.

-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녹색보험을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음.

- 미국의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는 주택종합보험(Homeowner Insurance Policy)에 손해복구비용 산정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용(Green Upgrade Coverage)까지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 중임.

- 영국 Green Insurance Company는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보험기간에 배출하는 매연가스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산소량을 생성하도록 회사가 직접 나무들을 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별도의 자체 식목지대 확보 중).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경제전략
추진으로
녹색보험
수요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 녹색보험은 녹색산업의 급성장 전망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한 경영과 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녹색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녹색보험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 확산과 보험산업의 이미지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 보도자료(2009.4.14)를 참고하여 작성함.

3.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관련 문제점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에도
보험금은 해당
치료비만을
보상

□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중복 가입 여부의 확인 방법을 모르거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음.

○ 보험회사도 계약자 스스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고지)하도록 할 뿐 적극적으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려짐.

나. 제도 개선 및 방안

<약관개선 등 보험회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입전
설명의무 강화

□ 보험모집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 동의를 거쳐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복 가입 시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함.

<표 3>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중복가입 확인	- 계약자가 직접 확인 원칙 - 계약자 동의가 있으면 보험사 확인 가능	- 계약자 동의후 보험사가 확인 - 미동의시 계약자가 직접 확인
비례분담 설명	- 비례분담 설명의무규정 無 → 보험사 설명 미흡	- 보험금 비례분담 설명의무를 약관에 명문화

□ 청약서 접수 후 중복 가입 여부 확인 및 비례분담 원칙을 안내받았는지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및 녹취기록을 보존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보험금 비례분담과 관련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4>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 일부 손보사만 전화 모니터링 실시	- 전화 모니터링 전체 손보사로 확대 실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강화>

불완전판매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 ☐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확인 및 비례분담 안내와 관련하여 금감원 검사 및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동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임.
- 중복 가입 확인 및 비례분담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불건전 모집행위로 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임.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 시스템 개선(2009년 9월 예정)>

비례분담 여부
및 적정성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

- ☐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유형이 다양함에도 손보험회 전산시스템에는 보장범위별 구분 없이 상품(담보)명으로만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중복 가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전체 계약자 중 중복 가입자의 현황 파악이 곤란함.
- ☐ 보험금 비례분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손보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및 입력을 의무화할 예정임.

<표 5> 실손의료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중복 가입 전산시스템	- 손보험회 전산시스템 미흡	- 계약현황 관리체계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용량 확충
비례분담 전산시스템	- 보험사의 전산관리 미비	- 비례분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 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기획팀 보도자료(2009.4.16)
및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도자료(2009.7.1)를 참고하여 작성함.

4.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유류오염손해배
상보장법
개정안 공포

- 국토해양부는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유배법) 개정안을 공포함.

- 이번 개정 법률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처럼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약 3,200억원)을 초과 시 최대 약 1조 2천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해 관련 조항이 포함됨.

<유배법 주요 개정내용>

피해규모가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것을
대비해
추가기금 청구
및 분담금 조항
신설

- 피해 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조항을 신설함(안 제30~31조, 제40조).
- 다만, 추가기금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이후 발효되도록 부칙에 규정함.
- 우리나라가 추가기금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입법과정 없이 추가기금을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짐.

- 선박연료유 협약 적용대상인 총톤수 천톤 초과 선박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43~50조).
-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발효(2008년 11월)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 유류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 협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톤수 천톤 초과 일반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이동용
유조부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43~50조).

- 200톤 이상의 지속성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대해서도 이동용 유조부선과 같은 책임보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함.
- 유배법 개정 법률은 2009년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함.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보도자료(2009.5.26)를 참고하여 작성함.

5.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설치□ 운영

가. 현황

보험범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08년 한 해 보험회사들을 통해 적발된 보험범죄 총 피해액은 약 2,549억원, 혐의자는 41,019명으로 집계되어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추정된 총 보험범죄 규모 중 10% 정도만이 적발되고 있어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FY2007 기준 2.4조원(가구당 15.3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6> 연도별 보험범죄 적발 실적

	2006년	2007년	2008년
적발금액	1,781(31.8%)	2,045(14.9%)	2,549(24.6%)
혐의자	267(39.0%)	309(15.6%)	410(32.8%)

자료 : 금융감독원

나. 주요 대책

관련 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

- 관련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2009년 7~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임.
- 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정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임.
- 보험혐의자 색출이 용이하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을 추진함.

전산시스템
개선 및 보험
범죄 관련
담당자 교육
강화

-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임.
-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 기관이 확대됨.

관련부처
합동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임.
- 이번 대책은 단속, 제도개선, 교육, 민관협조대책 등을 종합하여 마련되었으며, 관계부처 합동 또는 소관기관별로 보험범죄 근절대책이 추진됨.
-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6개월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자료 :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 보도자료(2009.6.19)를 참고하여 작성함.

6. 보험업법 감독 규정 개정

- 금융위는 7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모집 준수사항,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 완화, 금리연동형 상품의 이율 산정 기준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함.

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산정기준 개선

공시이율에
적용되는 이율
산정방식 개선

- 2009년 10월 1일부터 공시이율에 적용되는 이율 산정방식을 개선함.
 - 금리연동형의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 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 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80~120%)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함.
 -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퇴직보험 계약의 적용이율은 해당 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 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도록 함.
 -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과 연계되어 적용이율이 결정되는 보험계약(자산연계형) 역시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 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은 기초서류에 기재하도록 함.
-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및 산출 방법(공시기준이율 산출 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률 포함)에 대해 공시해야 함.

공시이율
투명성 확대
기대

- 이율 산정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공시이율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보험종목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 완화

고연령자의
보험료
납입부담 완화

- 2009년 7월 1일부터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내에서 장기로 설계할 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로 고연령자의 보험료 납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도자료(2009.7.1)를 참고하여 작성함.

해외제도 동향

◆ 북미 동향

1. 미국 보험감독제도 개선 논의

주(州)단위
보험감독체계
개선에 대한
이슈 부각

가. 개요

- 미국의 보험산업 감독은 현재 주(州)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기존 보험감독 체계의 개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감독체계 개선을 주장하는 측은 주마다 감독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성을 유발하고, 경쟁을 저해하며 신상품의 도입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장함.
- 반면, 현행 제도에 찬성하는 측은 각 주의 보험감독 당국이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주정부 보증기금(state guaranty funds)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강조함.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은행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연방정부 감독과 주정부 감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됨.
- 2007년 연방보험감독기구 설립과 선택적 연방보험감독제도 도입 등이 상□하원에서 모두 제출된 적이 있음.
- 2008년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음.

선택적
연방정부
감독제도가
대안으로 논의

□ 2009년 4월 연방보험감독제도 도입 추진 법안이 하원에 다시 상정되었고, 연방보험정보기관 설립 취지의 법안도 5월에 상정되는 등 연방감독제도 도입 논의가 계속됨.

○ 지난 4월 하원의 Melissa Bean과 Ed Royce의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감독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연방 보험소비자 보호 법안(National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Act)을 의회에 상정함.

○ 이들은 성명에서 AIG의 실패 사례를 볼 때 보험산업의 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산업 중에서 보험산업만이 연방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이번 연방 보험소비자 보호 법안은 이전 법안인 2007년 법안을 압축한 형태로써 시스템 리스크 감독부서(systematic risk regulator)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됨.

○ 또한, 5월 22일 미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자본시장, 보험 및 정부투자기관 소위원회 의장 Paul E. Kanjorski 의원은 보험관련 정보 수집·분석과 정책 조언 역할의 연방보험정보기관 설립을 제안하는 법안을 상정함.

정부
개혁안에는
연방보험기구
설립만 반영

□ 지난 6월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에는 연방보험감독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연방보험기구의 설립만을 제안하고 있어 연방보험감독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는 불투명함.

나. 미 행정부의 보험감독제도 개선안

1) 배경

□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게 됨.

- 보험산업은 지난 135년간 주정부에 의해 감독되고 있으며 주 감독제도는 일관성 결여, 주 또는 국가 간 경쟁 저하, 상품개발 감소, 소비자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함.
- 미국은 연방보험기구의 부재로 인해 타 국가의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를 연방보험청 설립으로 해결하고자 함.
- 오바마 행정부는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영과 현대적인 감독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방보험기구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연방보험청은
보험산업
모니터링,
정보수집,
감독제도 개선
등의 역할
수행

- 지난 6월 17일 오바마 행정부는 재무부 내에 연방보험청(Office of National Insurance) 설립을 제안했으며, 이 기구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정보 수집, 전문지식 축적, 국제 협약 조정, 정책 협의 등의 역할을 맡게 됨.
- 연방보험청은 보험산업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감독상의 문제점을 판별할 책임을 지님.
- 또한 연방보험청은 특정 보험회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감독받을 것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에 요구할 수 있으며 테러보험법안과 관계된 책임도 맡게 됨.

2) 보험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6개 원칙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6개 원칙 발표

- 미 재무부는 6개 원칙에 입각해 보험감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 보험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감독을 지향함.
-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감독을 지향함.

감독상의
통일성 증대,
계열사를
포함한 포괄적
감독,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내용에
포함

- 자기자본 기준(capital standard) 강화, 보험회사의 자본할당 및 자본, 부채 간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함.
 - 금융위기로 금융기관의 적절한 자본 기준과 자본량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모든 보험감독제도는 강화된 자기자본 기준과 유동성, 듀레이션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 제도를 포함해야 함.
- 보험상품과 영업활동 측면에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를 구축함.
 - 현재 각 주들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주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감독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감독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함.
- 연방 정부 감독 또는 각 주 정부의 효과적인 활동에 대한 통일성을 증대함.
 - 현재의 보험감독제도는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불충분함.
 - 그 결과 각 주들 간 감독의 적절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 자본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는 보험감독상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은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함.
- 전통적인 보험사업과 더불어 계열사까지 포함한 통합 감독제도로 확장함.
 - AIG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보험사업 계열사의 문제가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제도는 보험지주회사 차원에서 포괄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원활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함.

- 보험감독 제도 개선은 현존하는 국제적인 틀(international framework)에 부합해야 하며, 미국 보험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보험산업의 서비스 수출 기회를 확대해야 함.

다. 미국의 보험감독제도와 연방보험감독제도 도입 논의

현행
감독제도는
주간 거래가
없던 시대에
시행

- 현행 미국 보험감독제도는 모든 상업 활동이 주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생겨났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자신의 주 내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였음.
- 점차 주 간 영업을 영위하는 거대 보험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활동하던 코네티컷, 뉴욕을 중심으로 보험법이 제정되기 시작함.
- 1871년 각 주 보험감독관들의 협의체인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설립되었고 이후 보험회사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힘을 얻게 됨.

보험산업
연방규제
도입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

- 보험산업의 연방 규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 옴.
- 1980년대 주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주를 중심으로 한 지급여력 규제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에는 보험회사 파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연방 규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보험회사들은 시장에 상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감독제도를 원했으며, 보험산업 감독제도의 현대화를 희망했으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
- 현행의 주 보험감독제도 하에서 개선을 주장하는 측은 주 정부가 자신의 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진영에서는 선택적 연방 감독 제도가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는데 최선이 라는 입장임.

주정부 중심의
감독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보완

- 이후에도 보험감독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주 정부 중심의 감독 틀은 유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면서 산업간 장벽을 허물고 금융겸업화가 추진되었으나 보험감독제도는 13개 보호영역에 대해 주 감독 체계를 유지함.
- 그러나 상기 법은 보험모집인의 자격에 대해 일률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보험모집에 있어서 주 감독제도의 표준화를 꾀함.
- 이후 2003년 9월 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보험감독현대화 실천계획(Insurance Regulatory Modernization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일관성 있는 생명보험 상품 표준화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현재 주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라. 결론

지난 6월 미
행정부의
금융감독제도
개선안 제출

-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 속에 2009년 6월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출됨.
- 정부의 개선안에는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연방보험기구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방 보험감독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연방감독기구의 감독권은 포함되지 않았음.

보험산업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감독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 미 행정부의 금융 규제 개선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의 미국 보험감독제도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자는 측과 연방감독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임.
- 그러나 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연방보험감독제도 도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 제도의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됨.

* 자료 : Optional Federal Charter, III, 2009.06.
Legislators Introduce National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Act, Insurance Journal, 2009.4.2.
Kanjorski: Federal Regulation of Insurance "Yes",
www.wileyrein.com, 2009.5.15.
National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Act Fact Sheet,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9.4.

2. LIMRA, 생명보험 온라인 소비자 성향 분석 결과 발표

가. 설문조사 대상

LIMRA는
생명보험
판매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 미국 생명보험마케팅센터(LIMRA)는 소비자의 생명보험상품 정보 획득 및 구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설문인원은 24개월 내에 인터넷으로 보험 관련 정보를 탐색하거나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이하, 온라인 소비자) 2,122명이며, 비교대상인 2006년의 설문인원은 1,407명이었음.
- ☐ 주요 설문대상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연금,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surance), 장기간병보험 등임.

나.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에 의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는
보험사
사이트가 주요
통로

- ☐ 설문 결과 인터넷은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기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보험 전문가, 지인, 개인적인 경험 등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 인터넷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6%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임.
- ☐ 인터넷에 의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우는 주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로부터의 링크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0%, 기타 웹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는 37%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의 35%와 2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

- 기타 응답으로는 ‘보험 또는 금융회사 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가 24%, ‘온라인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서’가 20%, ‘스폰서 링크나 검색창 옆의 광고를 통해서’가 20%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보험회사들이 자사 웹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소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보험사고 등 개인적인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보험료 계산기 등을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보험정보 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소비자
증가

- 온라인 소비자들의 52%가 인터넷을 보험 정보 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비율은 2006년 3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소비자들은 주로 보험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웹사이트, 인터넷 토론실, 블로그, 교육용 비디오, 가상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 내용은 주로 상품의 종류나 가격, 보험회사에 관한 정보 등이며, 특히 최근 들어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는 성향이 증가함.

-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보험회사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보험 관련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고 인식하면서 인터넷의 활용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보험사
홈페이지를
가장 중요한
보험정보
수단으로
여기는 온라인
소비자 증가

- ‘가장 유용한 정보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온라인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험설계사, 중개인, 재정 전문가 등 보험 전문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2006년에 비해 감소함.

- 2006년 45%의 응답자가 보험 전문가를 가장 유용한 정보 수단으로 꼽았으나 2009년에는 33%로 감소했음.

- ‘보험회사 웹사이트가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2006년 8%에서 2009년에는 11%로 증가하였으며 보험회사 직원과 주변 사람들의 비중도 증가함.
-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주관한 LIMRA는 보험회사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다.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 및 해석

인터넷이 좋은
정보수단으로
인식

- 대부분의 온라인 소비자들은 보험과 관련한 조언과 정보를 얻는데 있어 인터넷을 좋은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이 보험 관련 조언을 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06년 65%에서 2009년 73%로 증가했으며, 인터넷이 보험 관련 정보를 얻는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06년 78%에서 86%로 증가함.
- 보험 전문가의 유용성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인터넷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정보 욕구를 시키는데 있어 좋은 매체로 작용함.

인터넷으로
보험상품
구매하는
온라인 소비자
증가

- 인터넷은 개인보험을 구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소비자들의 15% 가량이 생명보험, 연금 상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했으며, 이는 2006년 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험전문 판매인과의 대면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보상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은 개인보험을 구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음.

<표 1> 온라인 소비자 생명보험 구매 채널(LIMRA)

	2009년				2006년
	생명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	연금	전상품
인터넷	15%	14%	17%	14%	7%
대면채널	41%	28%	37%	63%	52%
직장	21%	43%	26%	9%	18%
메일이나 전화	22%	14%	18%	14%	19%
기타	1%	1%	2%	0%	4%

온라인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담제공 등이
보완점

- 온라인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노력을 통해 그들의 온라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구매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회사가 온라인 고객에게 전화 상담을 제공하거나 담당 지점 또는 설계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 전문가를 통하는 경우보다 소비자의 확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이해시키고 보험회사에 대한 확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상담원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상담 옵션 등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됨.

* 자료 : Trend in Consumer Internet Use, LIMRA, 2009.5.

◆ EU 동향

1. EU의 금융시스템감독 개혁 방안

가. 배경

금융위기는
금융감독의
실패에 기인

- EU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금융감독의 실패를 꼽고 있음.
- 금융위기를 통해 헤지펀드와 같은 특정 부문의 감독 실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감독시스템 운영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EU의 시각임.
- 현재의 EU 금융감독체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간 금융거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협력□조정□일관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EU의 금융시스템감독 관련 개혁방안은 2009년 2월에 발표된 'EU 금융감독시스템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2009년 3월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작성되었으며, 2009년 6월 EU 정상회담에 상정됨.

나. 금융시스템감독 개혁의 기본 방향

금융시스템
개혁 방향:
거시, 미시적
금융감독 강화

- EU의 금융시스템감독 개혁은 EU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C)와 EU금융감독기구(ESFS)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
- 거시적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EU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C: 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와 미시적 금융감독을 맡게 될 EU금융감독기구(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가 향후 핵심적 역할을 할 예정임.

1) EU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C)

거시적금융감독
을 위해 설립된
ESRC

- EU는 전 세계 금융시스템감독의 실패는 거시적 금융감독 실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음.

- 거시적 금융시스템감독 실패의 원인인 ‘신용 확장에 따른 초과 신용, 급등하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금융리스크 저평가’ 등을 조기발견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임.

ESRC, FSB,
IMF 공동으로
금융리스크
조기경보체제
구축

- G20과 미국은 이와 같은 거시적 금융시스템감독 실패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감독기구 창설하거나 준비 중임.

- G20에서 제안한 금융안정화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IMF와 공동으로 글로벌 거시 금융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고를 목적으로 함.

- 미국 역시 자국 금융시스템의 거시적 감독을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기로 함.

- EU는 G20, 미국, 제3국의 유사 감독기구와 공조하는 ESRC를 신설하여 거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기로 함.

- ESRC는 EU 전체의 금융시스템에서 금융안정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임.

-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심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기경보를 발령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권고할 예정임.

- ESRC는 조기경보 및 대처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도 맡을 것으로 보임.

ESRC
운영목표 및
실행계획

- ESRC가 금융위기로 인해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목표 및 구체적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 ESRC의 운영목표 및 실행계획

문제점	운영 목표	실행 계획		
		평가 체계	조기 경보	실행 여부
현재의 EU 감독체계는 미시적 감독에 치중	EU의 거시적 리스크 파악, 개별 금융감독기관의 연계성 분석	○	○	-
감독자, 중앙은행, 재무부간의 정보 교환에 법적□실무적 장벽 존재	거시적 리스크 관련 정보 공유 절차 확립	○	○	-
적정한 EU 수준의 조기경보체계 부재	동인별 조기경보 발효, 행동지침 명령	○	○	○
거시적 리스크 조기경보를 실행 단계화하는 주무부서 부재	조기경보와 행동지침에 대한 실행 여부 확인	○	○	○
거시적 감독 체계에 대한 국제적 협력 부족	국제 기구와의 효과적인 협력	○	○	○

ESRC 구성

- ESRC 위원은 현재 거시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ECB, EU금융감독청장, 각국 중앙은행장 선출권을 갖는 등 ESRC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ESRC가 거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지만 미시적 금융감독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ESFS 산하의 3개 EU금융감독청장을 ESRC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보완하기로 함.

<표 3> ESRC의 구성

정규회원	참관회원(옵저버)
의장: ECB총재(미확정)	27개 회원국 금융감독 대표
부의장: 非유로지역에서 선출(미확정)	EFC의 의장
27개 회원국의 중앙은행장	-
ECB 부총재	-
ESFS산하 3개 EU금융감독청장	-
European Commission의 회원	-

- 각국 은행들은 ECB와 연계한 거시적 금융감독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장들이 ESRC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중앙은행장들이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 대표자를 참관회원(옵저버) 형식으로 참석시키는 1+1이 예상된다.
-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리스크 분석을 위해 각국의 재무부장관은 ESRC 구성원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조치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EU경제□재정위원회 의장을 ESRC 참관회원으로 참석시키기로 함.
- ESRC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각국에 대한 ESRC의 경고 및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금융 조치는 6월 정상회담에서 예외사항으로 분류됨.

2) EU금융감독기구(ESFS)

미시적
금융감독을
위해 설립된
ESFS

- ESFS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며, 특히 다국적 금융기관 감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됨.
- 국제공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위기대처는 동일한 규정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 전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3개 EU금융
감독청 설립
(EBA, EIOPA,
ESA)

- 기존의 EU금융감독위원회는 업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EU금융감독청으로 전환되어 ESFS에 소속되며,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감독 분쟁을 해결할 예정임.
- 기존의 3개 은행□보험□증권 감독위원회는 EU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EU보험퇴직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U증권감독청(ESA: European Securities Authority)으로 재탄생하게 됨.
- 非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 감독자 협의체에 EU금융감독청이 참가하여 제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ESFS
운영목표 및
실행계획

- ESFS가 금융위기로 인해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목표 및 구체적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4> ESFS의 운영목표 및 실행계획

문제점	운영 목표	실행계획			
		母子국가감독균형	감독수준 평준화	위기 방지	피감기관비용 효율성
국가 간 감시 및 감독 실패	다국적 금융기관과 母子국가 감독균형 확립	○	○	-	-
국제공조 부족	구속력 있는 규정 제정	-	○	○	○
감독관행 격차	감독관행의 일관성 제고	○	○	○	○
동일 금융회사 감독 책임소재 모호	감독자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보장	○	-	○	○
국가별로 분산된 감독시스템	피감독기관 정보공유 기관 설립	-	○	○	-
	EU수준의 국가간 M&A 평가				
	위기상황시 조정권 강화 제3국가와의 협력 강화				
특수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부재	EU 금융기관 허가, 감독권을 새로운 조직에 이양				

- ESFS 구성 □ ESFS는 EU금융감독청장과 EU위원회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ESFS의 최상위 의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표 5> ESFS의 구성

I. 조정위원회(최고 의결기구): 3개 EU금융감독청장 및 EU위원회
II. 3개 EU금융감독청
- EU금융감독청 이사회: 3개 EU금융감독청장 및 회원국 금융감독청장
- EU금융감독청 운영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청 대표자, EU위원회 대표
- 참관회원: EU위원회 대표, ESRC 대표, 기타 비회원국 금융감독청 대표
III. 개별 국가 금융감독청

- EU금융감독청 역할 □ EU금융감독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EU내 단일 감독규정 마련, 일관성 있는 법규 적용, 국가간 감독 공조문화 정착, 충분한 감독권 이양, 조정능력 및 세부 감독정보 수집권 부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됨.
- 금융감독과 관련해 국가간 의견 대립시, 우선 EU금융감독청의 조정 절차를 거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EU금융감독청 직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
 - 국가간 감독 공조문화 정착을 위해 EU금융감독청은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국 감독자 모임에 참관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임.
 - EU금융감독청은 향후 EU지역 내 신용평가기관과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정산소(clearing house)의 인허가, 현장 감독권, 금융기관 간 M&A 평가 및 공매도 금지와 같은 비상조치권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금융감독 정보 수집을 위해 EU금융감독청의 관리를 받는 EU 중앙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며, 취합된 정보는 각국의 금융감독청과 ESRC에 전달될 예정임.

- EU금융감독청의 권한은 EU 조약 226조와 228조(회원국 간의 상호 책임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예정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됨.

다. 유럽정상, 금융개혁 방안 합의

-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6월 18~19일 정상회의를 갖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 EU는 2010년부터 ESRC와 ESFS를 설립하여 거시적□미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기로 함.

ESRC,
구제금융 결정
권한이 없음

- 다만,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영국의 반대로 EU의 상정(안)과는 달리 ESRC의 구제금융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기로 합의함.

- 회원국 정부 재정에 대한 간접 불가 원칙을합의문에 명시함.

-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미국의 금융시스템 감독개혁안과 대조를 이룸.

- 새로 설립될 EU시스템리스크위원회 의장도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 ECB 총재가 의장을 맡기로 제안되었으나, 非유로 국가인 영국이 반대함으로써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자료 : EU,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5.27.
EU, European Financial Supervision, 2009.5.27.
EU, Impact Assessment of European Financial Supervision, 2009.5.27.

2. FSA, 투자회사의 상품 판매 수수료 지급 금지 추진

FSA,
금융기관
수수료 금지
추진

□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투자시장의 신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자자문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보험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기로 함.

○ FSA는 소매판매채널 보고서(Retail Distribution Review)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 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자문의 질적 향상 개선(안)을 2012년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독립 재무설계사(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가 연금□생명보험□투자 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았던 수수료는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임.

○ 이번 개선안은 설계사의 상품판매 인센티브가 역할을 한 수수료 지급이 소비자의 선택과 효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됨.

수수료 지급은
수수료 편의를
유발해
소비자 실익
감소

□ FSA의 이번 투자자문 관련 개선안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 IFA의 자문은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적으로 투자소비자의 니즈에 기초하여 제공될 것

○ 제공받는 자문 서비스에 대해 투자□금융소비자가 인지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

○ 투자금융기관의 수수료 지급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편의(commission bias)를 근절하고 투자금융기관과 무관하게 상품 추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

○ 투자소비자들이 투자상품 자문비용과 비용지불방식을 인지하여야 할 것

수수료
자동지급
상품추천
금지

- 설계사의 투자자문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안 시행 첫해에 높은 수준의 자문 능력을 시현하여야 할 것
-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설계사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되며, 설계사가 이른바 ‘수수료 자동 지급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도 금지될 예정임.
- 반면에 투자□금융소비자는 추천 비용에 대해 정보를 듣고 설계자문 비용을 협상할 수 있으며 지급방식도 선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생명보험상품, 주택담보대출상품, 개인연금 상품, 주식 시장 연계 채권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 금지 주장이 힘을 얻었음.
- 미국도 뮤추얼펀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자동지급 상품 추천금지를 새로운 감독규정에서 포함시킬 것으로 보임.
- 소비자단체는 이와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지급 금지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수수료
금지로
설계사 이직
증가 전망

- FSA는 수수료체계 금지로 전체 독립 재무설계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명이 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제반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재무설계사 협회는 이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제반 변경비용으로 2억 1천만 파운드의 비용(설계사 일인당 6천 파운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컨설팅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재무설계 제공 업체의 20%~50%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함.

- 독립 재무설계사 3만 5천명 중에서 약 80%가 수수료 체계에 의해 재무설계 자문을 실시해 왔고, 1개사 이상 전속 설계사 5만명도 수수료 체계에 의해 재무설계 자문을 실시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 등 향후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클 것으로 보임.

* 자료 : FSA, 보도자료 2009.6.25.

FSA, Distribution of Retail Investments: Delivering the RDR, 2009.6.

FSA, Describing advice services and adviser charging 2009.6.

Financial Times 2009.6.26.

◆ 일본 동향

1. 일본의 보험회사 종합 감독지침 개정 방안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 발표

- 일본 금융청(이하 금융청)은 보험회사들의 통합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회사 종합 감독지침(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 최종 시행할 방침임.

가. 개정 배경

리스크 관리
중요성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주식시장 침체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이익률이 급감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됨.

FSF 결의문
실천을 위한
사후 조치

- 보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청은 이번 금융위기를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 법을 대폭 수정함.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세계 7개국 선진 금융 관련 당국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 금융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를 실천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을 지님.

-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 혼란이 가속화되자 일본을 포함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금융 감독 관련 당국자들은 4월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금융리스크에 관한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공조 원칙을 발표함.

<표 6> FSF의 금융위기 관리에 관한 주요 국제 공조 원칙

- ① 각국의 감독 당국은 시장개입에 신중해야 하며, 금융안정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바젤협약에 따라 시장개입을 허용함.
- ② 1년에 1회 이상 모여 금융 관련 국제 협력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③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 금융시스템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적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함.
- ④ 금융기관 파산시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플랜을 갖추도록 함.
- ⑤ 금융기관이 위기시에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수준의 풍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국의 감독 당국은 자금 조달 계획을 검증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함.
- ⑥ 긴밀한 국제 공조 아래 금융위기 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게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금융안정화포럼이나 기타 관계국 기관에 즉시 보고함.

자료 : '危機管理における国際的連携に関する原則'을 요약□정리함.

나.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계약을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 책임준비금 처리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교부시
고려사항

- ☐ 보험계약을 재보험 출재 시 재보험료에 상당하는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함.
- 해당 재보험 계약이 향후 리스크를 확실히 이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해당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재보험금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2) 통합 리스크 관리 강화

통합 리스크 관리 강화

- ☐ 금융청은 보험회사들이 이번 금융위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주요 원인으로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고,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감독해 리스크가 원활하게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함.
- ☐ 해당 보험회사가 통합 리스크 관리를 전사적 경영 방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 통합 리스크 관리 법규 및 부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 ☐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리스크를 계량화하여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 구체화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화

- ☐ 현행 감독 지침에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규정을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리스크 관리 규정을 더욱 구체화함.
- ☐ 해당 보험회사가 과거의 주요 위기나 손실 규모가 큰 사례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 변수들을 반영해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 가상 시나리오에 평상시 보유자산과 위기 발생 시 보유자산 사이의 가격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 ☐ 가상 시나리오에 계량화가 불가능한 리스크까지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신용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 ☐ 증권화 상품 등 신용투자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금융청은 기존 감독 규정에 다음 사항들을 추가함.

신용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 증명 가능한 자산 내용, 하부구조 및 신용보완 상황 등 보험 회사가 신용상품 전반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는지의 여부
-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가격을, 그 외의 경우에는 매매 빈도나 판매자 및 구매자의 가격차를 근거로 합리적인 가격 평가를 실시해 회계에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유동성 위기가 있는 경우 적절한 대응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5) 보증보험 및 CDS 리스크 관리 강화

보증보험 및
CDS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 보증보험 및 CDS(신용부도스왑)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기존 감독 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함.
 - 금융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채무 혹은 CDS의 상세 내용 파악에 노력하고 있는지의 여부
 - 금융 보증보험의 부채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필요한 보험 계약준비금 추가 적립을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CDS 거래와 관련해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가격을, 그 외의 경우에는 매매 빈도나 판매자 및 구매자의 가격차를 근거로 합리적인 가격 평가를 실시해 회계에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금융 보증보험과 CDS 거래와 관련해 채무 신용등급 및 보험 회사 등급에 따라 담보가 요구되는 조건의 경우 담보 제공을 상정한 유동성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 CDS 거래시 거래의 안전성 향상과 표준화에 의거하여 거래가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다. 시사점

통합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보험회사 감독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전사적 리스크 관리)을 보험회사 감독에 도입하여 통합 리스크 관리를 구축하는데 있음.

- 특히, 금융청은 보험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AIG 그룹과 다이와생명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리스크들을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 현 감독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함.

- 그룹 계열사들의 숨겨진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계량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까지 보험회사들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을 전환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충분한 자본
확보 및 기민한
사후 대응 기대

- 현재 보험회사들이 주요 리스크 관리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험 VaR는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미흡한 것으로 증명된 만큼, 향후 연이은 금융 충격에도 보험회사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자본 확보가 이번 조치로 인해 가능해 질 것으로 감독 당국은 기대하고 있음.

- VaR 하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99%의 신뢰 수준에서 최대 손실액을 추정해 이에 적절한 자본을 확보하였음.

- 예를 들어, 보유기간을 1년으로 가정 시 최악의 경우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100년에 한번 있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는 맹점이 있음.

- 따라서 이번 감독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보험회사들이 적정한 자본을 준비했는지의 여부와 자본 부족 시 자본 증강과 같은 사후 대책을 기민하게 펼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임.

* 자료 : 일본 금융청,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の一部改正(案), 2009.4.23.
保険毎日新聞, “金融庁、保険監督指針改正へ”, 2009.4.21.

2. 일본 보험업계의 신종 플루 대처 경과

가. 일본 내 신종 플루 확산 현황

신종 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 올해 초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A(H1N1, 이하 신종 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감염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WHO(세계보건기구)는 6월 11일 신종 플루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면서 전세계 신종 플루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5월 16일 고베시에서 신종 플루 감염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일본 내 감염자 수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표 7> 일본 내 신종 플루 감염자 수 및 사망자 수 현황

(7월 10일 기준)

발생 경로	감염자 수(누계)	사망자 수
국내 발생	2,253명	0명
검역 대상자를 통한 발생	20명	0명
계	2,273명	0명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bm.mhlw.go.jp)

- 일본 정부는 신종 플루에 관한 대응 수준을 감염자 발견 당일에 발생 초기인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초중고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나. 보상 범위의 명확한 설정

보상 범위를
선제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일본 보험업계

☐ 일본 내 신종 플루 감염자들이 속출하자 일본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에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감염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신종 플루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은 질병□의료보험과 여행보험 등으로 국한함.

1) 질병□의료보험

질병□의료보험
및 여행보험
보상 가능

☐ 신종 플루 감염시 치료 및 입원할 경우 기존의 질병□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됨.

○ 신종 플루 감염 환자들은 현재 질병□의료보험으로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치료비와 입원비를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2) 여행보험

☐ 여행보험(해외여행보험, 학교여행종합보험 등)은 질병사망 담보와 질병치료 및 구제비용 담보로 보상 가능함.

☐ 여행변경비용 담보(해외여행보험에만 있는 담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한해 적용됨.

○ 피보험자, 동행자 또는 친족이 신종 플루로 사망 혹은 위독해져 현지에서 일정기간 입원하거나 정부로부터 대피 명령을 받을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종 플루 치료를 이유로 당초 여행일정을 변경하게 될 경우,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비도 보험금으로 지급됨.

- 신종 플루로 인한 장시간의 기내 검역과 해당 공항 폐쇄 등의 사유로 환승 비행기를 놓쳐 6시간 안에 다른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험금이 정액 지급됨.
- 여행 도중 동행자가 신종 플루에 감염되어 여행을 도중에 취소하면 별도 항공권 구입 비용도 보험 처리가 가능함.

3) 기타 보험

휴업손실보험,
상해보험 등은
면책

- ☐ 휴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기업휴지보험, 기업비용□이익종합보험, 프랜차이즈보험, 세입자종합보험 등은 신종 플루로 인한 손해액 배상에 대해 면책임.

- ☐ 상해종합보험, 보통상해보험, 가족상해보험, 적립상해보험 등의 상해보험 역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 조류 인플루엔자(H5N1)와 달리 신종 플루는 특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들의 특정감염증위험담보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음.

* 특정감염증위험담보특약: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 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부에서 규정한 1~3류 특정 감염증에 의해 입□통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보험금 지급
기한 연장 고려

- ☐ 일행 중에 신종 플루 감염자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되어 본국 귀환이 지체될 경우, 본인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검사비와 입원비, 체재 비용, 항공기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함.

다. 보험금 지급 기한 연장 고려

- ☐ 통상적으로 귀국 후 7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험업계는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를 들어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둠.

-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시 다른 질병보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잠복기가 길다는 점을 고려해 귀국 후 보험금 지급 기한을 72시간에서 최대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음.
- 신종 플루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잠복기가 길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면 지급 기한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식 의견임.

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독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독려

- 보험회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플루 관련 정보를 갱신하는 한편, 예방 대책 및 보험 관련 문의를 가급적 상세히 안내하는데 주력함.
- 손해보험재팬, 닛신화재, AIU 등은 보험금 지급 지침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해외여행보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AIU는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항 내에 신종 플루 전용 안내 데스크를 긴급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임.
-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은 신종 플루 관련 소식을 매일 갱신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등 해당 정부 부처 홈페이지들을 링크하는 한편, 가정 및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들을 상세히 공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신종 플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마. 신종 플루 종합 컨설팅 제공

신종 플루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신종 플루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신종 플루에 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

- 도쿄해상과 손해보험재원은 신종 플루가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5월 말부터 ‘신종 플루 대책 100만엔 팩(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100万円パック)’과 ‘신종 플루 대책 행동 계획 및 BCP* 책정(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行動計画□BCP 策定)’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사업연속성계획): 재해 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적인 사업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계획

<표 8> 도쿄해상의 ‘신종 플루 대책 100만엔 팩’ 서비스 개요

종합지원 팩 (총 100만엔)	(1) 메뉴얼 작성 지원툴 제공 ① 신종 플루 대책 메뉴얼 모형 제공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 ② 긴급시 대응 방안 제공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 ③ 종업원용 계발 브로셔 제공(샘플 20부 제공) ④ 사내 게시용 포스터 제공 (2)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① 경영층을 대상으로 세미나 실시 (1회, 참가자수 불문, 국내) ② 취업규칙 등을 포함한 간이 진단(1회) ③ 전용 데스크를 통한 간이 상담 (6개월간, 전화 · 메일 이용, 주중 9시~17시) (3) 정보 제공 서비스(6개월간) (4) 비축품에 관련 서비스 ① 비축품 어드바이스 서비스 ② 방호품 사용 메뉴얼, 마스크 장착 비디오 제공
BCP 킷 팩 (총 100만엔)	(1) BCP 기본 문서 샘플 제공 (2) 템플릿 제공 ① 중요 업무 선정 ② 업무 프로세스 분석 ③ 사업 계속 전략 및 대책 검토 (3) 지도 · Q&A(약 1개월 소요, 총 3회)

주 : 상기 서비스는 2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택일이 가능함.
 자료 : 도쿄해상 홈페이지(www.tokiorisk.co.jp)

바. 시사점

선제적인
보험금 지급
지침 발표로
향후 논란
최소화 노력

- 일본 보험업계는 신종 플루로 인한 보험금 관련 문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금 지급 지침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보험금 지급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함.

- 이번 신종 플루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인 데다가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본 보험업계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신종 플루 감염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신종 플루
확산을
신종사업의
계기로 삼는
일본 보험업계

-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신종 플루 확산을 리스크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여기며 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기업 전략임.

- 손해보험재팬의 경우, 기업 경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분야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 리스크 컨설팅 전문 기업인 손해보험재팬위기관리(주)(www.sjrm.co.j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최근 다른 사례는 보험연구원에서 매주 발행하는 KiRi Weekly 제23호(2009.4.20字) 해외금융뉴스 일본編 '손해보험재팬, 온난화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 시작'을 참고

- 일본 주요 보험회사들이 보험업의 핵심 경쟁력인 리스크 분석 및 피해 예측 노하우를 활용해 리스크 평가 기술과 BCP 책정과 같은 종합 리스크 관리 컨설팅 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신규 수익원 창출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 보험업계도 주목할 만함.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AIU□닛신화재□손해보험재팬□도쿄해상□손해보험재팬위기관리(주) 홈페이지에서 신종 플루 관련 기사 참조

◆ 중국 동향

1. 중국 보감회, 보험모집인 설명 의무 강화 규범 발표

보험모집인
설명 의무
강화 규범
발표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보감회)는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를 한층 강화한 <보험 계약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업무 강화 규범에 관한 통지(关于推进投保提示工作的通知)>를 6월 3일 발표함.
- 이 규범에는 <인보험 계약시 보험모집인 설명업무 요구(人身保险投保提示工作要求)>와 계약자에게 알릴 구체적 내용들을 명문화한 <인보험 체결시 설명서 기준 내용(人身保险投保提示书基准内容)> 두 개의 준칙이 담겨 있음.

가. 규범의 주요 내용

상품설명시
유의사항
구체적 명시

- 보험모집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함.
- 상품설명 전, 합법적인 모집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보험판매 허가증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먼저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함*.
- *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보험중개관리감독정보시스템(IIRIS: <http://iir.circ.gov.cn>)에 접속하여 해당 보험모집인의 기본 신상 및 중개기관의 등재 여부를 확인 가능함.
- 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보험들의 보장 내역을 분석하고 보험가입 여력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야 함.
- 보험회사가 직접 제작한 광고물만을 사용하여 설명해야 함.
-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불법 취득하거나 보험판매와 관련한 기타 이익 수취를 엄격히 금지함.

계약 체결 중
계약자 알림
사항 구체적
명시

-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방카슈랑스 모집인의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권유 상품이 은행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은 계약자가 가입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회사 면책조항, 피보험자 권리 및 의무, 보험료 산출 관련 정보, 보상처리 절차, 보험계약 해지 규정 등을 설명해야 함.
- 만기가 1년 이상인 보험 상품은 계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猶豫期: 숙려기간)에는 언제든지 계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야 함.
- 중도해약 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함.
- 이윤배당보험(分红保險), 투자연계형보험(投資連結保險), 만능보험(万能保險)* 등 신종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함.

* 만능보험(万能保險): 보험료에서 보장원가, 수수료, 각종 관리비를 삭감하고 나머지가 투자되는 신종 투자형 보험상품

최종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구체적 명시

□ 최종 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함.

-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에게 계약서에 명기된 주의사항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함.

- 사전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함.
- 보험모집인은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해 계약자의 정확한 자택 주소, 연락처 및 기타 계약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에게서 받은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들을 계약 체결 즉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계약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서류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보험모집인은 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함.

보험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 고발 창구 다양화

- 보험모집인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에 대해 계약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
- 계약자는 보험모집인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신을 호도하거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보험회사와 지역 보감국, 보험업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나. 규범 제정 의미

보험모집인 설명 의무 법제화

- 이번에 제정된 규범은 보험모집인의 계약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법제화하고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의 중국 보험법에도 보험모집인 설명 의무를 다루고 있었지만 개괄적인 언급에 그친 나머지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
및 계약자
권익 신장
기대

- 이번 규범 제정으로 보험모집인은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험 관련 내용들을 계약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회사 홈페이지, 영업점, 대리점(은행창구 포함) 등에 설명 내용을 공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함.
- 보감회는 이번 규범이 실행되면 보험모집 행위 질서가 건전해지는 것은 물론, 계약자 권익이 신장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에 최초로 보험모집인이 생겼던 1992년 이후 현재는 중국 전역에 약 246만명의 보험모집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판매 지점 역시 약 9만 여개에 이를 만큼 보험모집인이 크게 증가함.
- 중국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모집인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재교육을 통해 보험모집인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기는 불완전 판매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번에 제정된 규범을 통해 보험모집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보험모집 질서가 건전해지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감독 당국은 기대하고 있음.

* 자료 :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关于推进投保提示工作的通知”, 2009.6.3.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中国保监会进一步推进投保提示工作保护投保人权益”, 2009.6.4.
世华财讯, “保监会要求加强投保提示工作”, 2009.6.4.

2. 중국 보감회, 보험회사 주식투자 업무 규범화 시행

보험회사
주식투자 업무
규범 발표

-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 주식투자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保险机构股票投资业务的通知)>를 발표함.

가. 주요 내용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중소

- 보험회사는 주식투자시 직접투자와 위탁투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소 보험회사들도 직접투자가 가능해짐.
- 보험회사는 직접투자와 위탁 투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보감회에 보고해야 함.
- 이전에는 중소 보험회사의 경우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증시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직접투자가 가능해짐.

지급여력에
따라 주식투자
규모 및 비율
결정

- 보험회사의 중국 국□내외 주식투자 규모 및 비율은 보험자산의 특성과 지급여력에 근거하여 정함.
-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함.
- 만일 지급여력비율이 4분기 연속 100~150% 수준이면 회사의 주식투자 전략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2분기 연속 100% 미만일 때는 주식투자 비율을 늘리지 못함과 동시에 시장 위험을 보감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주식투자 관련
불공정행위
엄격히 규제

- 보험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주식투자에 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엄격히 규제함.
- 보험회사는 주식투자가 외부 상황에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함.

- 보험회사는 주식투자 전문가 양성 뿐만 아니라 윤리 교육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위험등급별
종목군 구비
의무화
- 보험회사는 주식투자시 위험등급별 종목군을 갖추어야 함.
 - 보험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는 투자금지 종목군, 예비투자 종목군, 핵심투자 종목군 등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 종목군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함.
 - 각 종목군별로 유지관리 기능을 차별화하고 시장분석, 연구역량 투입 정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함.
 - 아울러 보험회사는 반드시 신용평가 등급이 AA 혹은 AA에 상응하는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함.
- 엄격하고
정량적으로
주식투자 위험
관리
- 주식투자 관련 위험을 정량적으로 엄격히 관리함.
 - 새로운 회계기준과 자금운용 관련 법조항에 따라 주식투자를 포함한 단기금융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주식투자 자금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함.
 - 보험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는 분기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일반적인 위험측정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까지 평가하여 주식시장 폭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함.
- 상시 내부감시
시스템을 통한
주식투자 관리
- 보험회사는 상시 내부감시 시스템을 통해 주식투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식투자 담당자는 자금운용에 관련한 엄격한 독립성을 부여받는 만큼 일관된 투자원칙 하에 소신있는 투자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자금운용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비정상 거래와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짐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규정에 입각한 책임투자가 정착되도록 함.

나. 의미

보험자금을
공격적으로
운용 가능

- 이번 규범으로 지급능력이 기준에 도달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은 주식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직접적인 주식투자가 제한되었던 중소 보험회사들도 직접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막대한 보험회사의 자산이 증시에 유입되어 증시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급능력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음.

직접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자산운용에 있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식투자 위험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임.
- 투자연계형보험과 같은 투자지향적인 보험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중소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자산운용 전략에서 벗어나 주식투자와 같은 수익성 높은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따라서 주식 투자로 인한 운용손실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보감회는 기존 법령에 투자종목 선정시 우량 종목으로 한정,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추가함.

보험자금
특성상
안전자산
투자 비중
확대

□ 그러나 이번 규범이 보험회사들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중장기로 운용되어야 하는 보험회사 자산의 특성상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감회의 기본 인식임.

- 보감회는 이번 규범과 같은 날에 <보험회사 채권투자 종목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增加保险机构债券投资品种的通知)>를 발표하고, 보험회사의 채권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국채, 금융채, 회사채 등의 채권 매입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함.

<표 9> <보험회사 채권투자 종목 확대에 관한 통지> 주요 내용

- ① 확대 대상 채권으로 1) 재정부가 대리 발행한 지방채, 2) 중국 국내 시장에서 발행한 중기채권을 포함한 금융채, 3) 대형 국유기업이 홍콩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전환사채 등과 같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함.
- ② 보험회사의 채권투자 역시 지급여력과 연동되어 지급여력이 일시적으로라도 150% 미만으로 하락한 보험회사는 무담보 채권 투자가 불가능함.
- ③ 연속 2분기 150% 미만을 기록한 경우, 무담보 채권 보유 비율을 늘릴 수 없음.
- ④ 관련 리스크 통제 메커니즘을 정비하며 보험회사가 채권 등의 방식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프로젝트 및 농촌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함.

자료 : <关于增加保险机构债券投资品种的通知>을 요약□정리함.

- 2008년말 기준으로 은행예금 및 각종 채권이 보험회사의 운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대비 16%p 상승한 84.4%로 나타났다.

- 이는 아직까지 보험회사들이 주식투자보다 채권투자와 같은 안전자산에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자료 :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关于规范保险机构股票投资业务的通知”, 2009.4.7.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关于增加保险机构债券投资品种的通知”, 2009.4.7.
广州日报, “规范保险机构股票投资业务改进股票资产配置管理”, 2009.4.8.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7			CY2008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4.9	5.1	5.9	5.8	4.8	3.8	-3.4	-4.2
경상수지	34.4	4,430	3,152	-5,213	-134	-8,580	7,521	8,577
수 출	92,984	90,529	103,272	99,445	114,492	115,000	93,071	74,568
수 입	87,962	86,059	100,563	106,053	114,793	122,901	91,528	71,182
실업률	3.2	3.1	3.0	3.4	3.1	3.1	3.1	3.8
금리	국고채(3년)	5.24	5.39	5.89	5.10	5.90	5.74	3.41
	회사채(3년)	5.64	5.85	6.73	6.01	6.88	7.76	7.72
소비자물가지수	104.6	105.3	106.0	107.4	109.6	111.1	110.8	111.6
환율	원/달러	926.8	920.7	938.2	991.7	1,043.4	1,187.7	1,257.5
	원/엔화	752.4	796.7	833.3	1,000.2	987.8	1,144.2	1,393.9
KOSPI	1,743.6	1,946.5	1,897.1	1,704.0	1,674.9	1,448.1	1,124.5	1,206.3
외환보유고	250,223	256,848	261,770	264,245	258,097	239,671	201,223	206,340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7			CY2008				CY2009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106,338	93,397	108,974	85,391	106,256	91,830	87,478	72,569
- 생 보	83,189	70,215	84,269	64,517	79,050	66,710	62,368	52,047
- 손 보	23,149	23,182	24,705	20,874	27,206	25,120	25,110	20,522
은 행	101,574	8,442	204,778	214,006	235,332	148,217	197,137	141,250
- 일 반	114,075	-42,781	187,062	142,969	291,219	145,463	218,569	187,727
- 신 탁	-12,501	51,223	17,716	71,037	-55,887	2,754	-21,432	-46,477
증 권	85,722	37,556	-13,605	6,184	47,423	1,782	2,938	81,168
투 신	163,893	112,258	269,007	377,948	239,132	-167,059	185,113	261,799
총 금	79,432	37,691	14,457	34,881	43,348	-55,532	4,640	34,826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5,507	37,275	141,403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성장률	9.6	2.8	8.6	-0.5	3.8	-1.1	-3.8	-0.5
	구성비	16.5	20.2	18.8	18.8	19.6	17.9	20.3	19.1
사망	보험료	75,176	75,026	297,700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성장률	4.2	2.8	4.2	1.4	0.6	-2.7	-3.5	-1.1
	구성비	34.9	40.6	39.6	40.9	41.2	37.2	41.1	40.0
생사 혼합	보험료	16,754	16,193	66,043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성장률	-1.3	-8.1	-2.8	-9.3	-3.1	-5.3	20.2	0.5
	구성비	7.8	8.8	8.8	8.3	8.8	8.1	11.0	9.0
변액 보험	보험료	48,117	45,184	173,912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성장률	63.6	47.1	50.9	27.8	5.7	-12.3	-10.8	1.2
	구성비	22.3	24.5	23.2	25.9	25.5	21.5	22.9	23.9
개인계	보험료	175,555	173,678	679,058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성장률	16.3	10.2	13.4	5.9	2.2	-5.2	-3.3	-0.2
	구성비	81.4	94.0	90.4	94.0	95.1	84.7	95.3	92.1
단체	보험료	40,120	11,006	71,898	10,945	8,744	30,099	8,299	58,087
	성장률	36.9	-21.2	9.7	-8.2	-1.2	-25.0	-24.6	-19.2
	구성비	18.6	6.0	9.6	6.0	4.9	15.3	4.7	7.9
합계	보험료	215,675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성장률	19.7	7.7	13.0	5.0	2.0	-8.9	-4.5	-2.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9,931	28,143	04,361	22,838	31,257	37,527	28,276	9,899
	증가율	47.8	27.2	27.9	9.9	22.5	25.4	0.5	14.9
	지급률	84.3	75.5	73.8	66.3	88.5	106.9	78.9	85.2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32,928	33,482	23,728	31,371	35,308	39,016	41,300	146,996
	증가율	19.0	13.8	10.5	13.7	18.7	18.5	23.3	18.8
	지급률	43.8	44.6	41.6	41.9	47.6	53.3	57.0	49.9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35,605	26,600	102,973	18,738	18,230	19,304	15,351	71,622
	증가율	90.0	44.7	40.1	2.7	-19.1	-45.8	-42.3	-30.4
	지급률	212.5	164.3	155.9	122.7	115.7	121.6	78.9	107.9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18,683	13,981	59,022	14,882	13,918	16,765	14,032	59,597
	증가율	203.9	73.2	173.0	33.5	-8.5	-10.3	0.4	1.0
	지급률	38.8	30.9	33.9	31.4	30.3	39.7	34.8	33.9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117,147	102,206	390,084	87,830	98,713	112,612	98,959	398,114
	증가율	60.9	31.0	35.1	13.0	6.2	-3.9	-3.2	2.1
	지급률	66.7	58.8	57.4	51.1	57.6	67.7	58.9	58.8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4,259	17,961	58,683	15,960	14,562	21,485	25,317	77,324
	증가율	8.4	-4.6	-6.4	20.5	10.2	50.7	41.0	31.8
	지급률	35.5	163.2	81.6	145.8	166.5	71.4	305.1	133.1
전체	지급보험금	131,406	120,168	448,766	103,790	113,275	134,097	124,276	475,438
	증가율	52.9	24.1	27.7	14.1	6.7	2.0	3.4	5.9
	지급률	60.9	65.1	59.8	56.8	62.9	68.3	70.5	64.6

주 :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사업비	8,215	8,369	31,382	8,427	9,398	8,717	6,060	32,602
	증가율	27.4	21.0	25.7	19.3	21.5	6.1	-27.6	3.9%
	사업비율	23.1	22.5	22.2	24.5	26.6	24.8	16.9	23.2
사망보험	사업비	20,519	20,732	77,185	18,388	18,447	17,772	16,382	70,989
	증가율	14.9	9.4	10.6	4.2	0.9	-13.4	-21.0	-8.0%
	사업비율	27.3	27.6	25.9	24.6	24.9	24.3	22.6	24.1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7,401	7,330	26,744	7,456	7,391	6,386	4,721	25,954
	증가율	33.6	23.2	18.0	36.7	12.7	-13.7	-35.6	-3.0
	사업비율	44.2	45.3	40.5	48.8	46.9	40.2	24.2	39.1
개인보험계	사업비	36,135	36,430	135,311	34,271	35,236	32,875	27,162	129,544
	증가율	21.1	14.5	15.2	13.6	8.2	-9.0	-25.4	-4.3
	사업비율	20.6	21.0	19.9	19.9	20.6	19.8	16.2	19.1
단체보험계	사업비	979	985	3,507	855	957	925	782	3,519
	증가율	17.0	-5.5	0.3	12.5	22.0	-5.5	-20.6	0.3
	사업비율	2.4	8.9	4.9	7.8	10.9	3.1	9.4	6.1
전체	사업비	37,114	37,415	138,818	35,127	36,192	33,800	27,944	133,063
	증가율	21.0	13.9	14.8	13.6	8.5	-8.9	-25.3	-4.1
	사업비율	17.2	20.3	18.5	19.2	20.1	17.2	15.8	18.1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878	775	3,075	701	632	792	710	2,835
	성장률	-2.6	2.3	-1.8	-5.7	-6.9	-9.8	-8.4	-7.8
	구성비	1.0	0.9	0.9	0.8	0.7	0.8	0.7	0.8
해 상	보험료	1,486	1,514	6,518	2,166	1,912	2,564	1,864	8,507
	성장률	13.9	15.2	3.1	24.9	7.2	72.6	23.1	20.9
	구성비	1.6	1.7	1.9	2.4	2.1	2.6	2.0	2.3
자동차	보험료	27,900	27,444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성장률	14.1	9.3	12.0	6.0	3.5	-1.2	-3.2	1.2
	구성비	30.3	31.7	31.8	30.6	30.5	27.8	28.0	29.2
보 증	보험료	2,602	2,573	9,940	2,814	2,928	2,821	2,966	11,529
	성장률	-15.3	-5.3	-13.0	16.1	25.1	8.4	15.3	16.0
	구성비	2.8	3.0	2.9	3.1	3.2	2.8	3.1	3.1
특 종	보험료	7,455	6,478	27,245	7,209	7,488	7,668	6,754	29,119
	성장률	9.4	10.3	9.0	9.5	11.3	2.8	4.3	6.9
	구성비	8.1	7.5	8.0	8.1	8.2	7.7	7.1	7.8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98	383	1,126	224	341	637	580	1,781
	성장률	7.1	108.7	36.8	16.9	34.2	113.9	51.3	58.4
	구성비	0.3	0.4	0.3	0.2	0.4	0.6	0.6	0.5
장 기	보험료	41,650	43,308	163,436	44,857	46,357	47,656	49,958	188,829
	성장률	19.6	16.8	19.5	16.1	16.3	14.4	15.4	15.5
	구성비	45.2	50.0	48.1	50.1	50.7	48.1	52.7	50.4
개 인 연 금	보험료	2,629	2,713	9,995	2,907	3,104	3,394	3,449	12,853
	성장률	24.0	27.0	25.3	28.3	30.0	29.1	27.1	28.6
	구성비	2.9	3.1	2.9	3.2	3.4	3.4	3.6	3.4
퇴 직 보 험	보험료	6,047	935	8,258	518	410	4,770	1,110	6,807
	성장률	48.6	-8.1	26.2	-32.4	-19.7	-21.1	18.7	-17.6
	구성비	6.6	1.1	2.4	0.6	0.4	4.8	1.2	1.8
퇴 직 연 금	보험료	1,256	536	2,133	756	389	1,238	939	3,322
	성장률	758.8	308.1	61.0	-32.4	-19.7	-1.5	75.1	55.7
	구성비	1.4	0.6	0.6	0.8	0.4	1.2	1.0	0.9
계	보험료	92,201	86,658	339,818	89,550	91,408	99,113	94,883	374,954
	성장률	18.3	13.6	14.9	12.9	11.9	7.5	9.5	10.3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4.0	44.2	43.0	37.5	40.3	39.7
	사업비율	47.4	45.9	45.0	40.8	43.2	41.6
	합산비율	91.3	90.1	88.0	78.3	83.5	81.4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8.7	57.7	52.9	62.5	70.2	127.1
	사업비율	31.8	32.6	31.1	31.3	27.5	27.5
	합산비율	90.6	90.3	84.0	93.8	97.8	154.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3.9	73.0	68.1	68.4	69.6	69.7
	사업비율	31.0	31.2	31.3	31.5	31.3	31.1
	합산비율	104.9	104.2	99.4	99.9	101.0	100.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17.8	19.5	23.7	35.6	50.7	48.9
	사업비율	13.5	17.8	26.0	21.6	20.9	23.3
	합산비율	31.3	37.4	49.7	57.3	71.6	72.2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8.2	60.4	57.8	60.2	63.3	64.7
	사업비율	25.6	26.8	24.6	24.4	24.2	24.7
	합산비율	83.8	87.2	82.3	84.6	87.6	89.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30.6	34.6	38.1	39.4	43.2	45.8
	사업비율	66.0	73.7	76.6	74.6	72.2	73.9
	합산비율	96.6	108.3	114.7	114.0	115.4	119.7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3	80.7	80.0	80.3	79.8	79.3
	사업비율	18.4	18.9	18.8	19.1	20.3	22.0
	합산비율	99.8	99.6	98.8	99.3	100.1	101.4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6.4	121.7	115.7	115.7	115.7	117.9
	사업비율	9.9	10.5	12.1	12.0	12.1	12.3
	합산비율	126.3	132.2	127.8	127.7	127.8	130.2
전 체	경과손해율	75.9	75.7	73.7	74.5	75.5	76.1
	사업비율	23.0	23.5	23.5	23.5	24.0	24.9
	합산비율	98.9	99.2	97.2	98.0	99.5	101.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2009.3 이경희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 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정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금융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보험금융연구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보험금융연구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보험금융연구 ☐보험동향(계간)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 (통권 50호)

발행일 2009년 7월 일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대화인쇄 / 02-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 (☎3775-9077, 3775-90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